박사학위논문

북한 군중노선에 관한 연구
-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ss Line in North Korea
- Centered on the Mass Mobilization Campaigns -

김 충 환

북한대학원대학교

2020년 7월 일

박 사 학 위 논 문

북한 군중노선에 관한 연구
-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ss Line in North Korea
- Centered on the Mass Mobilization Campaigns -

지도교수 신 종 대

이 논문을 북한학 박사학위(정치통일전공)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7월 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치통일전공
김 충 환

김충환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2020년 7월 일

목 차

국문요약 ····· viii

제Ⅰ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7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 18
제4절 분석틀 ····· 23

제Ⅱ장 북한 군중노선의 특징 ····· 27
제1절 군중노선의 함의 ····· 28
제2절 사회주의국가의 군중노선 ····· 30
제3절 북한의 군중노선: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 ····· 38
제4절 소결 ····· 46

제Ⅲ장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북한 대중운동 ····· 47
제1절 배경 ····· 48
제2절 천리마운동(1956~1972)과 천리마작업반운동(1959~1972) ····· 52
제3절 제2의 천리마운동(1998~2011) ····· 82
제4절 만리마운동(2016~현재) ····· 87
제5절 소결 ····· 93

제Ⅳ장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북한 대중운동 ····· 96
제1절 배경 ····· 97
제2절 김일성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1975~1994) ····· 100
제3절 김정일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1994~2011) ····· 118
제4절 김정은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2012~현재) ····· 140
제5절 소결 ····· 153

제Ⅴ장 결론 ····· 156

참고문헌 ····· 165

ABSTRACT ····· 209

세 부 목 차

국문요약 ····· viii

제Ⅰ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7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 18
1. 연구의 시기와 범위 ····· 18
2. 연구방법 ····· 20
3. 연구자료 ····· 21
제4절 분석틀 ····· 23

제Ⅱ장 북한 군중노선의 특징 ····· 27
제1절 군중노선의 함의 ····· 28
제2절 사회주의 국가의 군중노선 ····· 30
1.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 ····· 30
2. 중국의 대약진운동 ····· 33
제3절 북한의 군중노선 :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 ····· 38
제4절 소결 ····· 46

제Ⅲ장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북한 대중운동 ····· 47
제1절 배경 ····· 48
제2절 천리마운동(1956~1972)과 천리마작업반운동(1959~1972) ····· 52
1. 전개과정 ····· 52
(1) 제1차 전국 천리마작업반 선구자대회 ····· 52

(2) 제2차 전국 천리마작업반 선구자대회 ····· 57
(3)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 선구자대회 ····· 63
2. 결과 ····· 64
(1) 경제적 측면 ····· 65
(2) 정치사상적 측면 ····· 72
제3절 제2의 천리마운동(1998~2011) ····· 82
1. 전개과정 ····· 82
(1)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선구자대회 ····· 82
2. 결과 ····· 84
(1) 경제적 측면 ····· 84
(2) 정치사상적 측면 ····· 85
제4절 만리마운동(2016~현재) ····· 87
1. 전개과정 ····· 87
(1) 만리마 선구자대회 ····· 87
2. 결과 ····· 89
(1) 경제적 측면 ····· 89
(2) 정치사상적 측면 ····· 89
제4절 소결 ····· 93

제Ⅳ장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북한 대중운동 ····· 96
제1절 배경 ····· 97
제2절 김일성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1975~1994) ····· 100
1. 전개과정 ····· 100
(1) 3대혁명 소조운동 ····· 100
(2)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 102
2. 결과 ····· 108
(1) 정치사상적 측면 ····· 108

(2) 경제적 측면 ····· 111
제3절 김정일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1994~2011) ····· 118
1. 전개과정 ····· 118
(1) 제2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 118
(2) 제3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 124
2. 결과 ····· 129
(1) 정치사상적 측면 ····· 130
(2) 경제적 측면 ····· 134
제4절 김정은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2012~현재) ····· 140
1. 전개과정 ····· 140
(1) 제4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 140
2. 결과····· 146
(1) 정치사상적 측면 ····· 146
(2) 경제적 측면 ····· 150
제5절 소결 ····· 153

제V장 결론 ····· 156

참 고 문 헌····· 165

ABSTRACT ····· 209

【 표 목 차】

【표 2-1】 북한과 소련 · 중국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 비교 ····· 44
【표 3-1】 북한의 5개년계획(1957~1961)의 목표와 실적 비교 ····· 66
【표 3-2】 북한의 제1차 7개년계획(1961~1970)의 목표와 실적 비교 ···· 67
【표 3-3】 천리마운동 기간의 생산경쟁운동의 실적 ····· 69
【표 3-4】 천리마 칭호 수여단위 숫자 ····· 75
【표 3-5】 북한 정권별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 전개 ····· 92
【표 4-1】 김일성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수여단위 숫자 ····· 110
【표 4-2】 북한의 6개년계획(1971~1976)의 목표와 실적 비교 ····· 112
【표 4-3】 북한의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의 목표와 실적 비교 ··· 113
【표 4-4】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의 목표와 실적 비교 ··· 115
【표 4-5】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기간의 생산경쟁운동의 실적 ····· 116
【표 4-6】 김정일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연평균 수여단위 숫자 ····· 131
【표 4-7】 김정일 정권(1994~2011)의 경제성장률과 공업(제조업) GDP 성장률 ····· 136
【표 4-8】 김정은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수여단위 숫자 ····· 147
【표 4-9】 북한 정권별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연평균 수여단위 숫자 ····· 148
【표 4-10】 김정은 정권(2012~2018)의 경제성장률과 공업(제조업) GDP 성장률 ····· 151
【표 4-11】 북한 정권별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전개 ····· 152

【 그 림 목 차】

【그림 1-1】 논문의 분석틀 ····· 26
【그림 3-1】 군중노선에서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과 지도사상 · 발전전략의 관계 ····· 49
【그림 3-2】 천리마운동 기간의 생산액과 성장률 추이 ····· 70
【그림 3-3】 북한의 천리마 칭호 증가 추이 ····· 76
【그림 4-1】 군중노선에서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과 지도사상 · 발전전략의 관계 ····· 98
【그림 4-2】 김일성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연평균 수여단위 증가 추이 ····· 111
【그림 4-3】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기간의 생산액과 성장률 추이 ···· 116
【그림 4-4】 김정일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연평균 수여단위 추이 ····· 131
【그림 4-5】 김정일 정권(1994~2011)의 경제성장률과 북한 공업(제조업) GDP 성장률 추이 ····· 138
【그림 4-6】 북한 정권별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연평균 수여단위 추이 ····· 149
【그림 4-7】 김정은 정권(2012~2018)의 경제성장률과 공업(제조업) GDP 성장률 추이 ····· 151

국문요약

북한의 군중노선에 관한 연구
-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

정치통일전공 김충환
지도교수 신종대

이 논문은 북한에서 군중노선이 어떤 특징을 가진 대중운동으로 전개되고 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하면서 왜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는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 제2의 천리마운동, 만리마운동이 있다.

여타 사회주의국가들과 달리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이라는 특질을 보이면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시기와 국면에 따라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에서 그 강도가 달라져왔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정치사상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시기에는 천리마 칭호와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는 단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고, 생산경쟁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시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기는 하나 경제 실적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대별하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과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이라는 특질을 가지면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처음 나타난 것은 천리마운동이었다. 생산경쟁

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이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대중동원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과 함께 정치사상운동은 점차 강화되어 갔다. 이에 따라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을 대체하였는데,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기간에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거나 경제 실적을 내야 하는 시기에는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 제2의 천리마운동 및 만리마운동 등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대전제로 하여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이라는 특질을 가지고 변화하면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중심축이 이동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기간에도 경제 위기 극복이나 경제 실적을 내야하는 시기에는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서 정치사상운동의 결과는 천리마 칭호와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은 단위의 차이를 가지고 상대적이나마 기간별로 비교해볼 수 있었고, 생산경쟁운동의 결과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의 작용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경제계획의 목표와 실적의 차이를 가지고 상대적이지만 기간별로 비교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 주제어: 군중노선 대중운동 천리마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정치사상운동 생산경쟁운동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나타난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북한의 군중노선을 적확하게 알아보려는 것이다.

북한사회의 한 단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북한 군중노선의 특징과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 군중노선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과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일상생활에서 정치와 경제가 결합되어 작동되는 북한사회의 실상을 적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신생 후진국으로 출발하였고,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우선의 당면과제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었다. 초기의 사회주의 기초건설이라는 과제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활용하며,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연구가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 전개된 천리마운동을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북한에서 1950년대 중후반이 전후 복구를 위한 3개년계획(1954~1956)이 완료되고 사회주의 기초건설이 본격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건설과 제도화의 기초를 다지고 농업협동화를 완성하기 위한 5개년계획(1957~1961)을 추진하는 시기에 시작되었다. 1956년은 북한에서 중공업을 우선시하는 세력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경공업과 농업 발전을

우선시하는 세력 사이에 정치적 충돌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였다. 즉, 북한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정치·경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추진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출발하였으나, 처음부터 단순한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이 아닌 정치사상운동과의 결합이라는 특질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정치사상운동에 의한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었다. 천리마운동은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 속에서 추진되는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었던 것이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이라는 정치적 이상과 선진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라는 현실 사이에 타협을 모색하는 전략적 설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군중노선은 항상 계급노선과 결합되어 있었으며, 북한은 이를 혁명적 군중노선이라 명명하였다. 또한 항상 좌우편향을 경계하도록 하였는데, 혁명에 치중하여 군중을 소외시켜서도 안 되지만 군중을 포섭하는 것에 치중해서 혁명을 도외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1]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은 처음부터 이론적으로 정연한 체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 군중노선에서 군중은 당원을 제외한 노동자와 농민이라는 기본군중을 의미하기도 하였는데, 당이 군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당원들이 군중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정치노선으로 출발하였다.[2] 북한의 군중노선은 혁명과 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군

1) 현성일은 인민대중의 통일단결 강화는 당의 군중노선을,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은 계급노선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 두 가지 노선을 결합한다는 것은 적대세력을 최대한 고립·약화시키고 될수록 많은 군중을 당의 주위에 결속시킨다는 것이다. 계급노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고 '적대계층을 많이 양산하는' 좌경적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반대로 군중노선만 강조하는 경우 '불순분자와 적대세력의 잠입'을 허용하여 '혁명대오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우경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한다.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서울: 선인, 2007), pp. 91-92.

2)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당 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55년 12월 28일)』(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p. 25-27.

중을 당의 주위에 포섭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 기초를 건설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자원을 필요로 하였다. 사회주의 기초건설 단계에서 혁명과 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텔리라는 핵심계층·기본계층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군중을 포섭하고 교육하여 노동계급화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군중노선에서의 군중은 핵심계층과 기본계층 이외의 복잡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복잡계층의 군중을 노농동맹으로 흡수하려는 것은 천리마운동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다.[3] 군중노선은 노동계급과 동맹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모든 계급·계층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4] 그러면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진전되어 사회의 모든 군중이 핵심계층, 기본계층으로 교육교양이 되고 노동계급화 되고 난 이후에도 군중노선이 계속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군중노선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 북한의 군중이 모두 노동계급으로 전환되더라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자극하고 도출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군중

3) 북한은 군중노선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해방 후 조국의 남북으로의 분렬, 특히는 조국 해방 전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사회 정치적 구성이 적지 않게 복잡하여졌고, 이 복잡한 계층들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치 도덕적 통일을 강화하며 우리의 혁명 력량을 결속시키기 위한 투쟁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극히 중요한 문제"라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김영걸·김덕진,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 『근로자』, 제7호(1963), p. 14.

4) "계급 로선이란 모든 사업을 처리함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리익을 고수하며 로동 계급의 정치, 경제, 사상적 립장이 강화되도록 하는 원칙이며 군중 로선은 로동 계급과 동맹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모든 계급, 계층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이다." 김영걸·김덕진,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 p. 10; "당대표자회 보고에서 똑똑히 이야기한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계급투쟁을 사람들을 함부로 목을 자르고 내쫓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교양하고 개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를 반대하여 나서는 자는 용서하지 말고 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화하여야 하며 그들을 모두 당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워 함께 손잡고 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p. 336-337.

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오늘날까지도 변화하면서도 지속되고 있는 이유이다.

군중노선을 이론화하는 주장들에 따르면 혁명적 군중노선의 철학적 전제로서의 대중관과 당의 영도, 사업방법으로 정치선행, 상부의 하부 지원, 중심고리 집중, 모범 창조와 일반화 등을 들고 있다.[5] 이러한 군중노선의 이론화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이 진행되면서 필요에 따라 도식화한 것으로 북한만의 특징을 가미한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중노선은 북한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공산주의 혁명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노동계급이 혁명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사회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마르크스는 예견하고 있었다. 현실은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자본주의 후진국인 제정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발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노동계급의 역량이 모자라는 조건에서 전위당을 앞세워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해 나가야 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자계급을 주축으로 하되 모든 군중을 혁명에 동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북한에서 1956년에 시작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기초건설과 농업협동화를 추진하는 시기에 혁명의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 인텔리와 함께 군중을 혁명과 건설에 동원하기 위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었다. 천리마운동은 1937년 말부터 시작된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과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중국의 대약진운동과 유사한 북한식의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으로 시작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었던 것이다.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비롯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이라는 특질을 가지고 추진됨으로써 변화하면서도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주된 차이점이다.[6]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 '80년대

---

5) 백두연구소 엮음,『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서울: 백두, 1989), pp. 8-18.
6) 류길재,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경제건설: 「스타하노프운동」및「대약진운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체제』(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3), pp. 52-57.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제2의 천리마운동, 만리마운동은 생산경쟁운동인 동시에 정치사상운동이었다. 생산경쟁운동과 정치사상운동의 결합에서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는가에 따라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과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기본적으로 정치사상운동을 통하여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여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을 고무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즉, 군중들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자극과 함께 정치적 자극을 강화하여 생산을 제고하는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이었다. 북한에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으로 시작되어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거쳐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이행하고 있었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에 주안점을 두고 출발하고 있으나, 천리마작업반운동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이행되면서 정치사상운동이 점차 강화되었다.

북한은 군중노선을 해방 이전까지 소급하고 있고, 해방이후 ‘건국사상 총동원운동’을 기원으로 보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천리마운동을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첫 번째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 보았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은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노동시간의 연장(외연적 성장적 요소)과 노동강도의 강화(내포적 성장적 요소)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7] 천리마운동은 북한이 축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없이 기업의 내부원천과 생산 예비를 동원하여 증산을 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었다.[8] 북한에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건설, 즉 경제 건설에 집중한 시기에는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었지만, 정치권력 강화에 집중한 시기에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7) 양문수, “북한 경제개발의 역사적 구조: 외연적성장의 내부구조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제2호(2000), p. 200.
8) 김종수, “북한 근로단체 ‘침체기’ 연구: 1960년대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17집 3호(2007), p. 343.

전개되었다.

북한에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정권이 바뀌고 명칭이 변하면서도 지속되어 왔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과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북한의 군중노선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중요성과 기여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군중노선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대별해 본다면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와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와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군중노선과 비교하는 연구들이 있으나 대체로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크게 보면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에 포함시켜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특히 새로운 사회주의 · 공산주의 인간형으로 개조하는 노력의 하나로 문화적 접근을 강조하는 연구는 정치사상운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집단주의문화 형성과 정치사상교양이라는 문화적 접근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북한사회에서 정치와 문화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점에서 동일한 현상의 양면으로 보고 여기에서는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와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밖에 정치와 경제의 결합을 강조하는 연구들도 상당수가 있다.

이러한 군중노선에 대한 연구들은 군중노선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정치적 · 경제적 동원으로서의 대중운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천리마운동이나 3대혁명소조운동과 같은 개별적 운동에 대한 정치적 의미나 경제적 의미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특정한 시기의 군중노선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이다. 군중노선은 대중운동 형태로 나타나거나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과 군중노선에 의한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에 대한 구분이 없이 혼용하거나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혼란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기 위한 노력으로 이 연구에서는 군중노선을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과 군중노선에 의한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분석하면서 정치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정치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동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거나, 사회주의 건설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동원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이다. 이 연구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정치적 동원과 경제적 동원을 병행하는 가운데 시기와 국면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면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과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즉, 북한에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이라는 특질을 공통점으로 하면서 시기와 국면에 따라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과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북한의 현실에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중에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에는 북한의 정권승계 과정에서의 3대혁명소조운동의 정치적 기능에 관한 연구,[9]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중국의 대약진운동과 비교하여 특징을 분석한 연구,[10]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정치사회화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11] 등이 있다. 크게 보아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에 포함되는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로는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생활문화 집단주의화의 방편으로 보는 연구,[12]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의 원형으로서의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에 대한 연구[13]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정치적 측면에 대한 연구

9) 강성윤, “3대혁명소조운동의 정치적 기능에 관한 연구: 정권승계를 중심으로,” 『안보연구』, 제9권 0호(1979), pp. 55-69.
10) 류길재,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경제건설:「스타하노프운동」및「대약진운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pp. 43-79.
11) 이만우, “북한사회 대중운동에서의 권력작용 연구: 소위 ‘영도방법’의 원리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해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서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1998), pp. 189-217.
12) 김진환, “조선노동당의 집단주의 생활문화 정착 시도,”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2010), pp. 23-48.
13) 김경욱, “북한 교육교양의 원형에 관한 연구: 천리마시대(1956~1972)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2017); 김경욱, “천리마시대(1956~1972)의 북한 교육교양에 대한 연구: 북조선인의 탄생,” 『현대북한연구』, 제21권 1호(2018). pp. 7-53.

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군중노선에 대한 비교연구로 북한과 중국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과 대약진운동에 대한 비교 연구,[14] 북한의 군중노선을 중·소의 군중노선과 비교한 연구[15] 등이 있고, 이 밖에도 북한과 중국의 군중노선을 비교한 연구,[16] 북한의 천리마운동과 중국의 대약진운동을 비교한 연구[17] 등이 있다.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정권의 권력 강화를 위한 군중노선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사회주의건설 차원이 아니라 수령론과 후계자론을 통해 후계체제 구축기능과 세대교체 준비라는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거나,[18] 천리마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이 당의 혁명적 군중노선과 결합하여 안정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점을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과 중국의 대약진운동과의 차이점으로 지적하거나,[19] '건국사상 총동원운동'(1946~1948)을 시작으로 1950년대 말~1960년대의 천리마운동, 1970년대의 3대혁명소조운동, 1980년대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운동', 1992년의 수정헌법에서 제도화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혁명적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계보로 정리[20]하고 있다. 북한의 지배집단이 집단주의 생활문화를 피지배집단에게 내면화하는데 적합한 정치·경제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이라거나[21], 1950년대 후반에 사회

---

14) 정세현, "북한과 중공의 군중노선 비교연구: 천리마운동과 대약진운동을 중심으로," 『자유아카데미연구논총』, 제1집(1977), pp. 113-134.
15) 박동운, "중·소와 비교해본 북한의 군중노선," 『북한학보』, 제2집(1978), pp. 11-33.
16) 강삼원, "중공과 북한의 군중노선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3집(1985), pp. 99-106.
17) 이문청·서정민,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대중동원운동 비교연구: 천리마운동과 대약진운동,"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제4호(2013), pp. 157-183.
18) 강성윤, "3대혁명소조운동의 정치적 기능에 관한 연구: 정권승계를 중심으로," pp. 61-68
19) 류길재,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경제건설:「스타하노프운동」및「대약진운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pp. 57-61.
20) 이만우, "북한사회 대중운동에서의 권력작용 연구: 소위 '영도방법'의 원리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해를 중심으로," pp. 189-190.
21) 김진환, "조선노동당의 집단주의 생활문화 정착 시도," pp. 23-27.

주의 농업국가에서 사회주의 산업국가로 전환하면서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한 운동이 천리마운동이며, 주체 확립과 혁명적 군중노선에 입각한 운동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이라고 한다.[22] 또한 중국의 군중노선을 북한의 군중노선의 원형으로 보고 유사점과 상이점을 고찰하거나, 북한의 군중노선이 소련보다 중국의 군중노선과 유사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천리마운동이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으로의 권력의 집중을 가져온 반면에 대약진운동은 인민공사화운동으로 진행하면서 권력의 지방으로의 분산을 가져온 차이를 강조하는 등의 비교연구들이 있다.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대체로 북한에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에는 1980년대의 3대혁명소조운동 및 속도창조운동에 대한 연구,[23] 1970년대 전통적 사회주의 발전전략과 발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 대한 연구,[24] 김정은 시대의 군중노선에 관한 연구[25] 등이 있다.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군중노선이 생산현장에서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이라는 대중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 1980년대를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목표로 3대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대중운동의 일상화가 진행된 시기라고 보거나,[26] 1960년대에 표출되어 1970년대에 본격화된 북한의 경제침체라는 발전위기를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군중노선에 의한 3대혁명 소조운동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라거나,[27] 제7차 당 대회에서 제

---

22) 김경욱, "북한 교육교양의 원형에 관한 연구: 천리마시대(1956~1972)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2017, 초록 내용으로 정리.
23) 김귀옥, "1980년대 북한 사회의 발전과 좌절의 기로," 『현대북한연구』, 제6권 1호(2004), pp. 87-121.
24) 장인숙, "1970년대 북한의 발전위기와 대중운동노선의 재정립," 『현대북한연구』, 제15권 1호(2011). pp. 247-277; 장인숙, "1970년대 북한의 추격발전체제와 대중운동노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2010).
25) 문장순, "김정은 시대의 군중노선," 『대한정치학회보』, 제26집 제4호(2018), pp. 1-19.
26) 김귀옥, "1980년대 북한 사회의 발전과 좌절의 기로," pp. 92-106.

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경쟁운동으로 만리마운동을 추진한다거나[28] 하는 등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에서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의 결합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에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 천리마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과 군중노선에 의한 경제관리체계로 대안의 사업체계를 분리하거나,[29]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정치와 속도의 우위론으로 경제적 위기로부터 출발하였지만 정치적 요인과 속도를 우위에 두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거나,[30] 1970년대의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라는 대중운동을 통하여 권력승계,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체제유지, 세대교체에 기여한다거나,[31] 1950년대 중반 북한정치권력 내부의 분열과 갈등, 사회주의 대국들의 간섭과 압력, 남한과의 대결 속에 경제 건설에서 성과를 거둔 천리마운동의 신화가 1990년대 후반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제2의 천리마 대진군으로 재현되고 제7차 당 대회 이후에는 만리마속도 창조운동으로 다시 재현되는 재현의 정치[32]라고 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의 결합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정권의 권력을 강화하는 기능과 경제적 위기 해소를 위한 기능의 결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연구의 주안점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들로서, 강성윤은 1970년대 군중노선을 정치사상운동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후계자인 당 중앙이 주도하는 청년인텔

---

27) 장인숙, "1970년대 북한의 발전위기와 대중운동노선의 재정립," pp. 257-261.
28) 문장순, "김정은 시대의 군중노선," pp. 13-15.
29) 김근식,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30) 정영철, "1970년대 대중운동과 북한 사회: 돌파형 대중운동에서 일상형 대중운동으로," pp. 123-126.
31) 탁용달, "대중운동을 통한 김정일 리더십 강화," p. 187.
32) 김진환, "천리마운동: 건설의 신화와 재현의 정치," p. 31.

리와 대학생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인 3대혁명 소조운동과 천리마운동을 대체하고 있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혁명의 장기화에 따라 수령론과 후계자론을 매개로 후계체제 구축과 세대교체 준비라는 정치적 기능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류길재는 천리마운동이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총노선으로 규정되었다가 1992년 개정 헌법에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교체됨으로써 대중운동의 대표적 지위를 상실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정치와 관련성 속에서 경제적 사회적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면서 소련과 중국의 대중운동과 북한의 대중운동을 비교하고 있다. 북한의 군중노선은 사회주의 건설의 외연적 팽창기에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산업구조가 심화되면서 권력 강화와 주체사상이라는 정치사상운동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류길재는 군중노선과 대중운동을 구별하여 군중노선에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3대혁명 소조운동을 포함시키고, 대중운동에는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 청산리방법,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만우는 북한의 군중노선이 정치사상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전체의 구조 변동을 초래하는 문화혁명의 성격을 가진다고 지적하고, 영도방법이라는 대중동원체계로 정치권력에 의한 지배와 변형을 통한 정치사회화를 다루고 있다.

김진환은 1950년대 중·후반의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이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문화의 집단주의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지배집단의 문화가 피지배집단에서 내면화하는 정치경제구조를 분석틀로 사용하고 있다. 건국사상 총동원운동, 농업의 집단화와 당 권력의 독점화,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해 집단주의 생활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가져온다는 군중노선의 문화적 측면을 조망하고 있다.

김경욱은 혁명적 군중노선에 의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이 군중을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개조하면서 생산력도 발전시키기 위한 군중운동이며, 천리마운동의 시기를 제1기는 1960년 8월 제1차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까지, 제2

기는 제2차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까지, 제3기는 3대혁명 소조운동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대체되기까지로 구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 사회주의교육의 특징으로 주체 확립과 혁명적 군중노선에 의한 천리마작업반운동과 청산리방법의 직접적 영향, 계급투쟁보다 계급교양 중시, 사상혁명 선도와 3대혁명을 통한 적대계급 이외의 군중의 공산주의적 새인간 양성, 천리마 기수의 금욕적 군인형 인간의 모범 창조와 일반화, 비판과 자아비판의 자체수양 방법 등을 들고 있다.

김경욱은 북한 교육교양의 모순과 한계에는 집단주의사회의 핵심형성의 한계와 모순(개인영웅주의, 핵심일꾼, 열성자와 평균주의, 대중), '수령 · 당 · 인민' 일체화 공식에 내재된 모순과 한계, 수령의 교시와 지도의 문제(해석의 문제), 긍정적 감화교양의 문제(지도자의 직접 호소와 자발적 호응, 간부의 자력갱생과 이신작칙), 이론과 실천의 괴리(경제 · 국방 병진노선, 중공업 우선 경공업 · 농업 동시발전, 사상혁명 우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동시추구, 속도와 균형의 동시추구, 당 · 지배인 · 기사장 · 직맹에 의한 집체적 운영의 당위원회, 민주적 독재, '수령 · 당 · 인민' 의 일체화), 자각의 교육교양방법의 한계와 모순(자각성, 적극성, 창발성, 자발성과 자동성), 자체수양의 한계와 모순 등이 있다고 한다.

정세현은 북한과 중국의 군중노선을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과 대약진운동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농업사회인 아시아공산주의의 전략전술로서 기본적으로 중국의 군중노선이 북한의 군중노선의 원형이라는 입장에서 유사점과 상이점을 고찰하고 있다. 유사점으로 급속한 근대화의 추진력과 정치자극적 노력동원으로서 기능한 점이고, 상이점은 중국은 아래로부터의 군중노선인데 반하여 북한은 위로부터의 군중노선이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군중노선이 군중의 자발성과 참여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면, 북한의 군중노선은 군중의 추종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권장악방법, 최고권력자의 당내 지위, 관료주의적 잔재의 강도, 지역의 광협도 등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33)]

박동운은 북한의 군중노선을 중·소의 군중노선과 비교하면서 군중노선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역사적 유물론에서 '역사에서의 인민대중의 역할'에 관한 이론에서 연유되었으나, 나라마다 혁명의 실천 활동에 창조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특수성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군중노선은 소련의 군중노선보다는 중국의 군중노선과 유사점이 많으며, 당과 군중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의 중국의 군중노선을 북한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강삼원은 중국과 북한의 군중노선을 비교하면서 중국의 대약진운동과 북한의 천리마운동이 급속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과 증산을 통한 공업화와 중공업 우선 발전, 공산주의적 인간 개조라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으나, 중국은 밑으로부터의 군중노선을 적용하고 북한은 위로부터의 군중노선을 적용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들로서 김귀옥은 1980년 제6차 당 대회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완전 승리한 사회주의'라는 목표가 모기장이론에 의한 제한된 개혁·개방의 실패로 자립경제노선의 강화로 이어지면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일상화를 가져온다고 한다.

장인숙은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령제와 후계체제 등 정치사상적 위주로 분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경제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현실사회주의 체제의 발전위기를 추격발전전략으로 돌파하려는 것이 천리마운동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라고 한다.

문장순은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천리마작업반운동, 대안의 사업체계, 3대혁명 소조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제2의 천리마작업반운동, 만리마운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정은 시대 군중노선인 만리마운동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을 수행하기 위한 생산경쟁운동으로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대두된 것이라는 점에서 천리마운동과 동일하다고 한다.

---

33) 정세현, "북한과 중공의 군중노선 비교연구: 천리마운동과 대약진운동을 중심으로," 『자유아카데미연구논총』, 제1집(1977), pp. 113-134.

마지막으로 정치와 경제의 결합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로서, 김근식은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의 성립배경을 국제적 역사적 연원과 경제 및 정치사회적 상황으로 정리하고, 이론적 측면에서 혁명적 군중노선은 당의 영도원칙 하에 사업방법으로 상부의 하부 지원, 실태 파악에 따른 대책 수립, 정치사업 선행, 중심고리 집중, 현지지도에 의한 모범 창조와 일반화, 구태 탈피와 창조적 혁신, 대담하고 통 큰 사업추진 등을 들고, 청산리방법을 이러한 군중노선의 전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혁명적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 천리마운동과 3대혁명 소조운동이 있고 혁명적 군중노선에 의한 경제관리체계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관리체계를 들고 있다. 혁명적 군중노선은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유일지도체계의 확립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영철은 1970년대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위로부터의 지도에 의한 일상형 대중운동으로 규정하고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전개를 후계체제 구축과정으로 보고 있다. 북한 군중노선의 특징은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이 결합된 혁명적 군중노선이며, 당의 지도 아래 핵심군중과 기본군중의 모범 창조와 모든 군중으로의 일반화의 방식으로 전개되며 정치와 속도 우위론에 입각하고 있다고 한다. 군중노선의 전개과정은 핵심·모범·속도를 축으로 교양, 중심고리, 정치우선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중국의 정치 우위형이나 소련의 경제 우위형과는 다른 정치와 경제를 결합한 절충형이라고 한다.

탁용달은 북한의 1970년대 대중노선이 생산경쟁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과 정치사상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대약진운동과 달리 생산경쟁운동과 정치사상운동이 병행하는 가운데 현실에서의 대중운동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고 한다. 197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후계자가 공식화되면서 70일 전투, 3대혁명 소조운동은 경제난의 돌파를 통한 후계체제 구축에, 속도전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당적 운동을 통한 수령체계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1970년대 북한의 군중

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권력승계, 주체 이데올로기의 확산, 세대교체 등을 통해 후계자의 리더십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환은 북한이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경제적 위기 속에서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제시되고 대중동원을 통한 급속한 경제 건설, 정치적 자주 확보, 집단주의적 인간 창출을 통해 만들어진 건설의 신화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제2의 천리마운동, 만리마운동에 의한 재현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특정 시기의 군중노선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과 군중노선에 의한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을 구분하지 않는 연구들이 다수이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과 군중노선에 의한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을 구분하는 경우에도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선행연구들은 북한의 군중노선이 생산경쟁운동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데는 일치하고 있으나, 정치사상운동에 대해서는 그 성격이나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편차가 크다. 또한 생산경쟁운동과 정치사상운동의 결합으로 보는 경우에도 어느 한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하거나 동시에 다루는 경우에도 상호관계의 변화와 지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군중노선을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과 군중노선에 의한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특정 시기나 특정 부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천리마운동이 시작한 때로부터 천리마작업반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 제2의 천리마운동, 그리고 만리마운동까지 시계열적으로 전체를 다룬다. 북한의 군중노선의 특징인 생산경쟁운동과 정치사상운동의 결합에 의한 대중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과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구분하고, 시기와 국면에 따라 변화하면서도 지속되는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다시 강조하여 말하자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을 한 축에 두고,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다른 축에 두면서 추진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의 시기와 범위

군중노선에 대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군중노선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었던 천리마운동에서부터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로 한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경우, 1956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천리마운동은 1959년 3월 강선제강소 작업반운동으로 시작된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확산되어 전개되다가 3대혁명 소조운동이 시작되는 1972년에 일단락되었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은 이후에도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 제2의 천리마운동, 만리마운동의 방식으로 시기와 국면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개되었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김일성 정권에서는 1973년 2월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된 이후 1975년 11월 시작되어 1994년까지 전개되었다. 김정일 정권에서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1994년부터 고난의 행군과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을 거쳐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 말까지 진행되었다. 김정은 정권에서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2012년부터 '경제·핵 병진노선'과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논문의 내용적 범위는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 제2의 천리마운동, 만리마운동과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한정한다.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와 관련하여 군중노선을 넓은 의미에서 접근하여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과 군중노선에 의한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으로 구분한

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는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 제2의 천리마운동, 만리마운동이 있고, 군중노선에 의한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에는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3대혁명 소조운동, 7.1경제관리 개선조치, 6.28방침 · 5.30조치 등 새로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1956), 천리마작업반운동(1959),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1982),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1975), 제2의 천리마운동(1998), 만리마운동(2016)이 나타나게 된 배경, 전개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작업이 주가 된다.

이 연구는 군중노선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인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1960), 대안의 사업체계(1961)[34]와 3대혁명 소조운동(1973), 7.1경제관리개선조치(2002), 6.28방침(2012)과 5.30담화(2014) 등의 새로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경제관리에 군중노선을 적용한 것으로 대중을 동원하는 생산경쟁운동이나 정치사상운동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의 논의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다만, 3대혁명 소조운동의 경우에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관련 부분에서의 논의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군중노선을 대중운동과 구별하기도 한다. 대중운동의 범주에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 증산경쟁운동,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포함시키고, 군중노선의 범주에는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3대혁명소조운동을 포함시키기도 한다.[35] 북한이 군중노선의 기원을 해방 이전까지 소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중노선이 포괄하는 범위는 넓다. 군

34)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란 한마디로 말하여 경제관리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로선을 구현한 사업체계입니다.(김일성저작집 17권, 267~268페지)" 라고 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460.

35) 류길재,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경제건설:「스타하노프운동」및「대약진운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pp. 57-58.

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건국사상 총동원운동, 공칭능력 돌파운동[36], 공작기계 새끼치기운동[37], 공장이 공장을 새끼치는 운동, 70일 전투·100일 전투·200일 전투, 8월3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 26호선반을 따라 배우는 모범기대 창조운동, 지방예산제 모범군칭호 쟁취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여기에서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 중에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 제2의 천리마운동, 만리마운동과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은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과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추진배경과 전개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헌연구와 내용분석이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변화하면서 지속되는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전환되는 이유를 밝히고 변화하는 부분과 지속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한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변화가 생산경쟁운동과 정치사상운동의 결합이라는 특질을 유지하면서도 시기와 국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 사이의 차이점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변화와 지속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군중노선에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에서 정치사상

36) 북한은 5개년계획(1957~1961)에서 1957년부터 생산설비의 공칭능력을 최대 10% 초과달성하기 위해 '공칭능력(생산수단·기계설비의 최대산출능력) 돌파운동' 을 벌이고 있다. 강진웅, "국가형성기 북한의 주체 노선과 노동통제 전략의 변화," p. 131.

37) 만성적인 설비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대중의 창발성과 혁신적 사상의 모범으로 1959년부터 '공작기계 새끼치기운동' 이 전개되고 대안전기공장에서는 113대의 공작기계가 새끼를 쳐서 활용된다. 강진웅, "국가형성기 북한의 주체 노선과 노동통제 전략의 변화," p. 131.

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이의 원인을 찾고 가장 큰 차이점을 군중노선의 내용이 변화하게 된 원인의 하나로 설명한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기별로 전개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비교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이 논문은 보완적인 연구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접을 활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 참여하였거나 알고 있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방식으로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내용분석에 부분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3. 연구자료

연구 자료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제기하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당대회와 당 대표자회의의 문건과 노동신문 사설과 논설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38]

당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집행하는 최고인민회의와 내각의 예산결산보고와 실적과업보고 및 토론 등의 회의 자료와 노동신문 보도 등을 통해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내용과 평가에 대해 분석한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배경, 전개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와 경제연구 등의 논문 자료, 노동신문의 정론과 사설 및 논설,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등의 보도 자료도 분석에 활용한다.

제1·2차 전국 천리마작업반 선구자대회, '80년대 속도' 창조를 위한 천리마운동 선구자대회,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선구자대회, 만리마 선구자대회, 제

38) 북한의 경제통계는 1960년대 초까지는 어느 정도 발표되었으나 1960년대 중반쯤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1970년대부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단편적으로 공개된 통계도 기준년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준년도가 있더라고 그 기준년도의 수치는 발표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신뢰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한다.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pp. 7-8.

1·2·3·4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등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 외에도 당과 국가기관, 직업동맹 등 사회단체의 문건과 노동당 규약과 헌법, 법령과 결정, 신년사와 공동사설, 노동신문 보도 등의 자료도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과 관련한 남한과 해외의 연구 자료도 분석에 활용한다.

제4절 분석틀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전형인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원형은 1930년대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진행하면서 집단주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동시에 점차 정치사상운동이 강조되면서 사회 전 부문으로 확산되었다.[39]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라는 점에서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과 유사하며 정치사상운동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약진운동과도 유사하다.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 및 중국의 대약진운동과의 차이는 스타하노프운동과 대약진운동이 일시적으로 진행되다가 사라졌다면,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중노선은 계급노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노동자와 농민의 기본계층을 중심으로 당의 지도에 의해 군중들이 생산과 혁명에서 열의와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군은 아니지만 사상적으로 복잡한 군중을 당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교양함으로써 혁명과 생산에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당의 전략적 노선을 의미한다.

군중노선은 군중들을 당의 지도를 통해 생산과 혁명에 동원하는데 있어 강제의 방법이 아닌 교육과 설득과 지도의 방법으로 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군중을 동원하는데 있어 경제적 유인과 자극에 더해서 정치적 유인과 자극을 주어서 자발적으로 군중들이 혁명과 생산에 나서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물론 자발적으로 생산과 혁명에 동참하지 않는 군중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39) 이복수, “북한 천리마운동의 사회학적 고찰,” 『아세아연구』, 제20권 제2호(1977), pp. 171-200.

뒤따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다만 자발적으로 생산과 혁명에 동참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졌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압력과 제재가 따른다는 것은 자명하였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이 생산경쟁운동이자 정치사상운동의 결합이라는 것은 물질적 보상과 정치적 보상이 군중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는 원래 물질적 자극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북한은 이 문제를 좌우경적 편향을 극복하자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40]

북한에서 군중노선의 진정한 문제의식은 사회의 구성이 복잡하였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신생 후진국으로서 노동자 계급에 의한 혁명이 불완전한 가운데 생산력의 증대를 통해 산업화를 추격발전전략으로 단기간에 달성해야 하는데 현실은 이를 뒷받침할 자본과 기술과 역량이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계급의식이 투철한 노동자와 농민과 근로인텔리는 기본군중으로 모든 면에서 모범으로 보이고, 이를 군중들에게 일반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군중을 노동자 계급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았던 것이다. 군중노선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은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단순히 생산경쟁운동으로 그칠 수 없고 정치사상운동과 결합하여 군중들의 계급의식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해야 하였던 이유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시기와 국면에 따라 생산경쟁운동과 정치사상운동의 결합에 대한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

---

40) 백범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의 옳은 결합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 『근로자』, 제9호(1980). p. 24. “만일 당이 계급로선만을 일면적으로 절대화하고 군중로선을 홀시하거나 위반한다면 좌경적편향을 범하게 되며 반면에 군중로선을 관철한다고 하여 계급로선을 저버린다면 우경적편향을 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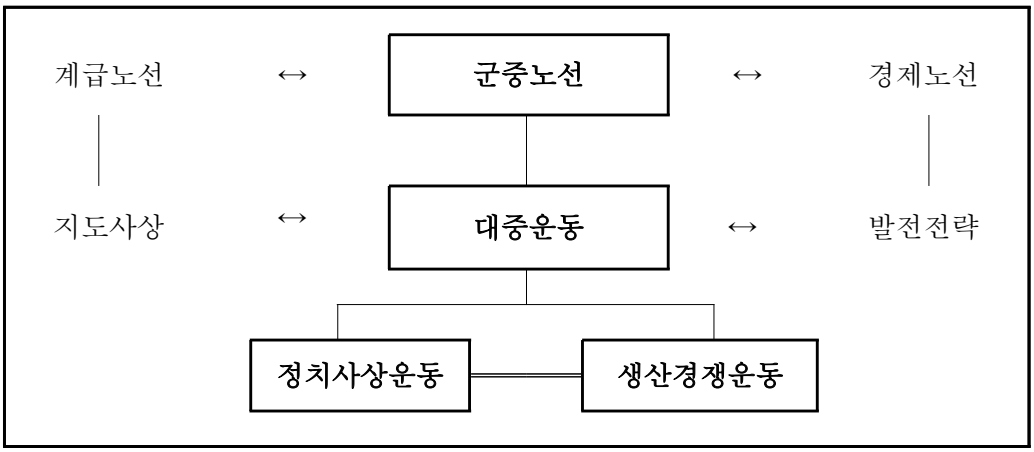
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이행되어왔던 것이다. 북한 정권이 정치와 경제의 어느 쪽에 중점을 두었는가에 따라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성격도 생산경쟁운동과 정치사상운동의 어느 한 쪽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서 생산경쟁운동과 정치사상운동의 결합에서 상대적인 강조점이 달라지는데 따라,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 제2의 천리마운동 및 만리마운동과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1-1】은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계급노선의 지도사상과 경제노선의 발전전략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이라는 특질을 유지하면서도 시기와 국면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도식화한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특질인 생산경쟁운동과 정치사상운동의 결합에서 어느 쪽에 상대적인 강조점이 두어지는지에 따라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과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분류하고 비교하는 것을 분석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군중노선은 항상 계급노선과 결합되어 있으며 경제노선을 배경으로 하여 추진되어 왔으며,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계급노선의 지도사상의 지도하에 발전전략에 따라 전개되었다. 계급노선의 지도사상이 강화되거나 변화하는 시기에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에 보다 중점이 두어졌고, 경제노선의 발전전략에 따라 경제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에 중점이 두어졌다. 특정한 시기나 국면을 놓고 보면 이러한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당한 기간의 흐름에서 살펴보면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시기에도 국면에 따라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거나 경제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림 1-1】 논문의 분석틀



이하에서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들이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에서 상대적인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과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배경과 전개과정 및 결과를 살펴본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서 생산경쟁운동의 결과는 경제계획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가지고 상대적인 비교를 해 보도록 하고, 정치사상운동의 결과는 천리마 칭호 수여단위의 숫자의 변동을 가지고 상대적인 비교를 해 보도록 한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에서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아무래도 강조점이 두어지는 쪽이 상대적으로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제Ⅱ장 북한 군중노선의 특징

사회주의 국가들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 대해 살펴보고 비교해 봄으로써 북한 군중노선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1848년 2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은 공산주의 혁명이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지 계급을 타도하는 형태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17년 10월에 자본주의 후진국인 러시아제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그런데 혁명 주도 세력들은 전위당과 노동자 계급만으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민과 소상공인 등 군중을 혁명대열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군중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완수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려는 것이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기본적인 동인이었다.

군중노선은 공산주의에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으로 노동자 계급이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현실 사회주의에서 광범위한 군중을 동원하기 위한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된 것이었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지원과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시작하였고, 중국의 지원과 영향도 받았다. 북한도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고, 특히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전후 복구를 위한 3개년계획(1954~1956)이 마무리되고 사회주의 기초건설이 시작되는 시기에 비로소 북한이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과 중국의 대약진운동을 북한의 천리마운동과 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북한 군중노선의 특징을 도출해 본다.

제1절 군중노선의 함의

사회주의 국가의 군중노선은 계급의식이 충분하지 못한 농민과 소상공인 등의 군중[1]을 공산주의형의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하여 노동자 계급과 더불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중국 및 북한에서는 자본가 계급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노동자 계급도 상대적으로 미발달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해 나가려면 노동자 계급 이외에도 지식인과 농민, 소상공인 등 모든 군중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교육을 통해 혁명적 열의에 충만한 새로운 노동자 계급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군중노선[2]은 계급노선에 의해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혁명적 순수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좌경적 편향으로 다수의 군중을 포섭하지도 못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수의 군중을 혁명과 건설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군중을 교육하여 계급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노동계급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중의 힘에 의지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

1) 군중, 공중, 대중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정리하면, 군중(crowd)은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곧 흩어지는 많은 사람들로 익명성, 일시성, 무책임성, 선동가능성 등을 속성으로 하고, 공중(the public)은 공간적으로 산재해 있으나 공통적 관심으로 결합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불특정 다수를 말하며, 대중(mass)는 군중이나 공중과 구별되는 현대사회의 거대한 비조직 집단으로 이질적이고 산재해 있으나 사상, 행동, 취미 면에서 등질화된 다수를 말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말하는 군중이란 노동하는 생산적인 다수 또는 변혁과 혁명의 주체 등의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중에 해당한다. 박동운, "중·소와 비교해본 북한의 군중노선," 『북한학보』, 제2집(1978), pp. 12-13.

2) 사적 유물론에서 "사람들의 역사적 활동을 궁극적으로 규정하는 기초는 물질적 생활의 생산의 제 조건이며, 물질적 생산의 주요한 역량이며 추진자로 되는 것은 노동자 대중" 이라는 이론적 근거로부터 레닌은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은 광범한 대중" 이라고 하였고, 스탈린은 "볼세비키가 광범한 대중과 결합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불패" 라고 역설하였다. 소련의 대중(군중)노선은 "대중으로부터 배우고 대중에 봉사하며 대중의 이해관계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 대중의 비판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인다." 는 것이 요체이다. 박동운, "중·소와 비교해본 북한의 군중노선," pp. 5-6.

군중노선은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론과 산업화전략, 즉 추격발전전략으로서의 사회주의적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전략에 따라, 세계혁명을 추진하기 이전에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먼저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 있다. 일국 사회주의론은 개별적인 국가의 현실에 맞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계급적 입장에 서지만 군중을 포섭하여 현실적 실용적 접근으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노선이었다. 노동자 계급으로의 분화와 계급의식의 충분한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을 인정하고 군중의 계급의식을 고양시키는 노력과 함께 생산 현장에서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병행해 나가려는 것이었다.

군중노선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처한 현실과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별 사회주의 국가의 상황에 맞게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군중노선은 군중을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동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서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독자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북한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이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지도사상으로 부상하는 시기와도 일치하고 있다. 북한에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시기와 국면에 따라 강조점과 비중이 달라지면서도 지속되어왔다는 것은 현재까지도 군중노선의 효용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절 사회주의 국가의 군중노선

사회주의 국가의 군중노선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지만,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과 중국의 대약진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은 스탈린 정권 안정기에 경제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된 노동자 간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었으나, 짧은 기간에 종료되고 그 영향력이 지속적이지 못하였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었다.

스타하노프운동은 노동자 개인의 혁신과 노력에 의해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었다.[3] 스타하노프운동은 1927년부터 소련의 돈바스지방의 한 탄광에서 일하던 스타하노프(A. G. Stahanov)라는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할당량을 16배나 초과달성한데서 비롯되었다.[4] 소련은 스타하노프의 증산 사례를 스타하노프운동으로 명명하고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 활성화하였는데, 생산할당량 초과달성에 대해 특별보상금을 지불하여 노동자들의 생산기준량을 상승시키도록 한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었다.[5] 스타하노프운동은 평범한 군중의 한 사

---

3) 이복수는 〈스타하노프운동〉이란 노동자가 합리적인 혁신에 의해서건 전적인 노력에 의해서건 자기의 작업할당량을 초과 완수하도록 자극을 줌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상승시키려는 운동이다." 라고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복수, "북한 천리마운동의 사회학적 고찰," 『아세아연구』, 제20권 제2호 (1977), pp. 173-174.

4) 이복수, "북한 천리마운동의 사회학적 고찰," p. 174.

5) 류길재,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경제건설:「스타하노프운동」및「대약진운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체제』(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3), p. 53.

람인 스타하노프라는 광부를 새로운 영웅으로 만들어 사회주의 인간형의 본보기로 등장시킴으로써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스타하노프운동이 시작되는 시기에 소련은 제2차 5개년계획(1933-1937)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이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스타하노프는 1935년 8월에 6시간 동안 102톤의 석탄을 채굴하여 작업 기준량을 무려 6배를 초과 달성하였고, 9월 4일에는 칼마르크스 광산의 테레힌이 119톤의 석탄을, 9월 5일에는 콘체달로프가 125톤의 석탄을 캐내 기록을 경신하였다.[6] 돈바스 지역에서 시작된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은 1935년 10월에는 쿠즈바스, 바쿠, 스베르틀로프스크와 카프카즈 지역의 공장들과 광산들로 확산되었고, 10월 17일에는 전 연방 노조 중앙평의회에서 스타하노프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11월 중순에는 당 정치국 전원과 중공업, 경공업, 식품 및 목재업 그리고 운송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한 '제1차 전 연방 스타하노프 남성 및 여성 운동원 대회'가 개최됨으로써 스타하노프운동은 본격화되었다.[7]

스타하노프운동은 군중노선에 의한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으로 개인적 경쟁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공업부문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운동이었던 것이 특징이다.

스타하노프운동은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으로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영웅과 인간형을 창출함으로써 체제와 권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노동자들의 생산기준량의 향상으로 인한 반발도 불러왔다.[8] 스타하노프운동이 소수의 영웅적 노동자들의 생산기록 갱신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로 생산현장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과도한 생산 목표

6) 조준배, "생산과 복지의 갈림길에서: 스타하노프 운동과 소련 노동조합, 1935-36," 『서양사론』, 제100호(2009), pp. 225-228.
7) 조준배, "생산과 복지의 갈림길에서: 스타하노프 운동과 소련 노동조합, 1935-36," pp. 226-228.
8) 박원용, " '스타하노프운동가' 만들기: 국가권력과 민중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15권 제1호(2005), pp. 315-338.

설정은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이 어려운 부문에서는 긴장을 조성하는 등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였다.[9] 스타하노프운동은 작업 기준량을 초과달성하여 더 많은 임금과 물질적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스타하노프운동원들과 그렇지 못한 비운동원들 사이의 알력, 생산능력에 알맞은 목표량 설정을 고집하는 전문가들 및 경영자들과 이에 반대하는 열성적인 스타하노프운동원들 사이의 마찰, 그리고 스타하노프운동원들의 작업장 내 주도권 장악을 적극 후원하는 소비에트 당국의 지원 등[10]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났다. 스타하노프운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열정은 빠르게 식어갔고, 돈바스지역의 1936년 1/4분기 석탄생산량은 계획목표보다 80여만 톤이나 미달되었다, 스타하노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련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36년 12월말에는 공장 조직들이 스타하노프운동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스타하노프운동의 실패는 공공연한 것이 되었다.[11]

스타하노프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자 개인들 간의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이었다는 점이다. 노동자 개인이 혁신에 의해서건 노력에 의해서건 생산성을 향상시킨데 대해 물질적 보상을 받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스타하노프운동의 두 번째 특징은 소련 당국이 스타하노프운동을 제2차 5개년계획(1933-1937)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추가 투자의 부담이 없이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스타하노프운동을 활성화하여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을 증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스타하노프운동의 세 번째 특징은 스타하노프운동에 열성적인 노동자 이외의 노동자들과 관리자들의 방해와 반대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에 활성화되었다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물론 스타하노프운동 이후에도 유사한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이 등장하였으나 지속성을 가지지는 못하였다. 스타하노프운동의 네 번째 특징은

9) 류길재,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경제건설:「스타하노프운동」및「대약진운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p. 54.
10) 조준배, “생산과 복지의 갈림길에서: 스타하노프 운동과 소련 노동조합, 1935-36,” p. 228.
11) 조준배, “생산과 복지의 갈림길에서: 스타하노프 운동과 소련 노동조합, 1935-36,” pp. 245-248.

스탈린 정권이 안정적인 시기에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노동자 개인 간의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으로서의 효용성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 증대에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스타하노프운동도 경제계획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함으로써 정치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창출하여 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스타하노프운동의 열성자와 반대자 간의 투쟁 과정에서 스타하노프운동 열성자들은 반대자들이 숙청된 자리를 차지하면서 공장과 생산 현장의 주요 부문을 대체하는 등 사회적 변동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된 현상은 아니었으며 부차적인 것이었다.

2. 중국의 대약진운동

중국의 대약진운동[12]은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정력을 총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비약적 성과를 달성하려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군중노선[13]에 의한 대

12) 대약진운동은 마오쩌뚱이 1958년 초에 개최된 최고국무회의에서 말한 정풍운동과 반우파투쟁이라는 정치운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정치사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최만원, “ ‘대약진’ 운동의 기원: 교육부문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0권 제1호(2005), pp. 193~213.

13) 중국 공산당의 군중노선은 1921년 창당 이후 10년 내전, 8년 항일전쟁, 3년 인민해방전쟁을 거쳐 1949년 집권하는 동안에 견지해온 노선이며, 1956년 9월 채택된 중국공산당 8전대회 장정(규약)은 “군중 속에서 나와 군중 속으로 들어간다”는 구호처럼 “당의 영도의 정확성 여부는 당이 군중의 경험과 의견을 파악하고, 분석과 총괄을 거쳐서 계통적으로 집중하여 당의 주장으로 만들고, 또 당이 군중 속에서 진행하는 선전과 조직공작을 통하여 군중 스스로의 주장과 행동이 되게 하며, 아울러 군중 속에서 행동하는 가운데 당의 주장을 검증·보완·수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동운, “중·소와 비교해본 북한의 군중노선,” pp. 19-20; 1945년 4월의 중국공산당 7전대회에 제출한 중공당헌개정안에 대한 보고에서 유소기는 군중노선의 정의를 “당의 군중노선은 우리 당의 근본적 정치노선이며 또한 우리 당의 근본적인 조직노선이다. 따라서 우리의 군중노선은 곧 계급노선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정세현, “북한과 중공의 군중노선 비교연구: 천리마운동과 대약진운동을 중심으로,” 『자유아카데미연구논총』, 제1집(1977), p. 118; 중국의 군중노선은 사상 검토, 비판과 자아비판, 의식화 등에 의한 소규모 학습반에서 사상혁명을 일으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군중노선의 뿌리는 중국 전통과 소련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 John A. Barlow, “The Mass Line Leadership and Thought Reform in China,” *American Psychologist,* Vol. 36, No. 3(March 1981), pp. 301-309.

중운동이었다.

중국의 대약진운동은 1950년 말에 3년여 간 진행된 신중국의 실제 현실에 부합하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었다. 1957년 11월 볼쉐비키혁명 40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마오쩌뚱은 15년 내에 철광석, 강철 등의 중요 중공업 제품 등 산업생산량에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후르시초프의 발언에 고무되어 중국도 같은 기간에 영국을 추월하겠다고 하면서 중공업 위주의 발전전략을 추진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대약진운동은 사회주의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경제건설만큼 중요한 과제가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14] 대약진운동은 노동력의 대량투입에 의한 생산력의 비약적 증대가 목표였으나, 대중의 주관적 능동성에 전면적으로 의존하는 대중노선이 강조되었다.[15] 대약진운동에 적용된 군중노선은 대중의 무한한 창조력과 공산주의에 대한 대중의 무진장한 열의를 신뢰하는 마오쩌뚱의 혁명적 대중주의에 비롯된 것이었다.[16]

대약진운동은 제2차 5개년계획(1958~1962)이 시작되는 1958년 '중국공산당 제8회 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유소기는 "당의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은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군중노선의 적용"[17]이라고 하였다. 유소기는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대약진을 위해서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 군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파하였다. 대약진운동은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 대중동원을 상징하는 하나의 정치적 구호이었지만 정책의 세밀한 청사진은 아니었다.[18]

---

14) 최만원, " '대약진' 운동의 기원: 교육부문을 중심으로," p. 194.
15) 심영수, "중국의 대약진운동이 실패한 원인: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순천향사회과학연구』, 제1권 제1호(1995), pp. 193-213. 괄호 안은 필자 부기.
16) 강삼원, "중공과 북한의 군중노선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3집(1985), pp. 99-106. 괄호 안은 필자 부기.
17) 정세현, "북한과 중공의 군중노선 비교연구: 천리마운동과 대약진운동을 중심으로," pp. 120-121.
18) 양호민, "북한에 대한 중공의 사상적·정치적 영향: 인민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건설까지," 『중앙대학교인문과학논문집』, 제19집(1974), p. 355. 각주 134의 내용 인용.

대약진운동은 1957년 반우파투쟁에서 군중노선에 따라 국가계획부문에 대한 공격과 산업부문의 기술자들에 대한 숙청이 있은 다음 해인 195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주요 산업부문에 농민지도자들이 배치됨으로써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현상은 나중에 문화혁명에서도 반복되었다.[19] 대약진운동은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둘러싼 당내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와 관료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반우파투쟁과 함께 전개되었고, 기본대중인 노동자와 농민을 동원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대중운동[20]으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었다. 이러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1960년대 후반의 문화혁명이라는 정치투쟁 형태로 나타난 군중노선[21]에 의한 대중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나 단절적인 것으로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대약진운동은 공산주의 가치와 마오쩌뚱의 혁명적 군중노선에 의거하여 추진되었기 때문에 능률과 물질적 자극을 도외시하고 현실 상황이나 객관적 인식이 결여되어 결국 실패로 끝났다. 대약진운동 이전의 제1차 5개년계획(1953~1957)은 소련을 모델로 군중노선보다는 전문가와 제도화, 그리고 관료를 활용하는 접근이었다. 사회주의 건설은 하부구조를 튼튼하게 구축하면 상부구조도 자연히 건실해진다는 전제하에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현실여건과 인간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안정적 그리고 점진적으로 발전을 추구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대약진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제1차 5개년계획(1953~1957)이 계급 불평등을 야기하고 군중노선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정치우선의 논리에 의거하여 인간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능동성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생산성을

---

19) Chih-yu Shih, "The Mass Line Approach to Democracy in China,"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3, No. 4(1997), p. 357.

20) 류길재,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경제건설:「스타하노프운동」및「대약진운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pp. 55-57.

21) 1978년 2월 7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된 헌법 제15조는 "국가기관은 인민군중과 긴밀한 연계를 항시 보유하고 인민군중에 의거하며 군중의 의견을 경청하고 군중의 고통에 관심을 돌리면서 인원을 정예, 간소화하고 절약을 장려하며 능률을 향상시켜 관료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군중노선에 입각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박동운, "중·소와 비교해본 북한의 군중노선," p. 12.

높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혁명에 의해 더 빨리 약진식의 발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약진운동은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 사회주의 혁명성의 지나친 강조와 과도한 평등주의, 반우경주의 투쟁 등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다.[22]

대약진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군중)으로부터 나와서 대중(군중)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군중노선의 원칙[23]에서 당과 군중의 연계를 강조하는데 있었다. 대약진운동은 단순한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이 아니라 군중의 요구를 반영하고 군중의 힘과 열의를 발휘하도록 하여 비약적으로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는 정치사상운동이 중요시되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었다는 것이다. 대약진운동의 두 번째 특징은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건설단계인 제2차 5개년 계획(1958~1962)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공업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량의 미숙련 노동력을 동원하였고 자본투자와 기술혁신보다는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노력을 강조하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약진운동의 세 번째 특징은 단기간인 3년여 동안에 추진되었다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다. 공업생산의 급속한 증대는 대중동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정치권력 강화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생산 증대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 대약진운동의 네

22) 초패 · 이창신, "중국의 대약진운동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집단사고(groupthink)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제3호(2013), pp. 212-213.

23) 마오쩌뚱은 군중노선에 대해 군중과 결합하려면 군중의 필요와 자발적 의사에 따를 필요가 있다. 군중이 아직 자각하지 못했을 적에 우리가 진격으로 나가면 그것은 모험주의이다. 추종주의도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군중의 각성 수준으로부터 뒤떨어지고 군중을 일보 전진시키도록 지도하는 원칙에 위배되며 태만병에 걸리기 때문이라고 하여 모험주의나 추종주의가 아닌 당의 영도 하에 군중노선에 따라 군중발동 공작을 동반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박동운, "중 · 소와 비교해본 북한의 군중노선," pp. 11-12. 마오쩌뚱은 "당의 모든 실제활동에 있어서 올바른 영도란 언제나 '군중으로부터' 그리고 '군중에게로' 라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대중의 의견(분산적이고 체계가 없는 의견)을 집결해서(연구를 거쳐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의견으로 만들어서) 다시 군중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선전 · 해설하여 군중의 의견을 만듦으로써 군중으로 하여금 그것을 견지하고 행동에 옮기게 하며 또한 군중의 행동에서 그런 의견의 옳고 그름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 다시 군중속에서 의견을 집결해 나와서 또다시 군중속으로 들어간다." 고 군중노선을 규정하였다. 정세현, "북한과 중공의 군중노선 비교연구: 천리마운동과 대약진운동을 중심으로," p. 118.

번째 특징은 마오쩌뚱 정권이 불안정한 가운데 경제 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권력투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대약진운동이 실패하면서 1960년대에 정치투쟁으로 전개된 문화혁명의 전조가 되었던 것이다. 대약진운동은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생산경쟁운동으로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은 필연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제3절 북한의 군중노선 :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

북한의 군중노선[24]은 처음부터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으로서의 특질을 지닌 대중운동[25]으로 출발하였으며, 이것이 북한 군중노선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다. 천리마운동은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출발하였으나, 정치사상운동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적 자극과 유인으로 군중[26]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자발적으로 발휘하도록 하여 생산을 증대하려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었다.

북한의 현실에서 혁명과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10% 정도인 100만 명의 당원만으로는 어렵고 노동자와 농민과 같은 기본군중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군중의 이익을 증대시켜야 했다. 그렇게 해야 군중도 당을 지지하게 되며, 정권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열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를 확립하는 것도 혁명과 건설을 북한 현실에 맞게 군중이

---

24) 군중노선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의 힘과 창조적 지혜를 적극 발동시켜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는 로동계급의 당활동의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라고 규정하면서 "군중로선의 기본요구는 첫째로, 인민대중을 끝없이 사랑하고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이며 둘째로,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혁명의 편에 전취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는 것이며 셋째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해결에서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중에게서 배우고 그들의 힘에 튼튼히 의거하며 그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14.

25) 대중운동은 "당의 일정한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 기세를 높이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집단적 투쟁과 집단적 혁신에로 대중을 추동하도록 벌리는 사회적 운동" 이라고 규정하고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여 집단적 혁신으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힘 있는 방법이다." 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6), p. 1283.

26) 군중에 대한 북한의 사전적 정의는 "극소수의 지주, 자본가를 비롯한 계급적 적대분자, 반동분자를 내놓은 절대다수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 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중의 사전적 정의는 "광범한 군중" 이라고 하여 군중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1』, p. 496, p. 1282.

주인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성공한 혁명과 건설이 조건과 역량이 다른 북한에는 맞지 않다는 입장에 서 있었다. 이에 따라 제3차 당 대회는 '중앙위원회 사업총결보고' 를 통해 대중정치사업을 당 사상사업에서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즉, "대중정치사업의 과업은 근로대중의 사회주의적 의식을 제고시키며 당과 인민 앞에 제기된 정치 경제적 제과업의 수행에 그들을 자각적으로 동원케 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27] 제3차 당 대회의 '중앙위원회 사업총결보고'는 1956년 1월 1일 현재 116만 4,945명의 당원과 5만 8,258개의 세포(분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28] 이는 1948년 3월 열린 제2차 당 대회보다 당원은 43만 9,183명, 세포(분세포)는 2만 5,496개가 증가한 수치였다. 당원들의 구성성분은 노동자 22.6%, 빈농 56.8%, 중농 3.7%, 사무원 13%, 기타 3.8%이였고, 제2차 당 대회보다 노동자 2.4%, 빈농 3.7% 증가한 수치로 노동자와 빈농이 전체당원의 79.4%에 달하였으며, 당원의 51.7%는 1953년 6월 전쟁 이후 가입한 당원이었다.[29]

북한은 전위당인 노동당을 주축으로 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핵심계층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북한 정권의 현실 인식이었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통해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군중을 조직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3차 당 대회는 "당과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부단히 강화"하도록 하였다. 대중과의 혈연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당원들이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군중과의 사업에서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중과의 사업이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30] 당 단체들은 경제사업과 정치사업을 항상 결부시키고 당 사업에

27)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의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로동신문』, 1956년 4월 24일.
28)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1집』, p. 340.
29)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1집』, p. 351.
30)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1집』, p. 353.

대한 평가는 경제계획 실행결과로 평가하고, 경제계획 실행결과에 대한 평가는 당의 조직정치사업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31] 경제사업과 정치사업은 동전의 양면으로 어느 한쪽이 잘 된다고 높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을 모두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치사업은 사회주의적 의식교양을 통해 군중의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여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였다.

군중노선과 관련한 제3차 당 대회에서 한 북한의 주장을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방대한 과업은 우리 인민의 고도의 적극성과 고상한 사회주의적 의식의 제고를 요구합니다. 위대한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는 상부로부터의 지령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의 대중의 창조적 로력과 열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중정치사업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교양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경제건설사업에서 사회주의적 적극성과 창발성을 다하여 참다운 사회주의 건설자답게 투쟁하게 하며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일체 낡은 사상 잔재와 모든 부정적 현상들을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32]

군중노선과 관련하여 제3차 당 대회는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노동당이 '조선근로대중의 이익의 대표자이며 옹호자'라고 하던 것을 '노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규정하였다.[33] 여기에 군중노선에서의 군중의 개념이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본다. 당의 핵심계층과 기본계층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확장함으로써 복잡계층[34]인 군중을 포섭하

31) 국토통일원,『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1집』, p. 360.
32) 국토통일원,『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1집』, pp. 361-362.
33) "조선 로동당 규약(4월 28일 회의에서 만장 일치로 채택됨)," 『로동신문』, 1956년 4월 29일.
34) 북한은 사회계층을 핵심계층·동요계층·복잡계층으로 구분하고 51개 분류로 나누었

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한 것이었다. 군중을 포섭하는 방법으로 당 규약은 당이 '당원과 근로대중을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도록 하였다.[35] 제3차 당 대회는 결정서에서 남로당 계열의 숙청을 언급하면서 당내에 종파는 없으나 잔재는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당의 힘의 원천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 조건의 하나는 당과 대중의 긴밀한 연계라고 하였다.[36] 즉,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전개하여 당과 대중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1950년대 후반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추진되는 시기였다. 천리마운동이 시작되었던 1956년은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1956)을 마무리하고 5개년계획(1957~1961)을 준비하는 시기였는데, 5개년계획(1957~1961)은 농업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여 사회주의적 공업화 기초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37]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은 1956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38] 천

으며, 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재조정하여 45개 분류로 재조정하였다고 한다. 복잡계층에는 지주·부농·예속자본가의 후손, 친일파·치안대 가입자와 그 가족, 종파분자, 군입대 기피자, 정치범 출소자, 월남자 가족 등이 있고, 근로인텔리는 동요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사경제활동에 의한 부의 축적으로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등에 의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분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홍양호, 『통일의 길: 한 통일관료의 통일여정』(서울: 통일신문사, 2018), p. 692.

35) "조선 로동당 규약(4월 28일 회의에서 만장 일치로 채택됨)," 『로동신문』, 1956년 4월 29일.

36)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보고에 대한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의 결정서," 『로동신문』, 1956년 4월 30일.

37)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은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 『로동신문』, 1967년 12월 12일. 북한은 "《우리 당은 사회주의적개조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와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5개년계획기간에 농업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사회주의건설분야에서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은 사회주의적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며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있다.》"고 한다.

38) 리성재,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은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회의," 『천리마』, 11·12호(1969), pp. 93-95; 천리마사, "《천리마》 학습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당의 총로선이다," 『천리마』, 5호(1969), p. 50. "(전략) 전후시기에 실현된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과 당과 인민이 오랜 기간의 어려운 투쟁을 통하여 쌓아올린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력량에 기초하여 일어났으며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

리마운동의 시원은 1953년 8월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중공업 우선 발전이라는 경제전략 기조[39]에 대한 이견으로 이미 싹트고 있었다. 이후 1956년 8월 전원회의를 계기로 '인민생활향상'에 중점을 두는 경공업 우선 발전전략과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이 충돌하면서 '8월 전원회의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40] '8월 전원회의사건'은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이 승리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시기에 개최된 1961년 9월의 제4차 당 대회는 사업총결보고에서 이 기간의 천리마운동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평가하였는데, 천리마운동이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전인민적 운동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천리마운동의 심화 발전된 형태로 경제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동력으로 근로자에 대한 대중적 경제관리방법이었으며, 모든 군중을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대중적 교양방법이었다.[41] 천리마운동이 사회주의 공업화 기초

월 전원회의를 계기로 발단하였다."; 박양업, "천리마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였는가," 『천리마』, 8·9호(1969), pp. 40-42. "(전략) 1956년 12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전 당과 인민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일대고조에로 끌어올리도록 하기 위하여《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시고 이의 관철에로 전당과 전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39) 북한은 "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에 대한 개념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경제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아가는 기본적이며 장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경제건설로선"이라고 규정하면서, "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은 경제건설의 기본적이며 전망적인 의의를 가지는 목표와 방향을 규정하는 로선이라는 기본특징이 있다. 전략적로선은 인민경제부문별 정책들과 당면과업수행을 위한 시책들에 대하여 규정적인 의의를 가지며 부문별 정책과 당면과업들에 구체화된다. 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견지하여야 할 로선과 경제건설의 일정한 시기나 단계에서 견지하여야 할 로선으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 실례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로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로선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공업화로선, 농업협동화로선 등은 일정한 력사적시기나 경제건설단계에 해당하는 로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평양: 평양출판사, 2003), p. 79.

40) 류길재,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경제건설:「스타하노프운동」및「대약진운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pp. 61-72.

41)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3집』, pp. 31-37.

를 다지기 위한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었다면,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지속하면서 정치사상운동을 강화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1958년 9월 전원회의에서 '8월 전원회의사건'의 잔재를 제거하기 위한 소극성과 보수주의, 신비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를 제거하기 위한 사상투쟁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시작되는 시기에 개최된 1958년 9월 전국 생산혁신자대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혁신운동을 강조하였고, 1958년 11월에 나온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는 사상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 대중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58년 10월과 1959년 2월 강선제강소 현지지도가 있은 후인 1959년 3월 강선제강소 진응원 작업반을 필두로 생산 현장에서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42]

북한의 군중노선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국가들인 소련과 중국의 군중노선을 비교하는 것은 필요하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중노선이 적용된 대표적인 대중운동인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과 중국의 대약진운동과 비교하여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비교해보면, 우선 시대적 상황으로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이 스탈린 정권의 안정된 권력 하에 공업화단계에서 제2차 5개년계획(1933~1937)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반하여, 중국의 대약진운동은 마오쩌뚱 정권의 유동적인 권력 하에 공업화 기초건설단계에서 제2차 5개년계획(1958~1962)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경쟁운동과 정치사상운동의 결합에서 정치사상운동을 강조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보다는 중국의 대약진운동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김일성 정권의 권력 기반이 유동적인 상황하에 사회주의 공업화 기초건설단계에서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을 달

42)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 문헌집』, pp. 19-20.

성하기 위해 생산경쟁운동과 정치사상운동의 결합에서 초기에는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었으나 점차 정치사상운동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이 공업부문에 적용된 노동자 중심의 개별적인 생산경쟁운동으로 전개되어 짧은 기간 동안 추진되다가 사라졌으며, 중국의 대약진운동은 사회 전 부문에 적용된 집단주의적 생산경쟁운동으로 문화혁명으로 발전하였지만 곧 사라지고 말았다.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사회의 전 부문에 적용된 집단주의적 생산경쟁운동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발전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은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초기에 높은 생산 증대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높은 작업기준량 설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로 노동의욕 고취보다는 저하를 가져와 실패하고 말았다. 중국의 대약진운동은 주로 농민들을 공업부문에 대량 투입함으로써 생산 증대를 도모하는 생산경쟁운동으로서의 성과는 낮았으나 노동자의 의지와 노력, 능동성을 강조하는 정치사상운동의 성과는 어느 정도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초기부터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전개하면서도 정치적 자극을 강조하고 공산주의적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기 위한 교육과 교양을 통해 생산 증대를 가져오는 집단주의적 생산경쟁운동을 전개한 것이 특징이다. 아래 【표 2-1】은 상기 논의를 정리하여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소련과 중국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과 비교한 것이다.

【표 2-1】 북한과 소련·중국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 비교

구분	**북한**	**소련**	**중국**
시기	제1차 5개년계획 (1957~1961)	제2차 5개년계획 (1933~1937)	제2차 5개년계획 (1958~1962)
정치	유동적	안정	유동적

경제	공업화 기초건설단계	공업화 단계	공업화 기초건설단계
대중 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	스타하노프운동	대약진운동
성격	생산경쟁운동과 정치사상운동의 결합	생산경쟁운동 중심	정치사상운동 중심
지속성	유	무	무
영향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발전	단절	문화혁명으로 발전
범위	사회 전 부문	공업 부문	사회 전 부문
결과	생산경쟁운동〉정치사상운동	생산경쟁운동	생산경쟁운동〈정치사상운동

제4절 소결

북한의 군중노선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으로서의 특질을 가지면서 초기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에서 점차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변화하면서도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왔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 중에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은 노동자 개인 중심의 생산경쟁운동으로 전개되었고, 생산 증대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노동자와 관리자들의 반대에 봉착하여 실패하였고 단명하였다. 중국의 대약진운동은 공업 생산 증대를 목표로 농촌 노동력의 대규모 동원에 의한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과 병행하여 노동자의 혁명적 열의를 강조하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1960년 후반의 문화혁명으로 발전하였으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과는 달리 집단적인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이었으며, 중국의 대약진운동과는 다르게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이라는 특질을 보이며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초기에는 사회주의 공업화 기초건설단계에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어 공업 생산 증대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고, 점차 정치사상운동을 강조하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거쳐 사회주의 공업화 단계에 들어선 1970년대 중반부터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추진되는 기간에도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속도전 방식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 제2의 천리마운동 및 만리마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이라는 특질은 지속되었으며, 강조점과 비중은 시기나 국면에 따라 달라져왔다.

제Ⅲ장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북한 대중운동

북한의 군중노선에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전후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위한 천리마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생산경쟁중심의 대중운동은 김일성 정권에서는 사회주의 기초건설단계와 사회주의 공업화 기초건설단계까지 진행된다. 경제노선과 발전전략은 '중공업 우선, 경공업 · 농업 동시발전전략'에서 국방공업 최우선 발전전략으로의 '경제 · 국방 병진노선'으로 변화하는 시기였다. 계급노선의 지도사상은 마르크스 · 레닌주의, 마르크스 · 레닌주의를 북한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 유일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으로 이행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김정일 정권에 들어와서는 제2의 천리마운동의 형태로 출현하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자연재해로 인한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경제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시기였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는 만리마운동으로 명명되는데, 권력승계를 압축적으로 완료하고 나서 36년 만에 개최되는 제7차 당 대회를 앞두고 경제 건설의 속도를 한층 더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시기에도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으로서의 특질은 지속되고 있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천리마운동보다는 정치사상운동이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는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었다.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경제적 자극과 함께 정치적 자극이 수반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성격은 경제 건설을 위한 대중동원이 필요한 시기나 국면에 따라 달라져왔다. 여기에서는 시기별로 북한정권에 따라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결과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주요 논점이다.

제1절 배경

북한은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본격화하는 시기에 경제발전전략을 놓고 권력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북한은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전략'이 1953년 8월에 나온 이후 추호의 동요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1956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천리마운동이 시작되고 나서도 경제노선의 발전전략이 확고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었다. '8월 전원회의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경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8월 전원회의사건'으로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전략'을 관철한 김일성 정권은 군중노선을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것은 천리마운동을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추진하는 가장 큰 기본적인 동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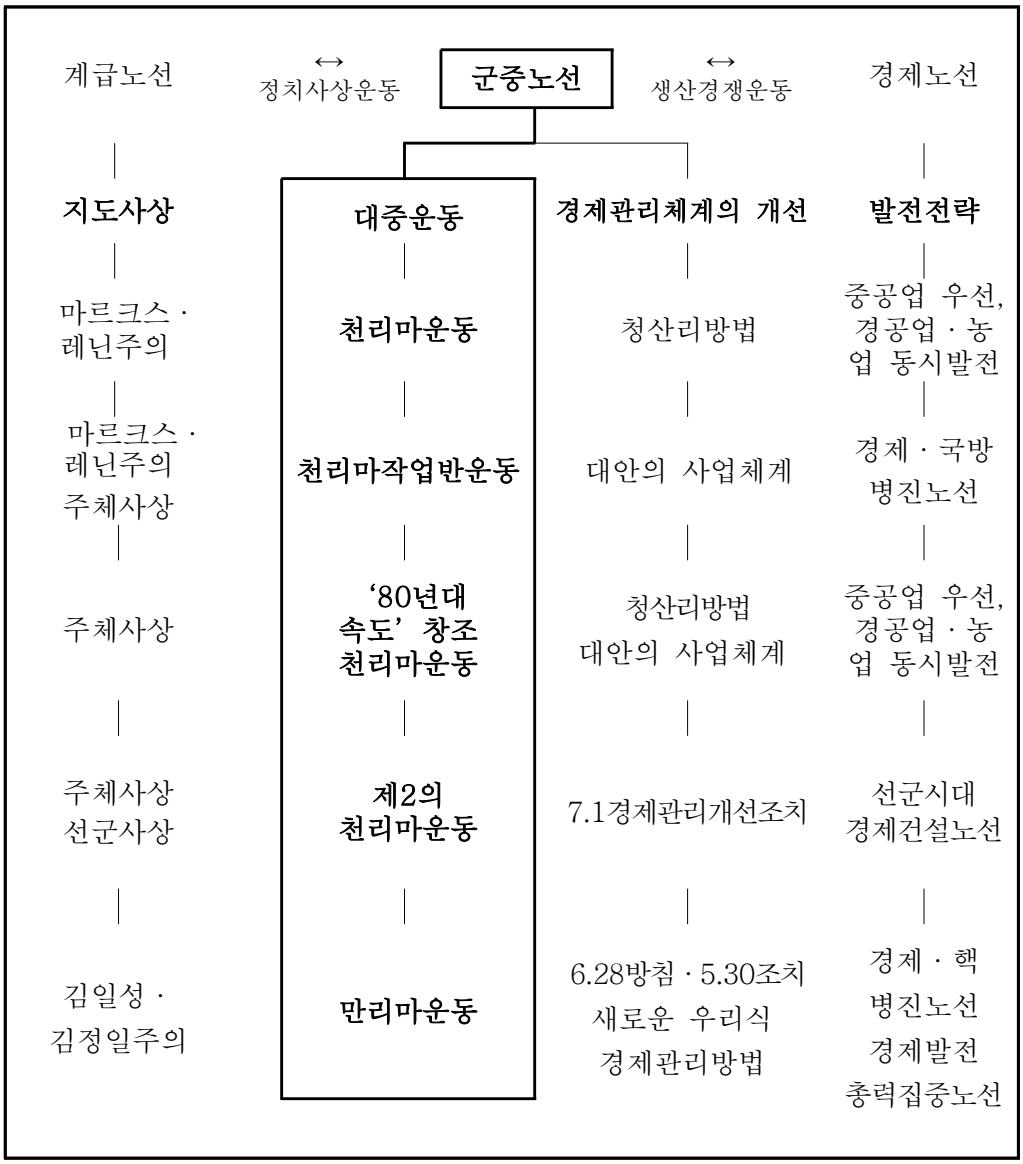
또한 전후 복구를 위한 3개년계획(1954~1956)을 완료하고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건설하기 위한 5개년계획(1957~1961)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외연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 '8월 전원회의사건'으로 경제노선 투쟁에서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전략'을 내세워 관철한 김일성 정권이 이를 경제현실에서 실천적인 투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이것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이었다.

한편으로는 '8월 전원회의사건'을 통해 상층부에서의 적대세력을 척결하고 나서 하층부에서의 종파투쟁의 잔재를 제거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전개하면서도 정치사상운동도 보다 강화하도록 한 것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이었다.

김일성 정권에서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일단락되고 나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한창 전개되고 있었던 시기에 '80년대 속도' 창

조 천리마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이유는 제6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10대 전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속도전 방식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림 3-1】 군중노선에서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과 지도사상 · 발전전략의 관계



제2의 천리마운동은 김정일 정권이 고난의 행군시기를 지나고 나서 강성대국건설을 내세우면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경제부문에서의 실적을 내기 위해 추진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권력승계에 따른 정치적 안정을 위해 제7차 당 대회를 개최하면서 경제적 실적을 거두기 위해 만리마운동을 추진하였다. 압축적으로 권력을 승계한 것처럼 경제발전도 압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천리마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내는 만리마를 내세운 것이었다.

위의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중노선에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계급노선의 지도사상과 경제노선의 발전전략의 상호관계 속에서 추진되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항상 계급노선의 지도사상 관철과 경제노선의 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근저에 있었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실적을 내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뒤따르게 되었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배경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950년대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회주의 기초건설 및 사회주의 공업화 기초건설을 위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급노선에 충실하면서도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대중동원을 통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이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주된 목적이었다. 1980년대의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은 제6차 당 대회에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내세우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달성해야할 '10대 전망목표'를 야심차게 제시한 것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의 제2의 천리마운동은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에 따른 체제위기를 극복하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한 상황에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지도하에 경제적 실적을 단기간에 내기 위해 과거의 천리마대고조 시기와 같은 군중적 동원을 추진하려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010년대의 만리마운동은 권력승계의 안정화를 위해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지도사상으로 무장하고

경제 · 핵 병진노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적 실적을 단기간에 내기 위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필요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명칭과 성격이 조금씩 달라져 왔으나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경제적 실적을 내려는 속도전에 의한 생산경쟁운동이라는 점에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성격은 동일하다. 다만 시기와 국면에 따라서 지도사상과 발전전략도 달라지고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가 달라진데 따라 전개되는 과정과 강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도 정치사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이라는 특질을 언제나 유지하고 있으며, 명칭이나 성격에서 조금씩 달라질 뿐이다.

제2절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

북한의 군중노선에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천리마운동을 시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전에도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증산경쟁운동 등이 전개되었지만, 여기에서는 1956년부터 시작되는 천리마운동을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시발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전개과정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전개과정은 1960년 8월 제1차 전국 천리마작업반 선구자대회와 1968년 8월 제2차 전국 천리마작업반 선구자대회를 기점으로 시기를 구분해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시기에 개최된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 선구자대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제1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

1960년 8월 22일 열린 제1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는 1956년 12월에 시작된 천리마운동의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시작된 1959년 3월부터 제1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가 열린 1960년 8월까지 1년 반 동안에 천리마작업반 칭호는 766개 단위, 2중 천리마작업반 칭호는 13개 단위가 받고 있다.[1] 이 시기는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본궤도로 올라서고 안착되는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1) 김일성, "천리마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서울: 백두, 1989), p. 40. 제1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에서 한 연설이다.

면 다음과 같다.

천리마운동의 시원은 1953년 8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중공업 우선 발전이라는 경제전략 기조에 대한 이견으로 이미 싹트고 있었다. 이후 1956년 8월 전원회의를 계기로 '인민생활향상'에 중점을 두는 경공업 우선 발전전략과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이 충돌하면서 '8월 전원회의사건'이 일어났다.[2] '8월 전원회의사건'은 경제노선에서 중공업 우선의 경제발전전략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 사건이었다. 정치권력을 장악한 집권세력으로서는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에서 실적을 내야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었다.[3] 이 시기에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1956년 2월에 열린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스탈린 격하와 평화공존정책이 나오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북한은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이 1956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4]

---

2) 류길재,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경제건설:「스타하노프운동」및「대약진운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체제』(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3), pp. 61-72.

3) 천리마운동이 시작된 시기는 내부적으로 경제건설노선을 둘러싼 종파사건으로 대표되지만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권의 정치적 개입과 사회주의 분업체제로부터의 경제적 편입을 요구하는 시기로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시기이다. 박양업, "천리마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였는가," 『천리마』, 제8·9호(1969), pp. 40-43;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정치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중참여와 사상의 혁신을 통한 속도 창조를 모색한 것이다. 강진웅, "국가형성기 북한의 주체 노선과 노동통제 전략의 변화," 『사이間SAI』, 제17호(2014), p. 129.

4) 리성재,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은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회의," 『천리마』, 11·12호(1969), pp. 93-95; 천리마사, "《천리마》학습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당의 총로선이다," 『천리마』, 5호(1969), p. 50. "(전략) 전후시기에 실현된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과 당과 인민이 오랜 기간의 어려운 투쟁을 통하여 쌓아올린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력량에 기초하여 일어났으며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회의를 계기로 발단하였다."; 박양업, "천리마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였는가," 『천리마』, 8·9호(1969), pp. 40-42. "(전략) 1956년 12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전 당과 인민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일대고조에로 끌어올리도록 하기 위하여《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고 이의 관철에로 전당과 전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1958년 9월 전국 생산혁신자대회는 집단주의[5]에 기초한 혁신운동이 강조되었고, 1958년 11월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는 사상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1958년 10월과 1959년 2월 강선제강소 현지지도[6]가 있은 후인 1959년 3월 강선제강소 진응원 작업반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시작하였다.[7]

천리마운동이 제기된 1956년은 북한이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1956)을 마무리하고 5개년계획(1957~1961)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5개년계획(1957~1961)은 농업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여 사회주의적 공업화 기초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8] 5개년계획(1957~1961)이 제시한 사회주의 기초건설[9]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생산경쟁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 요구되었다. 북한으로서는

---

5) 북한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대중적 영웅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전적 의미는 "대중적으로 발휘되는 영웅주의 곧 수령과 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발휘하는 희생적이며 영용한 투쟁정신과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6), p. 1283.

6) "북한 현지지도의 기능적 특성은 생산과 국가사업에 관한 최고지도자와 당의 직접적 관리와 감독이다." (중략)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 경제재건을 위해 '인민대중'의 동원이 필요했다. 당시 동원의 원동력으로 채택된 것이 군중노선(mass line)이다. 군중노선은 김일성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구체화되었다. 천리마운동 · 청산리방법 · 대안의 사업체계가 그 전형이다. 주체사상은 천리마운동 · 청산리방법 · 대안의 사업체계 등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북한사회를 움직이는 동원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북한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추진력으로서 '천리마운동'은 혁명적 군중노선의 구현과 주체사상의 완성을 가져왔다." 이관세, "북한의 현지지도와 정치리더십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7), pp. 37-40.

7)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 문헌집』, pp. 19-20.

8)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은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 『로동신문』, 1967년 12월 12일. 북한은 "《우리 당은 사회주의적개조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와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5개년계획기간에 농업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사회주의건설분야에서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은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며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있다.》"고 한다.

9) 북한 계급노선의 단계를 1946년 말까지의 반제 · 반봉건 · 민주혁명기, 1947년 초부터의 사회주의 과도기, 1950년의 6.25동란기, 휴전 후 1960년 말까지의 사회주의 기초건설기로 구분하기도 한다. 김남식, "북한의 공산화과정과 계급노선(1)," 『아세아연구』, 제14권 제3호(1971), pp. 97-98.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다. 천리마운동은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당내 투쟁과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급속한 생산 증대의 필요성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1950년대 후반기의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은 5개년계획(1957~1961)을 통해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다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생산경쟁운동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이 시작되는 시기는 북한이 주장하는 과도기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추진되고 완성되어 가는 시기였다. 북한은 과도기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립으로부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승리의 단계와 무계급 사회가 실현되는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단계로 구분하였다.[10] 이 시기는 기본적으로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전략'[11]에 의한 사회주의 기초건설단계라고 부를 수 있다.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 에 대한 북한의 논리는 제3차 당 대회의 사업총결보고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는 인민경제 전체 분야에서의 기술적 개건 및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던 것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12]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이 대두되는 1950년대 중반은 북한에서 사회주의 기초건설과 함께 농업협동화를 추진해 나가는 시기였다.

사회주의 건설은 제3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도 당면과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고 민주기지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었다.[13]

---

10) 류길재,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경제건설:「스타하노프운동」및「대약진운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p. 60.

11) "정전 직후에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총로선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추호의 동요도 없이 그를 끝까지 관철하였습니다." 국토통일원,『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2집』, p. 145.

12)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의 중앙위원회 사업총결보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로동신문』, 1956년 4월 24일.

13) 제3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은 인민민주주의제도를 공고히

1961년 9월에 개최된 제4차 당 대회의 사업총결보고에서 이 기간의 천리마운동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였다. 사업총결보고는 천리마운동이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전 인민적 운동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천리마운동의 심화 발전된 형태로 경제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동력으로 근로자에 대한 대중적 경제관리방법이며, 모든 군중을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대중적 교양방법이라는 것을 공표하였다.[14] 천리마운동이 사회주의 공업화 기초를 다지기 위한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었다면,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을 지속하면서 정치사상운동을 강화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천리마운동의 생산경쟁운동으로서의 성격은 천리마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한 강선제강소가 6만 톤 생산능력의 분괴기에서 12만 톤의 강괴를 생산하였고, 김책제철소는 19만 톤 수준 이상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던 선철 생산을 27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흥남비료공장은 13만 톤 능력의 합성탑에서 33만 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선전한데서도 나타난다.[15]

1958년 6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3차 회의에서 5개년계획(1957~1961)이 보고되었는데, 천리마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다.[16] 즉, 전체 근로자들이 당의 요구에 따라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언급이 있다. 이것은 천리마운동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생산경쟁운동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함으로써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인민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을 도모하여 민주기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강화하여 조국의 통일을 촉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국토통일원,『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3집』, pp. 31-37.

15)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 문헌집』, pp. 11-18.

16) 국토통일원,『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2집』, p. 276. '모든 것을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라는 연설에서 "전체 근로자들은 당의 부름에 따라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를 향하여 앞으로 달리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3차 회의(1958.6.9.~11)는 '인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1957~1961)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천리마운동이 보다 심화되고 발전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은 1959년 3월 강선제강소 진응원 작업반원들이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1960년 8월 제1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는 이를 새로운 군중적 혁신운동으로 보고 있었다.

>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과 생활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온 새로운 군중적 혁신운동이며 가장 높은 형태의 사회주의경쟁운동입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거대한 의의는 그것이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이며 자각된 근로자들의 대중적 경제운영의 훌륭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 교양의 방법으로 된다는 데 있습니다.[17]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으로 출발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라는 점은 제1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도 밝히고 있었던 것이다.

제3차 당 대회가 제시한 기본방침에 따라 5개년계획(1957~1961)은 사회주의 경제적 기초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특히 중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공업화의 기초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 것이었다.[18]

(2) 제2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

1968년 5월 9일에 열린 제2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는 제1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보다 공업부문에서 천리마작업반 수는 21배, 2중 천리마작업반 수는 28배, 천리마기수의 수는 23배 이상 증가하였다. 군중

17) 김일성, “천리마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p. 40.
18)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2집』, pp. 150-151.

노선에 의한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천리마 기수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2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가 열린 1968년 5월에는 제1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보다 천리마 기수의 수가 23배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19]

제1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가 열린 1960년 8월부터 제2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가 열린 1968년 5월까지의 기간은 북한의 군중노선에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기간에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전략'이 '경제·국방 병진노선'으로 전환되게 되었고,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의 목표는 수정되어야만 했다. 당초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 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전체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선진 사회주의 수준의 주민생활향상이라는 목표는 경제노선의 변화로 수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북한은 경제 발전에서 계획성과 균형성이 무너지면 개별적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높은 발전 속도를 달성하더라도 결국에는 경제 전반의 발전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회주의 사회의 합법칙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20] 이는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추진으로 경제 발전에서 어느 한 부문에서 애로가 발생하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이를 상쇄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추진으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

19)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 문헌집』, pp. 48-49.
20)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2집』, p. 35.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천리마기수 독본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이 가장 높은 형태의 사회주의 경쟁운동이며 공산주의 학교라고 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생산경쟁운동이자 정치사상운동임을 확인하고 있다.[21]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으로 복구돌격대운동, 증산돌격운동, 전선돌격운동, 2인 · 3인분 담당운동 등이 천리마운동 이전에도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전의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과 천리마운동의 차이점은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 촉진시키기 위한 전 인민적 운동이라는 것이다.[22] 이전의 전후복구를 위한 생산경쟁운동과는 다른 사회주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서의 생산경쟁운동이 천리마운동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은 천리마운동이 집단적 혁신운동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집단적 혁신운동이란 작업반, 직장, 공장의 모든 인원이 소위 생산 혁신자들이 달성한 수준에까지 생산성을 끌어올림으로써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려는 생산경쟁운동이었다. 북한은 집단적 혁신운동의 사례로 김책제철소의 27만 톤 선철 생산과 강선제강소의 12만 톤의 강철 생산 및 흥남비료공장의 33만 톤의 암모니아 생산을 들고 있다.[23]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이 경제적 실적을 내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방편으로 군중노선에 의한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1960년 농업에서의 청산리방법이 나오고 나서, 1961년에 공업에서의 대안의 사업체계가 나왔는데 지배인 유일관리제로부터 공장 당위원회에 의한 집단적 지도체제로 전환한 것이었다. 이러한 대안의 사업체계는 1961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 확대전원회의에서 제기되었고, 대안전기

---

21) 직업동맹, 『천리마기수 독본』, p. 7.
22) 직업동맹, 『천리마기수 독본』, pp. 9-11.
23) 직업동맹, 『천리마기수 독본』, p. 18;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p. 237.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과 다른 천리마작업반운동의 특징은 물질적 자극이 '작업반 우대제'로서 개인적 차원이 아닌 집단적 차원의 물질적 자극이라고 하고 있다.

공장 현지지도를 통해 확립된 것[24]으로 공장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으로서 계획과 생산에 있어서 당과 생산현장의 노동자와의 직접적인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였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경제노선에서 중대한 전환을 가져온 1962년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제시된 이후 정치사상운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산경쟁운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1966년 10월 제2차 당 대표자회는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공식화하면서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을 3년 연장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경제 건설은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되었다.[25]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제시된 이후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 생산경쟁운동과 관련하여 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3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두 번째 의제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가 토의되었고,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회주의경쟁운동의 가장 높은 형태이며 당의 군중노선에 의한 증산운동"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26]

1963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7차 전원회의는 '1963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 실행에 대한 예비적 총화와 1964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하여'가 논의되었다. 북한은 동 전원회의에서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당과 전체 인민이 천리마대진군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24) 차문석, "북한의 공장관리체계와 절정기 스탈린주의,"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2호(1999), pp. 245-247.
25)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p. 379.
26) "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6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1963년 5월 17일.

호소하였다.[27]

1964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3차 회의에서 국가경공업위원회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7차 전원회의는 소비품 생산에 집중하여 1~2년 내에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제1차 7개년 계획 목표를 달성하는 과업을 제시하였다고 토론에서 주장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천리마 대진군을 통한 새로운 대고조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었다.[28]

1966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5차 회의는 예산보고에서 모든 경제부문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과 결부하여 경제절약을 위한 군중적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였다.[29]

그런데 북한은 1966년 10월 제2차 당 대표자회에서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공식화하면서 1967년부터 군사비를 대폭 증가시켰다.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은 3년간 기간이 연장되어 1970년을 최종년도로 새로 설정하게 되었다. 그만큼 '경제·국방 병진노선' 추진으로 경제 건설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67년을 새로운 대고조의 해로 정하고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다.[30]

1967년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 전원회의는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창조적 열의를 고도로 발양시켜 도처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라며 독려하였다.[31]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2차 회의는 1968년 예산보고에서 국방력 강화와 경제토대 공고화 그리고 주민생활향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경제·국방 병진

---

2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7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1963년 9월 6일.

28)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2집』, pp. 1338-1341; 본사기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이끄시여," 『조선녀성』, 제1호(2004), p. 9.

29)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2집』, p. 1492.

30)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 참가자일동,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1968년 5월 11일),"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 문헌집』(동경: 조선청년사, 1968), p. 31.

3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1967년 7월 4일.

노선'이라고 주장하였다.[32] 제약된 재원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천리마 대진군과 사상혁명, 기술혁명, 정치사업, 조직사업을 강조하였던 것이다.[33] 동 회의는 토론에서도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강조하였다.[34]

1968년 4월 22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7차 전원회의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 잘하기 위한 1968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천리마 대진군을 호소하였다.[35] 천리마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되던 10년 전의 대고조 때와 같은 매우 높은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다고 한다.

새로운 대고조인 천리마 대진군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68년 5월 9일 열린 제2차 전국 천리마작업반 선구자대회는 '경제·국방 병진노선' 추진에 따른 난관을 극복하고 낡은 공칭능력과 기준에 매달리는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타파하고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기록을 창조하도록 하였다.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자본주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속도로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경제가 발전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이러한 높은 속도와 가능성을 더욱 커진다고 주장하였다.[36] 이러한 높은 속도와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집단적 혁신운동으로서의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였던 것은 결국 그만큼 경제상황이 절박하였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

32) 국토통일원,『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3집』, p. 131.
33) 국토통일원,『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3집』, pp. 131-132.
34) 국토통일원,『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3집』, pp. 157-159.
3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로동신문』, 1968년 4월 24일.
36)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 문헌집』, pp. 84-89.

(3)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 선구자대회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이 1972년에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전환된 이후인 1982년 11월에는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 선구자대회가 개최되었다.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 선구자대회가 개최된 것은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6차 당 대회가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의 목표를 수정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달성해야할 10대 전망목표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10대 전망목표는 전력 1,000억 킬로와트, 석탄 1억 2,000만 톤, 강철 1,500만 톤, 유색 금속 160만 톤, 시멘트 2,000만 톤, 화학비료 700만 톤, 천 15억 미터, 수산물 500만 톤, 알곡 1,500만 톤, 간석지 30만 정보로 모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37]

이러한 높은 수준의 경제건설 과업이 제시됨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이 끝나기 1년여 전인 1982년 11월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 선구자대회를 개최하였고,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을 조기에 완수하고 10대 전망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던 것이다.[38]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천리마운동 선구자대회를 개최하여 ‘80년대 속도’ 창조를 호소하고 10대 전망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던 것이다. 10대 전망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속도전을 통해 생산경쟁운동 중심으로 대중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

---

37)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결정서,” 『로동신문』, 1980년 10월 14일.
3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축하문: ‘80년대 속도’ 창조에 떨쳐나선 천리마운동선구자대회 앞,” 『로동신문』, 1982년 11월 12일.

다. 김일성 정권은 단기적인 속도전 방식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실적을 내기 위해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 기간에 천리마운동 선구자대회를 열어 과거 1950년대 천리마 대고조의 시기를 소환하여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던 것이다.

북한은 "모든 부문에서 '80년대 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림으로써 온 나라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정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차넘ㅡ치고 이르는 곳마다 집단적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39]고 하면서 생산경쟁을 독려하였다.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달려 나가자는 것이었다.[40] 이는 '80년대 속도'가 천리마운동보다 한층 더 강력한 형태의 속도전으로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 기간에 10대 전망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위기상황에서 나온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2. 결과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에서 경제적 측면의 결과는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전개된 기간에 추진된 경제계획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물론 경제계획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고, 경제 실적을 높이는데 있어 원인변수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3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축하문: '80년대 속도' 창조에 떨쳐나선 천리마운동선구자대회 앞," 『로동신문』, 1982년 11월 12일.
40)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 끝내고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80년대 속도' 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정무원부총리 계응태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1982년 11월 12일.

경제 실적에 대한 영향과 기여는 간접적이고 부분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서 경제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라는 점에서 경제 실적을 높이는데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상당한 기여를 했던 것은 분명하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결과를 공장이나 작업반 단위로 실제로 달성한 생산 실적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여기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경제계획의 목표와 실적을 가지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라고 하지만 정치사상운동은 언제나 결합된 형태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정치사상운동으로서의 대중운동에서 정치사상적 측면의 결과는 북한정권의 정치적 지지기반의 확대를 의미하는 천리마 칭호를 수여받은 단위를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해 본다.

(1) 경제적 측면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 기간에 두 번의 경제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 제1차 전국 천리마작업반 선구자대회가 개최되기 이전의 5개년계획(1957~1961)과 제2차 전국 천리마작업반 선구자대회를 전후한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이 그것이다. 5개년계획(1957~1961)은 당초 목표연도보다 앞당겨 달성하였는데 비하여,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은 목표 연도보다 3년 연장하였는데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5개년계획(1957~1961)의 목표는 공업 총생산액은 2.6배, 생산수단 생산액은 2.9배, 소비재 생산액은 2.2배, 연평균 성장률은 22%로 제시하였다.[41] 실제로 달성한 결과는 1957년부터 1960년까지 4년 동안에 공업 총생산액은 3.5배, 생산수단 생산액은 3.6배, 소비재 생산액은 3.3배, 연평균 성장률은

41)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2집』, p. 152.

33.6%라고 발표하였다.[42] 이러한 결과는 천리마운동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5개년계획(1957~1961)이 당초에 설정한 목표를 2년 반 만에 달성하고 연평균 성장률이 11.6%를 초과 달성하는 실적을 거둔 것은 천리마운동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래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년계획(1957~1961)의 목표는 생산수단의 생산에 방점을 두고 있었으나 실적은 소비재의 생산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달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높은 속도를 유지하게 되면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북한의 주장과도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경제적 성과라고 하겠다.

【표 3-1】 북한의 5개년계획(1957~1961)의 목표와 실적 비교

(단위: 배, %)

구 분 / 생 산	목표	실적
공업 총생산액	2.6	3.5
생산수단 생산액	2.9	3.6
소비재 생산액	2.2	3.3
연평균 성장률	22	33.6

* 출처 : 국토통일원,『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2집』(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 p. 152. 국토통일원,『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2집』(서울: 국토통일원

42) 5개년계획(1957~1961) 기간에 공업생산액 증가의 63%가 노동생산성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 37%는 근로자의 절대적 증가치에 의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실제로도 1956년 대비 1957년 공업생산액 증가에서 70%가 노동생산성 향상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강진웅, "국가형성기 북한의 주체 노선과 노동통제 전략의 변화," p. 126.

조사연구실, 1988), p. 21.
* 목표연도는 1961년, 성과연도는 1960년 기준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 3년 연장)의 목표는 공업 총생산액은 3.2배, 생산수단 생산액은 3.2배, 소비재 생산액은 3.1배, 연평균 성장률은 18%로 제시하였다.[43] 실제로 달성한 실적은 생산액에서는 1956년에 대비한 배수로 공업 총생산액은 11.6배, 생산수단 생산액은 13.3배, 소비재 생산액은 9.3배, 연평균 성장률은 1957년에서 1970년간 연평균 성장률로 19.1%라고 발표하였다.

【표 3-2】 북한의 제1차 7개년계획(1961~1970)의 목표와 실적 비교

(단위: 배, %)

구 분 / 생 산	목표	실적*
공업 총생산액	3.2	11.6
생산수단 생산액	3.2	13.3
소비재 생산액	3.1	9.3
연평균 성장률	18	19.1

* 출처 : 국토통일원,『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2집』(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 p. 43. 국토통일원,『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3집』(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 p. 20.
* 실적에서 생산액은 1956년 대비 배수, 성장률은 1957~1970년 연평균 성장률

위의【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제1차 7개년계획(1961~1970) 기간의 실적을 당초 목표와 비교하지도 않았고, 생산액은 1956년 대비하여 발표하였으며, 성장률은 1957년부터 1970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로 발표하였다. 이는 '경제·국방 병진노선' 기간에 군중노선에 의한 천리마운동과

43) 국토통일원,『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2집』, p. 152.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강화하여 생산경쟁운동을 펼쳤으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생산경쟁운동으로서의 효용성이 낮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차 전국 천리마작업반 선구자대회와 제2차 전국 천리마작업반 선구자대회를 전후한 기간에 추진된 5개년계획(1957~1961)과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 3년 연장)의 목표와 실적을 비교해보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비교하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실적 비교가 엄밀성에 있어 한계는 있으나 상대적인 크기를 파악하는 데는 제한적이나마 효용성이 있다고 하겠다.

5개년계획(1957~1961)의 생산경쟁운동의 실적을 목표 대비 실적의 비율로 따져보면 공업 총생산액은 135%, 생산수단 생산액은 124%, 소비재 생산액은 150%, 연평균 성장률은 153% 초과달성하고 있었다.

반면에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 3년 연장)의 생산경쟁운동의 실적은 1957년부터 197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9.1% 성장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목표인 18% 대비한 연평균 성장률이 106%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업 총생산액, 생산수단 생산액, 소비재 생산액은 1956년 대비 실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목표와 직접 비교할 수 없게 발표하였다.

이로 미루어보면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생산경쟁운동으로서의 경제적 측면의 기여는 5개년계획(1957~1961) 기간에는 전례 없이 높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지만,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 3년 연장) 기간에는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추진으로 실적을 내기 어려웠고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기여도는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생산경쟁운동으로서의 효용성이 낮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표 3-3】과【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리마운동 초기의 5개년계획(1957~1961) 기간에 연평균 성장률이 33.6%이다가 천리마운동 후

기인 제1차 7개년계획(1961~1970) 기간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19.1%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경제규모가 커진 것도 이유 중의 하나였지만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의 효용성이 낮아지고 있었는데 따른 것이다.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지속되면서 생산증대 효과가 높은 부문에서 생산증대 효과가 낮은 부문으로 확대되는데 따라 전반적인 생산증대 효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다.

공업 총생산액에 있어서는 천리마운동의 후반기에 생산액 증가가 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제1차 7개년계획(1961~1970)이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추진으로 당초보다 3년이나 계획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공업 총생산액 중에 생산수단 생산액의 경우 당초 설정한 목표도 높았지만 실제 달성한 생산액도 소비재 생산액보다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북한이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비재 생산부문보다는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생산수단 생산부문에 집중적으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생산경쟁운동으로 활용한 데 따른 것이다.

【표 3-3】 천리마운동 기간의 생산경쟁운동의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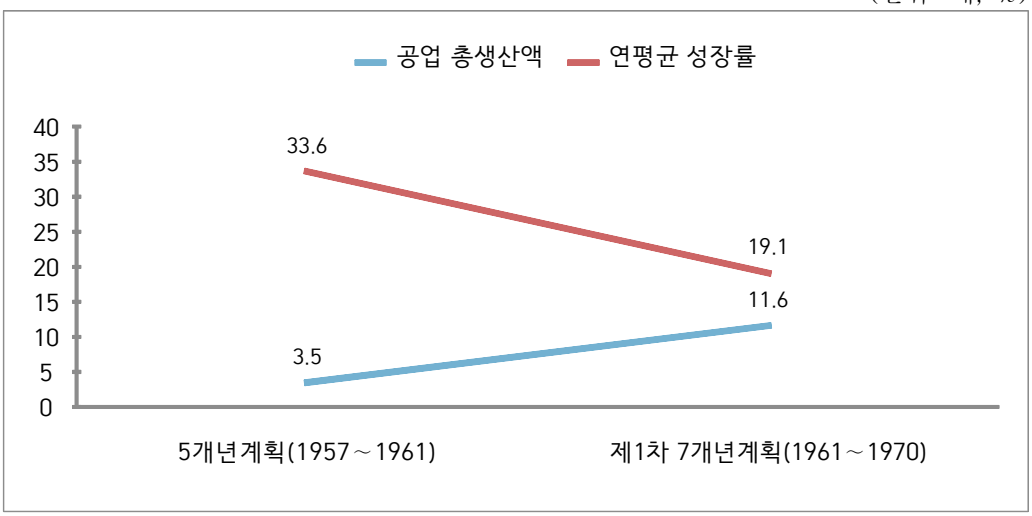
(단위: 배, %)

구 분 / 생 산	5개년계획(1957~1961)	제1차 7개년계획(1961~1970)
공업 총생산액	3.5(2.6)	11.6(3.2)
생산수단 생산액	3.6(2.9)	13.3(3.2)
소비재 생산액	3.3(2.2)	9.3(3.1)
연평균 성장률	33.6(22)	19.1(18)

* 괄호 안은 계획 목표로 제시된 생산액과 성장률

【그림 3-2】 천리마운동 기간의 생산액과 성장률 추이

(단위: 배, %)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개된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의 경제적 측면의 기여는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이 진행되는 기간에 열린 1980년 10월의 제6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10대 전망목표' 의 달성도에 따라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의 실적은 1985년 2월 17일 중앙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984년 말에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이 종료되고 모든 계획지표가 기본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발표하였지만,[44] '10대 전망목표'의 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표가 없었다.

북한은 제6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10대 전망목표' 의 달성을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 최종년도까지 연장하도록 하였다.[45] '10대 전망목표' 의 달성과 관련해서는 제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개최된 2016 년 5월 제7차 당 대회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당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 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

44) 김영규, "북한경제 개방화 의도 있는가: 3차 7개년계획과 개방화 전망," 『통일한국』, 제38권(1987), pp. 22-25.
45) 김영규, "북한경제 개방화 의도 있는가: 3차 7개년계획과 개방화 전망," p. 23.

룩"[46]한 것으로 결과를 평가한 것이 전부였다. 이로 미루어보면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추진되는 기간에 전개된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은 '10대 전망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나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경제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력의 최대한 동원을 통한 외연적 성장을 추구한 것으로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5개년 계획이 조기에 완수되고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주의 공업화 기초건설 단계에서는 노동력의 동원을 통한 외연적 성장이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업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서고 경제규모가 커진 상황에서는 노동력의 동원을 통한 외연적 성장은 거의 한계에 이르게 된다. 북한도 이러한 상황과 한계를 인식하고 6개년계획 기간에는 기술도입과 개발을 통한 내포적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3대 기술혁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요인도 작용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북한에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집단적 사회주의 경쟁운동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서 정치적 유인이든 경제적 유인이든 개별 노동자에 대한 유인보다는 공장, 직장, 작업반 단위에서 실적을 내고 보상과 혜택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대중운동은 개개의 군중들이 집단을 위해 희생하고 집단에 충실한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결국 정치사상적으로 고양되지 않으면 대중적 영웅주의는 무한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이라는 특질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1970년대 이후에도 명칭과 내용을 달리하면서 나타나지만 단기적인 속도전에 의한 경제 실적의 제고에 어느

46) 통일부,『북한 제7차 당대회 자료집: 북한발표원문』(서울: 통일부 정세분석국, 2016), p. 99.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북한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고 단기적인 경제 실적을 과시하는 이벤트성 전시행정의 일부분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2) 정치사상적 측면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사상운동으로서의 대중운동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천리마운동이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일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운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천리마운동은 근로자들의 정치사상 의식을 부단히 높이면서 물질적 자극을 결합시킨 대중운동이었다.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며 근로자들에게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47] 공산주의형의 새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군중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이라는 것이다.[48] 정치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생산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농촌의 협동화가 완료되면서 군중의 불만이 팽배하고 혁명적 열의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군중들 속에서의 정치사상운동의 활성화, 즉 정치사업이 강화될 필요성은 커진 것이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 기간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지도사상과 관련해서 당 대회와 당 규약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6년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3차 당 대회는 당 규약을 개정하고, 처음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학설을 당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였다. 당면 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혁명 과업의 완수이고, 최

---

47) 직업동맹, 『천리마기수 독본』, p. 17.
48) 김경욱, “북한 교육교양의 원형에 관한 연구: 천리마시대(1956~1972)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2017), pp. 37-41.

종목적은 공산주의사회 건설이었다. 남북한의 대중을 당의 주위에 단결시키기 위해 통일전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49] 당의 지도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로 처음으로 명문화하였고, 군중노선도 통일전선 차원에서 접근하였던 것이 특징이다.

1961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4차 당 대회는 개정된 당 규약 전문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당 활동의 지도지침으로 하고 당면목적을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와 전국적 범위에서의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과업의 수행, 최종목적을 공산주의사회 건설로 설정하였다.[50] 이전의 노동당 규약과 다른 점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당의 지도사상으로 규정하였고, 당면목적을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중심이 전국적 범위에서의 통일전선 형성에서 북한 내에서의 군중노선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내의 혁명과 건설에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 실적을 내는 것이 우선적 과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1970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5차 당 대회는 개정된 당 규약 전문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당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또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규정하였다.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당사업의 기초로 삼고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도록 하였다. 한편,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사회를 혁명화하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51] 제5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은 주체사상을

---

49) "조선로동당 규약(4월 28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 『로동신문』, 1956년 4월 29일; 국토통일원,『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1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525. 제3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의 제1장 '당' 제1조는 "조선 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라고 처음으로 지도사상을 명문화하고 있다.

50) 1961년 9월 18일 제4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 참조.

51) 1970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5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고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규정하여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서 정치사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결합한 혁명적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모든 군중을 유일사상체계로 교양하여 혁명화하고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전국적 범위에서의 당면목적이 이전의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과업의 수행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으로 달라졌다는 점도 눈에 띈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정치사상운동으로서의 결과는 천리마작업반 칭호를 받은 단위의 숫자를 비교하여 평가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천리마작업반 칭호를 받은 단위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차 전국 천리마작업반 선구자대회와 제2차 전국 천리마작업반 선구자대회 및 그 기간에 발표한 천리마작업반 칭호의 수여 단위는 아래【표 3-4】와 같다.[52]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시작된 1959년 3월부터 제1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가 열린 1960년 8월까지 1년 반 동안에 천리마작업반 칭호는 766개 단위, 2중 천리마작업반 칭호는 13개 단위가 받았다.[53]

참조.

52) 강태우, "북한의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 관한 연구," p. 39. 강태우는 조선중앙연감 등을 참조하여 1960년, 1963년, 1965년, 1966년도의 천리마작업반 수를 표로 정리하고 있다. 표에서 천리마작업반 칭호를 받은 작업반 수는 각각 928개, 17,057개, 26,037개, 31,704개 단위이고 2중천리마작업반 수는 각각 13개, 179개, 422개, 577개 단위라고 한다. 천리마 직장은 각각 0개, 26개, 123개, 143개 직장이고 천리마공장은 0개, 1개, 21개, 28개 공장이라고 한다. 이 외에 천리마학교가 각각 0개, 3개, 10개, 14개 학교로 확인하고 있다.

53) 김일성, "천리마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서울: 백두, 1989), p. 40. 제1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에서 한 연설이다.

【표 3-4】 천리마 칭호 수여단위 숫자

(단위: 개, 명)

구분 / 연도	천리마 칭호(인원)	2중 천리마 칭호(인원)	참가인원
1960.8	766	13	
1961.8	4,958(125,029)	55(1,459)	200만명 이상
1963.4	13,626(43만 4천여명)	131(3,343)	308만명 이상
*1968.5	21배(23배 이상)	28배	

* 출처 : 백두연구소,『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서울: 백두, 1989), p. 40. 국토통일원,『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2집』(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 p. 37; 직업총동맹,『천리마기수 독본』(평양: 직업동맹출판사, 1963), p. 30;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 문헌집』(동경, 조선청년사, 1968), p. 49.
* *표는 1968.5.9. 제2차 천리마작업반선구자대회 보고에서 제시한 1960년 8월 제1차 천리마작업반선구자대회 이후 공업부문의 천리마작업반 수의 증가 배수

제4차 당 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961년 8월까지 천리마 칭호는 4,958개 단위의 천리마작업반과 직장, 2중 천리마 칭호는 55개 단위의 작업반이 받았다. 천리마운동이 시작된 이후 천리마 칭호는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 기간인 1963년 4월까지 6여 년 동안에 13,626 단위의 작업반이 천리마 칭호를 수여받았다. 이는 연평균 2,200여 단위가 천리마 칭호를 받은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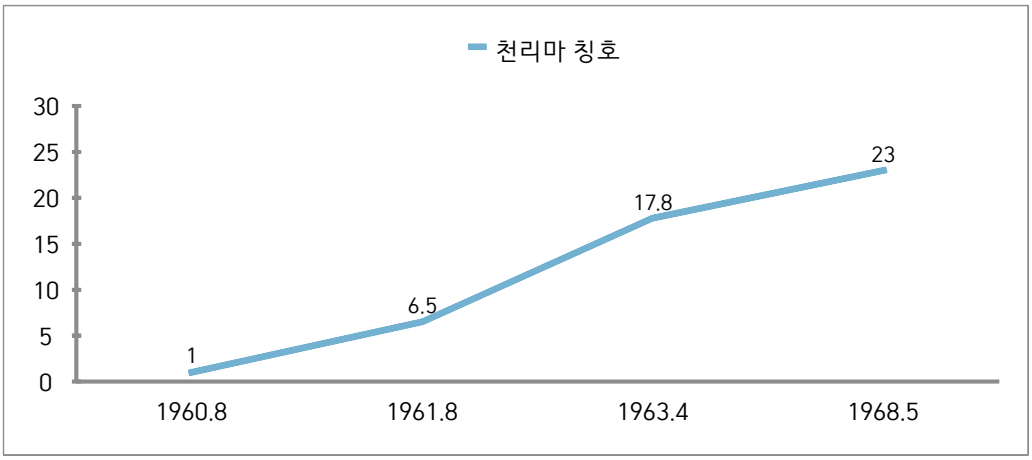
1968년 5월 제2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는 제1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보다 공업부문에서 천리마작업반 수는 21배, 2중 천리마작업반수는 28배, 천리마기수의 수는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군중노선에 의한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천리마 기수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1년 8월

제4차 당 대회가 열리는 해에 천리마 기수가 12만 5천 29명이었는데, 2년이 지나지 않은 1963년 4월에는 약 3.5배 증가한 43만 4천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제2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가 열린 1968년 5월에는 제1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보다 천리마 기수의 수가 23배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54] 위의 【표 3-4】는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 기간에 받은 천리마 칭호 수여 단위를 북한이 발표한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3-3】 북한의 천리마 칭호 증가 추이

(단위: 배)



* 천리마 칭호의 수를 1960년 8월을 기준으로 배수로 환산하여 작성

위의 【그림 3-3】은 천리마 칭호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 8월 제1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를 기준으로 할 때, 1961년 8월 제4차 당 대회가 열리는 해에 천리마 칭호는 약 6.5배 증가하였다. 1963년 4월에는 약 17.8배로 급증하였고,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가 열린 1968년 5월에는 제1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

54)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 문헌집』, pp. 48-49.

보다 천리마 기수의 수가 2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55]

이러한 결과는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 기간에 정치사상운동도 꾸준히 강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 기간의 정치사상운동의 강화를 뒷받침하는 실례로 1961년 9월 열린 제4차 당 대회는 사업총화 보고에서 그동안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 천리마운동을 전개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미를 부여하였다.

> 우리 나라에서의 천리마 운동의 위대한 힘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고도로 발양시킨 대중적 운동이라는데 있습니다.
>
> 사회주의 건설에서 인민 대중의 로력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고도로 발양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대중의 정치사상 의식을 부단히 높이면서 이에 물질적 관심의 원칙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
> 광범한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는 정신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될 때에만 사회주의 건설에서 진실로 대중적인 로력적 앙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진실로 대중적인 영웅주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의 이와 같은 정치적 각성과 의식 수준을 부단히 높이지 않고는 그들 속에서 로동에 대한 참다운 공산주의적 태도를 배양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하에서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 자극은 반드시 물질적 자극에 의하여 안받침되어야 합니다.[56]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이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여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치사상운동

---

55)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 문헌집』, pp. 48-49.

56)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3집』, p. 34.

을 생산경쟁운동과 결합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회 전 부문에 걸쳐서 정치사상운동을 통해 집단적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북한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이 나온 이유로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이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이었다. 두 번째는 소극성, 보수주의, 신비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에 대한 반대였다. 세 번째는 군중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이 강화되고 모든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된 것을 들고 있었다. 북한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이 당의 총 노선인 천리마운동의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에서 심화되고 발전된 정치사상운동으로 종전의 운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군중적 혁신운동이라고 평가하였다.[57]

북한은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군중노선에 의해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 의식으로 개조하고 자각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며, 사회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대중운동이라고 그 이유를 명확히 하였다.[58]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천리마운동의 심화 발전된 형태라고 하는 이유는 "가장 어려운 과업인 사람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59]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 기간에 정치사상운동의 실적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당의 지도사상이 주체사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치사상운동이 점차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의 지도사상은 정부의 지도사상으로 구현되었는데, 196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 회의는 정부정강으로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를 발표하였다. 정부정강 5개항은 주체사상 구현, 통일 준비, 사상혁명과 문화혁명 강화, 혁명적 군중관점 확립, 기술혁명 추진이었으며, 이를 직접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57) 직업동맹, 『천리마기수 독본』, pp. 19-22.
58) 직업동맹, 『천리마기수 독본』, pp. 22-23.
59) 직업동맹, 『천리마기수 독본』, p. 23.

첫째,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모든 부문에 걸쳐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나라의 정치적 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우리 민족의 완전한 통일독립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 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할 것입니다.

둘째, 공화국정부는 인공적인 국토의 량단과 민족적분렬로 인한 현재와 같은 우리 인민의 불행을 하루빨리 없애고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반부인민들을 항상 남조선인민들의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을 지원하며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킬것입니다.

셋째, 공화국정부는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더욱 강화하며 로동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높여 농민과 인테리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것입니다.

넷째, 공화국정부는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없애며 혁명적군중관점을 확립하도록 할것입니다.

다섯째, 공화국정부는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공업화정책을 계속 견지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며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는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할것입니다.[60]

정부정강 5개항의 첫 번째 항목은 주체사상을 모든 부문에서 구현하도록 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형식주의를 벗어나 북한 현실에 맞게 변형시키도록 하는 것이었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지도사상이 공식적으로 마르크

60) 국토통일원,『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3집』, pp. 76-90.

스·레닌주의에서 주체사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세 번째 항목과 다섯 번째 항목은 사상혁명, 문화혁명, 그리고 기술혁명의 3대혁명을 제시하였는데, 사상혁명에서 노동계급의 영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당의 영도를 전제로 정부는 노동계급이 혁명과 건설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서 노동계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 항목은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군중관점, 즉 혁명적 군중노선에 따라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적극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정강 5개항은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에 정부가 경제 건설을 위해 사상혁명이라는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 기간에도 정치사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전국적으로 완성되면서 사상 투쟁을 전개하면서 모든 사업을 사람과의 정치사업이 되도록 하였던 것이다.[61]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당의 총노선인 천리마운동의 심화 발전된 형태로 종전의 모든 운동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군중적 혁신운동으로 규정하였다.[62] 이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차원을 넘어서는 정치사상운동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북한은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의 특징을 사상운동이자 군중노선에 의한 새로운 대중운동이며 장기적인 운동임을 명확히 하였다.[63] 1967년에

---

61) 직업동맹, 『천리마기수 독본』, pp. 19-21. "천리마 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킨 또 하나의 요인은 대중 속에서의 공산주의 교양이 더욱 강화되고 모든 사업이 사람과의 산 창조적 사업으로 전환된 그것이다."

62) 직업동맹, 『천리마기수 독본』, pp. 21-22. 북한은 "1959년 3월, 강선제강소 진응원 작업반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자》는 구호를 들고 사회주의 경쟁의 가장 높은 형태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발기하였으며,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이 창조한 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 로선인 천리마 운동이 더욱 심화되고 발전된 형태로서 종전의 모든 운동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군중적 혁신 운동"이라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설명하고 있다.

63) 직업동맹, 『천리마기수 독본』, pp. 31-35. 북한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기본 특징

는 김일성 직계세력인 갑산파가 유일사상체계 수립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전격적으로 제거되는 '갑산파 사건'이 일어났다.[64]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인 1968년 5월에 제2차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를 개최하고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 천리마작업반과 천리마 선구자가 선도[65]하도록 하였던 것은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점차 정치사상운동을 강화해 나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으로 근로자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에 제1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생산에서의 집단적 혁신운동과 근로자들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종전의 사회주의 경쟁 운동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점,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내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규모와 범위에 있어서 이때까지의 사회주의 경쟁 운동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대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 점, 종전의 사회주의 경쟁 운동은 주로 노동계급 속에서 일어났으며 그것도 공업 분야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고 나라의 경제 발전 전반과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였으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종전의 사회주의 경쟁 운동과는 달리 공업뿐만 아니라 농업, 건설, 운수, 상업, 교육, 문화, 보건 부문 등 모든 부문과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텔리들 할 것 없이 근로자들이 살고 일하고 있는 모든 단위에서 광범히 전개되고 있는 점,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가장 대중적인 성격을 띠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장기간에 작용하는 위대한 역사적 운동인 점을 들고 있다.

64) 갑산파 사건은 1967년 5월에 박금철 등 갑산파가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경제·국방 병진노선과 배치되는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실용주의적 경제노선을 추진하다가 숙청된 사건이었다. 조우찬, "북한 갑산파 연구: 박금철과 구성원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9권 제1호(2016), p. 127.

65)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 문헌집』(동경, 조선청년사, 1968), p. 13.

제3절 제2의 천리마운동

제2의 천리마운동은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김정일 정권에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부분에서의 실적을 내기 위해 속도전 방식으로 전개한 천리마운동의 재현이었다.

1. 전개과정

제2의 천리마운동의 전개과정은 1999년 11월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선구자대회가 기점이 되고 있다.

(1)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선구자대회

김정일 정권은 1999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선구자대회를 개최하고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1998년 제시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강국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다.

1998년 1월 자강도 현지지도[66]를 계기로 '제2의 천리마운동'과 '강계 정신'이 천명되었고, 3월에는 성진제강연합기업소 현지지도로 '혁명적 대고조'와 '성강의 봉화'가 나왔다. 9월에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이 천명되었다. 1999년도에는 '나남의 봉화'가 '제2의 천리마운동'의 구호로 연결되고 있었다.[67]

1999년 11월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선구자대회는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천리마 선구자의 모범을 일반화하도록 하였다.[68] 2000년 1월 신년

66) 1998년 1월 자강도의 강계트랙터공장 등에 대한 김정일의 현지지도 시 자력갱생에 입각한 강행군 사례를 '강계정신' 으로 개념화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운동' 으로 구체화시켰다고 한다. 이관세, "북한의 현지지도와 정치리더십에 관한 연구," p. 173.

67) 권영경, "최근 북한 경제정책 변화 추이와 전망," p. 88.

공동사설은 1999년을 천리마 대진군이 추진된 해로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은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건설하려는 것이었다. 모두가 '성강의 봉화' 따라 기적을 창조하는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의 선구자가 될 것을 요구하였다.[69]

1999년 11월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선구자대회 이후 김정일 정권은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전개하여 강성대국건설, 특히 경제강국건설을 추진하였다고 2010년 9월 제3차 당 대표자회 개최를 앞두고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밝히고 있다. 노동신문 사설은 제1차 당 대표자회가 있던 1958년에 천리마 대고조를 불러일으켜 공업총생산액이 전년대비 140% 성장하였고, 1966년 제2차 당 대표자회는 천리마 대고조를 통해 국방력과 경제력을 제고하였다고 강조하면서 제3차 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전개된 1999년의 천리마 대진군의 목표는 강성대국건설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은 이미 마련된 튼튼한 도약대에 의거하여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발전시키며 조국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 대진군운동이다.[70]

2010년에는 새로운 천리마속도인 희천발전소 건설사업에서의 '희천속도'와 평양의 주택 10만 세대 건설사업에서의 '새로운 평양속도'가 만들어진 것을 제2의 천리마운동의 실례로 들었다.[71]

2010년은 "경공업을 농업과 함께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의 주공전선"으로 강조하고 "모든 경공업공장들에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내부

---

68) 조선중앙통신사,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제2의 천리마대진군," 『조선중앙연감 2000』, 53호(2000), p. 77.

69) 로동신문 · 조선인민군 · 청년전위 공동사설,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00년 1월 1일.

70) 조선중앙통신사,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제2의 천리마대진군," 『조선중앙연감 2000』, 53호(2000), p. 76.

71) 로동신문 사설, "빛나는 로력적성과를 안고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하자," 『로동신문』, 2010년 8월 19일. 북한은 1958년 제1차 당 대표자회, 1966년 제2차 당 대표자회 등 계기마다 천리마대고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보다 큰 생산적앙양을 이룩함으로써 천과 신발, 식료품과 일용품들을 비롯한 질좋은 인민소비품이 꽝꽝 쏟아져나오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군중노선에 의한 제2의 천리마운동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서의 의의를 강조하기도 하였다.[72]

2. 결과

제2의 천리마운동의 결과를 김일성 정권의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생산경쟁운동의 결과는 김정일 정권에 들어와서는 중장기적인 경제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지 못하였고, 정치사상운동의 결과도 김일성 정권과는 달리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선구자대회에서 제2의 천리마칭호 수여단위가 발표되지 않았다. 간접적으로나마 한국은행의 자료를 통해 생산경쟁운동의 결과를 살펴보고 정치사상운동의 결과는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통해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1) 경제적 측면

제2의 천리마운동 선구자대회가 개최된 1999년도 북한 경제성장률은 6.2%이었고, 공업(제조업) GDP 성장률은 7.9%, 중화학공업 GDP 성장률은 10.4%, 경공업 GDP 성장률은 2.9%로 한국은행은 추정하였다. 이러한 성장률은 제2의 천리마운동이 시작된 1998년의 마이너스 성장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제2의 천리마운동이 상당한 경제적 측면에서 실적을 낸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물론 김정일 정권에 들어와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자연재해로 인한 고난의 행군 시기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로 인한 상대적

72) 로동신문 사설, "빛나는 로력적성과를 안고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하자," 『로동신문』, 2010년 8월 19일.

인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게 된 요인이 있었지만,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제2의 천리마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실적이라고 하겠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제2의 천리마운동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용성은 2000년 이후 진폭이 줄어든 가운데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2의 천리마운동으로 1999년에 상당한 경제 실적을 가져왔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제2의 천리마운동은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경제 실적을 내는 데 기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요인과 함께 경제 실적이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 천리마운동이 시작되던 초기보다 노동투입량 증대가 어려운 상태에서 단기적인 속도전에 의한 강도 높은 노동력의 동원과 투입은 경제 실적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단기적인 속도전 방식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제2의 천리마운동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통한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지속적으로 고취하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정치사상적 측면

제2의 천리마운동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라고 해서 정치사상운동으로서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다. 비록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선구자대회가 김일성 정권의 전국 천리마작업반 선구자대회처럼 천리마 칭호 수여 단위나 천리마 기수의 숫자를 내놓지 않았지만, 정치사상운동에 대해 강조하는 대목은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의도한 정치사상운동으로서의 대중운동의 실적을 간접적으로나마 일별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은 군중노선에 의한 제2의 천리마운동 또는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문화 건설

에서의 집단적 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속도전과 사상전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것이라고 하였다.[73] 1999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열린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선구자대회는 1950년대 천리마 대진군운동과 같은 계급투쟁과 정치사상투쟁을 동반하는 정치적 사상적 대결전이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은 선군혁명 영도원칙 하에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고난의 행군을 거쳐 군중의 신념과 의지가 강화된 토대 위에서 추진되었다고 한다. 제2의 천리마 대진군에서 혁명적 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은 강성대국 건설을 추진하는 오늘의 천리마정신이라고도 하였다.[74] 제2의 천리마운동이 속도전에 의한 단기적인 생산경쟁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정치사상운동에 의한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에서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제2의 천리마운동은 대내외적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해 가는 시점에서 경제적 실적을 냄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속도전 방식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지속성을 가지기 어려운 것으로 결국 김정일 정권에서는 선군사상에 의한 정치사상운동을 강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

73) 로동신문 사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심화발전시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로동신문』, 1999년 8월 5일.

74) 조선중앙통신사,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대회,” 『조선중앙연감 2000』, 53호 (2000), p. 283.

제4절 만리마운동

만리마운동은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김정은 정권에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속도전 방식의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1. 전개과정

만리마운동의 전개과정은 2017년 개최될 예정이었던 만리마 선구자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만리마 선구자대회

김정은 정권은 2017년 1월 25일 당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말에 만리마 선구자대회를 소집한다고 발표하였지만, 만리마 선구자대회는 결국 개최되지 못하였다.[75]

만리마운동은 36년 만에 개최되는 제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중요대상 건설 사업인 2016년 2월 여명거리 건설을 '만리마속도로 펼쳐진 만리마시대'라고 명명하면서 시작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 을 제시하였는데, '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 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새로운 속도전인 만리마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제7차 당 대회를 전후하여 70일 전투, 200일 전투, 150일 전투를 연이어 전개하였고,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다.

만리마운동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서의 성격은 2016년 5월 6

75) 문장순, "김정은 시대의 군중노선," pp. 14-15.

일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 잘 나타나 있다.

> 우리 당이 인민을 믿고 호소한 충정의 70일전투는 당이 안겨준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의 모든 전선에서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력적 위훈을 창조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전인민적 총동원전, 당정책결사옹위전이었다.[76]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내각의 보고는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서의 만리마운동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높은 목표는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며 만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달려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략) 당면하여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어 려명거리건설을 완공하고 인민경제발전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낌으로써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고 승리라는 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겠습니다.[77]

비록 2017년 말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만리마 선구자대회가 개최되지는 못했지만, 2018년 4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이라는 경제발전전략이 제시됨으로써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강화할 필요성은 높아지게 된다.

---

76)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로동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자력자강의 만리마기상을 만방에 떨친 위대한 승리: 전국적인 충정의 70일전투계획 144%로 넘쳐 수행, 공업생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배 장성, 수백개의 대상 준공, 조업 및 개건," 『로동신문』, 2016년 5월 6일.

77)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한 박봉주대의원의 보고," 『로동신문』, 2016년 6월 30일.

2. 결과

만리마운동의 결과를 김일성 정권의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생산경쟁운동의 결과는 김정은 정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이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평가가 어렵다. 정치사상운동의 결과도 김일성 정권과는 달리 만리마 선구자대회는 개최되지도 못하여 실적에 대한 발표도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평가가 어렵다. 간접적으로나마 한국은행의 자료를 통해 생산경쟁운동의 실적을 살펴보고 정치사상운동의 실적은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통해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1) 경제적 측면

만리마운동이 70일 전투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제7차 당 대회가 개최된 2016년에 북한 경제성장률은 3.9%이고 공업(제조업) GDP 성장률은 4.8%, 중화학공업 GDP 성장률은 6.7%, 경공업 GDP 성장률은 1.1%로 한국은행은 추정하였다. 이는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만리마운동이 단기 속도전 방식으로 전개되어 상당한 실적을 낸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만리마 선구자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었던 그 다음해의 경제적 성과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김정은 정권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만리마운동은 경제부문에서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2) 정치사상적 측면

만리마운동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라고 해서 정치사상운동으로

서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록 만리마 선구자대회가 개최되지 못하였고, 김일성 정권의 전국 천리마작업반 선구자대회처럼 만리마 칭호 수여 단위나 만리마 기수의 숫자를 내놓지 못하였지만 정치사상운동에 대해 강조하는 대목은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의도한 정치사상운동으로서의 대중운동의 성과를 간접적으로나마 일별할 수 있다.

만리마운동이 정치사상운동으로서 달성한 실적과 관련하여 2016년 5월 6일 조선통신사 보도는 70일 전투를 '자력자강의 만리마기상을 만방에 떨친 위대한 승리' 라고 평가하고 있다.

> 70일전투의 나날에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군인들, 청년학생들이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되고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자기힘을 믿고 일어서는 굳센 의지의 소유자, 체현자로 억세게 자라났다.[78]

비록 70일 전투가 단기적인 속도전에 의한 생산경쟁운동의 성격이 강하였지만, 제7차 당 대회를 앞두고 계획된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사상혁명을 선행하여 정치사상운동도 강력하게 전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7차 당 대회 호소문은 만리마운동의 정치사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잘 대변하고 있다.

>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첫째 과업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
>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을 일심단결대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류례없는 일대 사상전임을 똑똑히 명심하고 우리 혁명의 명줄인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유일적령군체계를 철통같이

78)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로동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자력자강의 만리마기상을 만방에 떨친 위대한 승리: 전국적인 충정의 70일전투계획 144%로 넘쳐 수행, 공업생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배 장성, 수백개의 대상 준공, 조업 및 개건," 『로동신문』, 2016년 5월 6일.

다지자.[79]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서 만리마운동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제7차 당 대회 호소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상혁명을 통해 당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군중들에게 확실하게 체득시키는 것이었다. 만리마운동이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서 정치사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북한은 만리마시대에 맞지 않는 경직된 사고방식과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면서 유훈 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시대정신인 강원도정신으로 만리마 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만드는 투쟁을 벌이자고 하였다.[80]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을 만리마속도 창조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겠다는 각오를 피력하기도 하였다.[81]

이상에서 논의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북한 정권별로 나누어 정리해보면 아래【표 3-5】와 같다.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김일성 정권에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개된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두 차례의 전국 천리마작업반 선구자대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전개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와는 달리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는 시기에 진행된 김일성 정권에서의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 김정일 정권에서의 제2의 천리마운동, 김정은 정권에서의 만리마운동은 새로운 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단기 속도전 방식에 의한 생산경쟁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실적을 내도록 하였던 것이 특징이자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

79)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청년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호소문: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향하여 총공격 앞으로," 『로동신문』, 2016년 5월 10일.

8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5(2016)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6(2017)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회의에서 한 재정상 기광호대의원의 보고," 『로동신문』, 2017년 4월 12일.

81)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한 토론: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발전설비와 대상설비생산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겠다, 양승호대의원," 『로동신문』, 2016년 6월 30일.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양승호 토론.

【표 3-5】 북한 정권별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전개

구분 / 기간	명칭	기간	선구자 대회	비고
김일성 정권	천리마운동	1956~1972	제1차 전국 천리마작업반 선구자대회(1960.8) 제2차 전국 천리마작업반 선구자대회 (1968.5.9.~11)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전략 경제·국방 병진노선
	천리마작업반 운동	1959~1972		
	'80년대 속도' 창조를 위한 천리마운동	1982~1994	80년대 속도창조를 위한 천리마운동 선구자대회(1982.11.12.)	3대혁명 소조운동 (1973.2)
김정일 정권	제2의 천리마 운동	1998~2011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선구자대회(1999.11.3~4)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
김정은 정권	만리마운동	2016~현재	만리마운동 선구자대회 (2017년 말 예정, 미 개최)	경제·핵 병진노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제5절 소결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이라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 제2의 천리마운동과 만리마운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사회주의 기초건설과 사회주의 공업화 기초건설 단계에서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시작하였는데 반하여,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공업화와 사회주의 완전승리 단계에서 전개되었고, 제2의 천리마운동과 만리마운동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해 추진되었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 시기에 계급노선의 지도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변화하였고, 경제노선의 발전전략은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전략'과 '경제·국방 병진노선',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과 '경제·핵 병진노선' 및 '국가경제발전 총력집중노선'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지도사상과 발전전략의 변화는 군중노선에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오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군중노선은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경제관리체계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 시기에는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가 제시되었고, 제2의 천리마운동과 만리마운동 시기에는 7.1경제관리체계의 개선과 6.28방침 및 5.30조치 등 새로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모색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공통된 특징의 하나로 우선 단기적인 속도전에 의한 경제부문에서의 실적을 내려

고 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은 5개년계획을 수행하여 계획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했다. 비록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정치사상운동을 강화하고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추진하여 국방부문을 강화하는데 따라 경제 실적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이를 상당부분 상쇄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10대 전망목표'가 제시되고 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개된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은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경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속도전 방식의 생산경쟁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였다. 제2의 천리마운동과 만리마운동이 추진된 시기에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던 것은 여러 다른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두 번째 공통점은 정치사상운동과의 결합이라는 특질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이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발전되면서 주체사상 확립을 위한 정치사상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제2의 천리마운동이 실천이데올로기로서의 선군사상을 지도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쳤으며, 만리마운동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군중들이 체화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상기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달리하는 군중노선에서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중장기 경제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 및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에 비해, 중장기 경제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제2의 천리마운동과 만리마운동 간의 차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장기 경제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었다는 것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중장기 경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기에는 중요대상 건설사업이나 관심사업 중심으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전개되었다. 물론 제2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이 1950년대 천리마 대고조의 시기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북한이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과 동일한 수준과 범위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어느 정도 실적을 거둠으로써 효용성을 확인해 주고 있지만, 사회주의 집단적 생산경쟁운동으로서 군중들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혜택이 크지 않고 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에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사회주의 공업화 기초단계에서 노동력 동원에 의해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외연적 성장이 가능한 초기에는 일정한 경제 실적을 냄으로써 내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공업화단계에 들어서면서 점차 외연적 성장이 한계에 이르게 되었고, 기술혁신을 통한 내포적 성장을 추진하게 되면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효용성이 낮아졌다. 따라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권력 강화와 후계체제 구축과 맞물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했던 것이다.

제Ⅳ장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북한 대중운동

북한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사회주의 공업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시작되었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천리마운동이 1970년 제5차 당 대회와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규정된 이후에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본격화되었다. 사회주의 완전승리단계에서는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보다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보다 유용하고 필요하였던 것이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시기는 계급노선의 지도사상으로 주체사상이 확립되는 시기였고, 경제노선의 발전전략에서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사실상 종결되는 시기였으며,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시기와도 맞물려 있었다.

김일성 정권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사회주의 공업화가 완성된 단계에서는 사상혁명을 선행시켜야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김정일 정권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체제위기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난으로 인한 정권위기를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극복하는 한편, 자본주의 사상적 문화적 침투와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지도사상으로 실천이데올로기인 선군사상이 추가되고 경제발전전략으로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이 추진되었다. 김정은 정권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압축적인 권력승계로 인한 정권 안정을 위해 지도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모든 군중에게 체화시키고 경제발전전략으로 '경제·핵 병진노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개되었다.

제1절 배경

북한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배경에는 주체사상을 유일한 계급노선의 지도사상으로 확립함으로써 정권을 강화하려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다.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우선하는 정치사상적 동원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후계체제 구축을 통한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주의 공업화 건설이 완료되면서 외연적 성장이 한계에 달하면서 내포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데,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통해 사상혁명이 선도하는 기술혁명, 즉 3대 기술혁명을 추진하려는 것이 주요 동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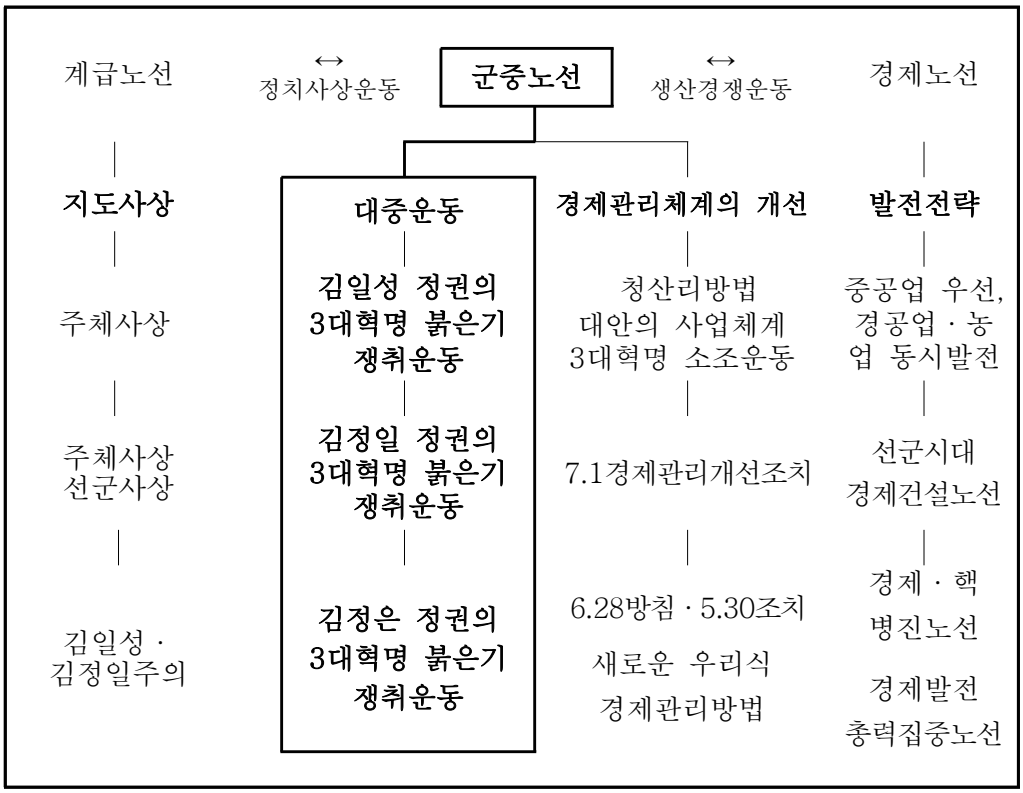
1970년 제5차 당 대회는 계급노선의 지도사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으로 규정하였고,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은 주체사상을 당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면서 주체사상 확립을 위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전개할 바탕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973년 2월에 3대혁명 소조운동을 시작하면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핵심내용이 되는 3대혁명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3대혁명 소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북한에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전면에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전까지 3대혁명은 정치사업의 일환으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서 정치적 자극을 주는 임무가 강조되는 정도에 그쳤다면, 3대혁명 소조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사상혁명에 의해 선도되는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의 3대혁명은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1975년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상혁명을 선행시키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려는 것이 정치사상운동 중

심의 대중운동, 즉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림 4-1】 군중노선에서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과 지도사상 · 발전전략의 관계



위의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중노선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도 계급노선의 지도사상과 경제노선의 발전전략의 상호관계 속에서 추진되었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이라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시기에도 생산경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지도사상을 관철하고 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배경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김일성 정권 기

간인 70년대와 80년대에는 지도사상으로 순수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이 실천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가운데, 유일사상으로의 주체사상이 순수이데올로기와 실천이데올로기로 기능을 동시에 하면서부터는 주체사상의 지도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기술혁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김정일 정권 기간인 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체제위기 속에서 주체사상이 순수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가운데 실천이데올로기로서의 선군사상이 지도사상으로 부각되었고, 선군사상의 지도 아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발전전략을 수행하게 되었다. 2010년대에는 김정은 정권이 압축적인 권력승계를 완성하고 정권의 안정을 위해 지도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지속하였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통해 핵 무력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경제발전 총력집중노선'을 제시하여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강화하면서도 생산경쟁운동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197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주의 공업화단계에 들어서면서 노동력 등 생산요소 투입의 증대에 의한 외연적 성장 방식의 경제발전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 기술도입과 기술개발을 통한 내포적 성장으로 바뀌면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3대 기술혁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집단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단순한 노동력의 투입 증대가 아니라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동력의 질 제고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체제전환 이후에는 북한 경제구조의 엄청난 변화로 인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특히 김정일 정권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대내외적 위기에 대한 절박한 대응의 하나였던 것이다.

제2절 김일성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북한의 군중노선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본격화되었다. 그 이전에도 천리마작업반운동과 같은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에서 정치사상운동이 결합되어 정치적 자극을 통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사상혁명을 선행시키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이 뒤따르도록 하여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3대혁명을 완수하도록 하였다. 김일성 정권에서 70년대 초부터 3대혁명 소조운동을 시작으로 시동을 건 다음, 1975년부터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전개하였다.

1. 전개과정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시발점이 된 3대혁명소조운동과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기점으로 김일성 정권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시기를 구분해 볼 수 있다.

(1) 3대혁명 소조운동

1973년 2월에 시작된 3대혁명 소조운동은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서의 특징보다는 군중노선에 의한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으로서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군중의 자발적인 혁명적 열의와 창의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경제적 자극과 정치적 자극을 결합시킨 대중운동의 방식인데 비해, 3대혁명 소조운동은 중앙당이 조직한 3대혁명소조를 경제와 사회의 각 부분에 파견하여 당이 직접 현장을 장악하고 지도하는 관리방식으로 군중노선에

의한 경제관리체계의 개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도 3대혁명 소조운동은 당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지도하기 위해 3대혁명소조를 조직하여 파견하고, 당이 직접 장악하고 지도하는 혁명운동이라고 확인하고 있다.[1] 이는 3대혁명 소조운동은 군중노선에 의한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당의 지도를 기본으로 하지만 어디까지나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자발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3대혁명소조운동은 당의 직접적인 지도와 3대혁명소조에 의한 직접적 생산현장의 개입으로 경제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3대혁명소조를 공장과 기업소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문에 파견하였다.

북한은 3대혁명 소조운동이 혁명적 군중노선에서 출발한 것으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2] 당이 직접 3대혁명소조를 통해 군중과 사업하는 방법이다. 당은 정부의 생산과 관리에서의 효율성을 낮게 평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3대혁명소조를 조직하여 사회의 모든 부문에 파견하여 생산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던 것이다. 군중노선에 따라 경제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부문의 관리체계를 당의 영도와 당 조직의 지도 아래 대중의 열의와 창의성을 획기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3대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3대혁명 소조운동을 시작하면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천리마운동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군중노선에 의한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을 제시하였던 것에 비하여,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군중노선에 의한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인 3대혁명 소조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뒤따르는 모양새가

1) 김창성,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영도밑에 진행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 67.
2) 김일성,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공업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1975년 3월 3일),” p. 436.

되었던 것이다. 북한은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1973년 초에 구상하고[3] 1975년 11월 시작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3대혁명 소조운동이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하겠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3대혁명 소조운동이 시작된 지 2년 후인 1975년 7월 1일 검덕광산 현지지도와 1975년 11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발기를 거쳐 1975년 12월 1일 검덕광산 노동자들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궐기모임으로 김일성 정권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4]

(2)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1975년 시작된 지 11년 만에 개최된 1986년 11월의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는 김일성 정권 기간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구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개최를 계기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

---

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1975년 2월 18일. 동 회의(1975.2.11.~17)는 1973년 2월에 3대혁명소조사업을 시작되어 3대혁명소조를 여러 부문에 파견하였다고 한다; 김일성, "공업부문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공업부문 3대혁명소조원들을 위한 강습에서 한 연설(1972년 2월 10일)," 『3대혁명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336-358; 김창성,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 16. "(전략) 1973년 초에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시면서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려나갈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중략)《앞으로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4) 손종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여," 『천리마』, 제11호(2006), p. 9. "(전략)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을 기본으로 하는 대중운동만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가장 완성된 대중운동으로 될수 있다고 보시고 주체64(1975)년 11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시였다."; 장성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현명한 령도," 『사회과학원학보』, 제3호(2008), p. 58.

동을 전개한 결과, 1975년 11월부터 1986년 11월까지 3대혁명 붉은기 칭호는 2,170여개 단위가, 2중 3대혁명 붉은기 칭호는 11개 단위가 받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5]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출발하였다. 1970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5차 당 대회는 개정된 당 규약 전문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당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명문화하였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규정하여 추상화하였다. 또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당사업의 기초로 삼고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도록 하였다.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사회를 혁명화하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6] 제5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고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서 정치사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이 결합된 혁명적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여 모든 군중을 유일사상체계로 교양하여 혁명화하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한편, 전국적 범위에서의 당면목적이 이전의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과업의 수행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으로 달라졌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지도사상과 관련하여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도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7] 김일성 정권

5)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남기동지의 보고," 1986년 11월 19일.

6) 1970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5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 참조.

7) 국토통일원, 『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3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623.

의 나머지 기간 동안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은 항상 정치사상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과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구사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북한에서의 주체사상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북한의 혁명과 건설을 하자는 인식에서 등장한 것으로, 당원과 핵심계층, 기본계층만으로는 안되고 광범위한 군중에 대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자는데 그 본질이 있었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공식적으로 전개되기 직전인 1974년 4월에 김일성 정권은 주체사상을 체계화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제시하였다.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첫 번째로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수령에 대한 충성, 권위의 절대화, 교시의 신조화, 교시 집행의 무조건성의 원칙, 사상 통일과 단결 강화,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 정치적 자각과 기술을 통한 충성, 수령의 유일적 영도와 전당·전국·전국의 강한 조직 규율 확립, 혁명위업의 계승과 완성할 것을 요구하였다.[8]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넘어서는 북한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유일사상이 되었고,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방편으로 사상정치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다. 1973년 2월에 시작된 3대혁명 소조운동은 '유일사상 10대원칙'을 사업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사상혁명이 선도하는 3대혁명을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 전개하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나타나게 된 근원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의 제시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유일사상 10대원칙'의 마

8) 정교진, "북한 주체사상의 기독교적 신앙체계에 관한 연구," 『복음과 선교』, 제38집 (2017), pp. 284-285.

지막 항목은 혁명위업의 계승과 완성을 요구하고 있어 후계체계의 구축을 통해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주체사상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강화되고 지속되는 핵심적인 정치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6년 7월에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를 통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9]이 등장하였다. 이 담화에서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을 지닌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된다고 하여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탄생하고 영속한다고 주장하였다.[10]

1986년 11월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즈음하여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이다."라고 강조하였다.[11] 이는 3대혁명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전 기간에 걸쳐서 견지해야할 전략적 노선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전 기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주체사상화를 위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986년 11월 열린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우리 당이 발기하고 당의 지도밑에 조직전개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집단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대중적대진군운동이였던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킨 대중적 사상기술문화개조운동이며 온 사회를 주체

9) 김동근, "주체사상의 정당화 근거로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대한정치학회보』, 제14집 제2호(2006), pp. 405-424.
10) 주봉호,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 담론," 『대한정치학회보』, 제9집 제2호(2001), p. 296.
11) 로동신문 사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력사적인 대회," 『로동신문』, 1986년 11월 18일.

사상화할데 대한 투쟁구호를 제기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우리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 높은 형태의 전인민적대중운동이다.[12)]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천리마운동보다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심화발전이라고 표현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정치사상운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당의 지도 아래 군중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상혁명을 우선으로 하고 있었다. 사상혁명을 통해 집단주의에 기초한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을 목표로 모든 군중이 참가하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라는 것이다.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북한 군중노선의 특질인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 즉 사상전과 속도전의 결합을 원칙으로 하되 주체사상에 의한 사상혁명을 우선으로 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추진해 나가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사회주의 공업화 단계 및 사회주의 완전승리 단계에서 전개되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속도전, 사상전의 원칙을 구현하여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새로운 대중적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높은 형태의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며 공업화가 완성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선 새로운

12)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개막,” 『로동신문』, 1986년 11월 19일.

현실적요구를 반영한 높은 형태의 대중적기술개조운동이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건설이 일정에 오른 혁명발전단계에서 벌어지는 높은 형태의 대중적문화개조운동입니다.[13]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지도사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는데, 1980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6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 전문에서는 당은 오직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하여 주체사상이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자본주의사상과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등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한다고 규정하였다. 최종목적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제시하였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포함하여 모든 부문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천리마운동과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3대혁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하도록 하고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과 함께 제시하였다.[14]

제6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기존의 천리마운동에 3대혁명을 추가함으로써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서 천리마운동과 동일한 위상으로 격상된 것이었다. 또 다른 특징은 유일무이한 지도사상으로 주체사상을 제시하면서, 당 사업방법에서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청산리방법보다 먼저 제시하여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최종목적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추가하여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표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주체

---

13)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남기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1986년 11월 19일.

14) 1980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제6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 참조.

사상은 지도사상일 뿐만 아니라 최종목적으로 격상되었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주체사상이라는 지도사상에 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의 기본원칙에 따라 항일유격대식 방법으로 사상혁명을 선행시키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중심으로 하면서 생산경쟁운동을 한층 더 강력하게 추진하게 하였다.

2. 결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어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기점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할 때 후반기에 성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 김일성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기간에 생산경쟁운동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정치사상적 측면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시작된 1975년 11월부터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가 열린 1986년 11월까지 11년 동안에 연평균 200여 단위가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았다. 이는 김일성 정권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후반기라 할 수 있는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이후 제2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가 열린 1995년 11월까지 10년간 연평균 973개 단위가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았던 것과 대비된다.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5배 정도가 많은 단위가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1988년 2월에는 23만여개의 단위가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 궐기하고 3,350여개의 단위가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때보다 1,180개 단위가 증가한 수치이다. 1년 3개월 만에 무려 1,200여개에 달하는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수여단위가 증가하였던 것이다. 그 가운데에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 및 학교 190여개, 직장과 학부 360여개, 작업반, 강좌 및 학급 2,150여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51개 단위는 2중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았다.[15]

1989년 2월에는 3대혁명 붉은기 칭호는 4,569여개 단위, 2중 3대혁명 붉은기 칭호는 82개 단위가 받았다.[16]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19개 단위가 늘어난 수치이다. 1990년 2월에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시작하고 15년 동안에 3대혁명 붉은기 칭호는 5,114개 단위, 2중 3대혁명 붉은기 칭호는 175개 단위가 받았다고 발표하고 있어 전년도에 비해 545개 단위가 늘어났다.[17] 이로 미루어보면 김일성 정권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수여단위가 보여주듯이 상당한 효용성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에도 1990년 11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15돌 기념 중앙보고회 보고는 3대혁명 붉은기 칭호는 5,736개 단위, 2중 3대혁명 붉은기 칭호는 249개 단위, 3대혁명 기수는 45만 9,530여명이 받았다고 발표하고 있다.[18] 이밖에 함경남도의 경우 1990년 10월말 현재 3대혁명 붉은기 칭호는 390여개 단위, 2중 3대혁명 붉은기 칭호는 21개 단위가 받았다.[19]

---

15)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자랑찬 성과: 전국적으로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 51개,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 3,350개,” 『로동신문』, 1988년 2월 10일.

16)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거대한 생활력: 전국적으로 2중3대혁명붉은기를 82개 단위, 3대혁명붉은기를 4천 560여개 단위가 쟁취,” 『로동신문』, 1989년 2월 15일.

17)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거대한 생활력: 근 5,300개 단위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 쟁취,” 『로동신문』, 1990년 2월 15일.

18)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키자: 중앙보고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1990년 11월 19일.

아래【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년 11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처음 시작한 때로부터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기간에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수여받은 단위는 1988년 2월 3,350개로 나타났다. 대략 12여 년 동안 매년 280여 개에 달하는 수치이다.

김일성 사망 직후에 개최된 1995년 11월 제2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에서 나온 자료는 1986년 11월부터 1995년 11월까지 10년간 9,730여 단위가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수여받았다. 이는 매년 973개씩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은 것이 된다.

김일성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기간에도 초기보다는 후기에 3대혁명붉은기 칭호를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서 일상화되고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1】 김일성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수여단위 숫자

(단위: 개, 명)

구분 / 연도	3대혁명 붉은기	2중 3대혁명 붉은기	3중 3대혁명 붉은기	3대혁명 기수
1986.11	2,170	11	-	-
1988.2	3,350	51	-	-
*1995.11	9,730	877	6	-

* 출처 : 『로동신문』, 1986년 11월 19일, 1988년 2월 10일, 1995년 11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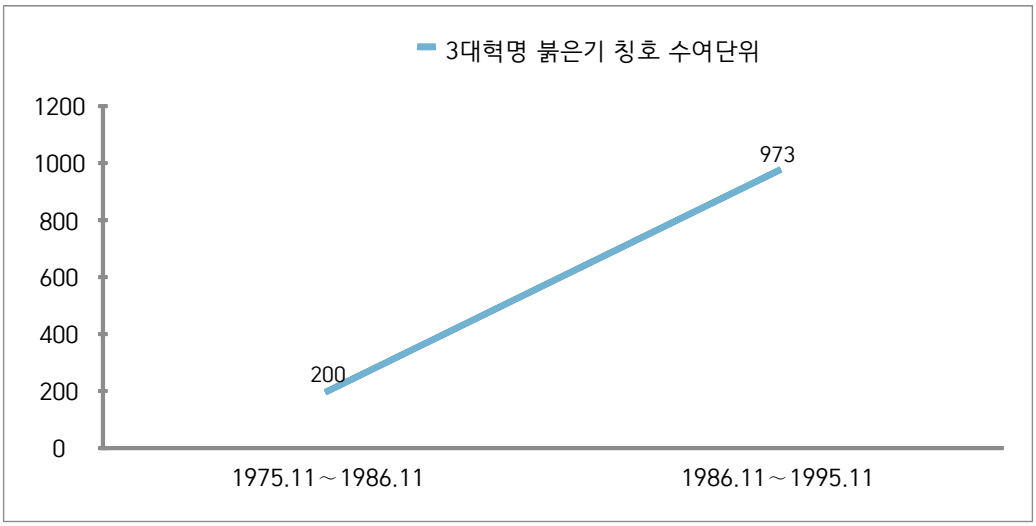
* *표는 1986년 11월에서 1995년 11월말까지의 10년 동안 수여단위 숫자

19)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위대한 생활력, 자랑찬 성과, 390여개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 또는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 함경남도에서,” 『로동신문』, 1990년 11월 16일.

아래 【그림 4-2】에서 보는 것처럼 김일성 정권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전후하여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수여단위는 연평균 거의 5배에 가까운 수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기간에 생산경쟁운동의 효용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비해,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효용성은 높아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좌라고 하겠다.

【그림 4-2】 김일성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연평균 수여단위 증가 추이

(단위: 개, 연평균)



(2) 경제적 측면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기간에도 6개년계획(1971~1976),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이 연이어 수립되고 실행되었다. 경제발전이 지체되는 가운데 완충기를 거치지만 중장기 경제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수립되고 실행되었던 것이다.

이 기간에 북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계획이 목표한 성장률과 실제 달성한 성장률이 다 같이 하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표 성장률은 각각 14.6%, 12.1%, 10%였던데 비하여 실제 성장률은 각각 16.3%, 12.2%, 5.6%로 낮아졌다. 사회주의 공업화가 달성된 단계에서 외연적 성장의 한계를 기술혁명을 통한 내포적 성장으로 돌파하려고 하였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이전에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추진하면서도 생산경쟁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에 따른 경제실적은 197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 회의의 6개년계획(1971～1976) 수행총화에서 공업 총생산액은 2.5배, 생산수단 생산액은 2.6배, 소비재 생산액은 2.4배, 연평균 공업생산 증가율은 16.3%를 달성한 것으로 발표되었다.[20]

【표 4-2】 북한의 6개년계획(1971～1976)의 목표와 실적 비교

(단위: 배, %)

구 분 / 생 산	목표	실적
공업 총생산액	2.2	2.5
생산수단 생산액	2.3	2.6
소비재 생산액	2.0	2.4
연평균 성장률	14.6	16.3

* 출처 : 국토통일원,『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3집』(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 p. 118.『로동신문』, 1980년 10월 11일.

위의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1970년대 초중반에 정치사상

20) "6개년계획 수행총화와 인민경제발전 제2차 7개년(1978～1984)계획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한 정무원 총리 리종옥동지의 보고,"『로동신문』, 1977년 12월 17일.

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시작하지만 생산경쟁운동으로 기술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기간에 진행된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의 실적은 1987년 4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2차 회의에서 보고되었다. 공업 총생산액은 2.2배, 생산수단 생산액은 2.2배, 소비재 생산액은 2.1배, 연평균 공업생산 증가율은 12.2%를 달성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21] 대체로 목표와 실적이 거의 일치할 정도로 달성하였던 것이지만,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실적이었다.

【표 4-3】 북한의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의 목표와 실적 비교

(단위: 배, %)

구 분 / 생 산	목표	실적
공업 총생산액	2.2	2.2
생산수단 생산액	2.2	2.2
소비재 생산액	2.1	2.1
연평균 성장률	12.1	12.2

* 출처 :『로동신문』, 1977년 12월 17일, 1987년 4월 24일.

사상혁명이 선도하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강력한 추진하여 기술혁명을 이룩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의 실적이 저조하자 1986년까지 완충기를 가지게 된다. 완충기간에 김일성 정권은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개최하였고,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

21) 국토통일원, 『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4집』(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 pp. 804-805.

운동을 강화하면서 생산경쟁운동도 동시에 강력하게 전개하도록 하였다.

한편, 1980년 10월 개최된 제6차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결보고는 3대혁명노선을 구현하기 위한 군중노선에 의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추진하여 6개년계획(1971～1976)의 공업총생산액을 1년 4개월 앞당겨 완수하였고,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도 빠르게 추진하여 3년분 과제를 1980년 9월말까지 완수하였다고 자체적으로 실적을 평가하기도 하였다.[22]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이 끝나고 완충기간에 개최된 1986년 11월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생산경쟁운동으로서의 성격에 대해 "3대혁명기수들과 근로자들은 기술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경험주의 등 기술혁신을 저애하는 낡은 사상 잔재를 불사르면서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벌어진 지난 10여년동안에만 하여도 수많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발명, 합리화안들이 제기되였으며 그것이 생산에 도입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23]라고 하여 생산경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이후 추진된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의 실적은 목표에 상당히 미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래【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일성 정권은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 기간에 공업 총생산액은 1.5배 증가하고, 연평균 공업생산 증가율은 5.6%에 이른다고만 발표하였을 뿐이다.[24]

---

22)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김일성," 『로동신문』, 1980년 10월 11일.

23)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남기동지의 보고," 1986년 11월 19일.

24) "제3차 7개년(1987～1993)계획 수행정행에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 『로동신문』, 1993년 12월 9일.

【표 4-4】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의 목표와 실적 비교

(단위: 배, %)

구 분 / 생 산	목표	실적
공업 총생산액	1.9	1.5
생산수단 생산액	1.9	-
소비재 생산액	1.8	-
연평균 성장률	10	5.6

* 출처 :『로동신문』, 1987년 4월 24일, 1993년 12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2차 회의에서 보고한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의 목표와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보고한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총화의 실적을 비교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생산경쟁운동을 추진한 결과는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인한 외부적 요인과 사상혁명이 선도하는 기술혁명을 통한 내포적 성장의 한계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김일성 정권은 1993년 12월 8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소련과 동구권국가의 사회주의 좌절과 사회주의시장의 붕괴로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이 당초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지금까지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대내외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군중들과 공유하고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표 4-5】와【그림 4-3】은 김일성 정권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 기간에 달성한 경제 실적을 비교한 것이다.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전반기인 6개년계획(1971~1976) 기간에 연평균 성장률은 16.3%이었는데 비하여,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개최하기 직전인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 기간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12.2%로 낮아졌다.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기간의 후반에 추진된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 기

간에는 목표치인 10%에 훨씬 미달하는 5.6%를 달성하였다..

【표 4-5】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기간의 생산경쟁운동의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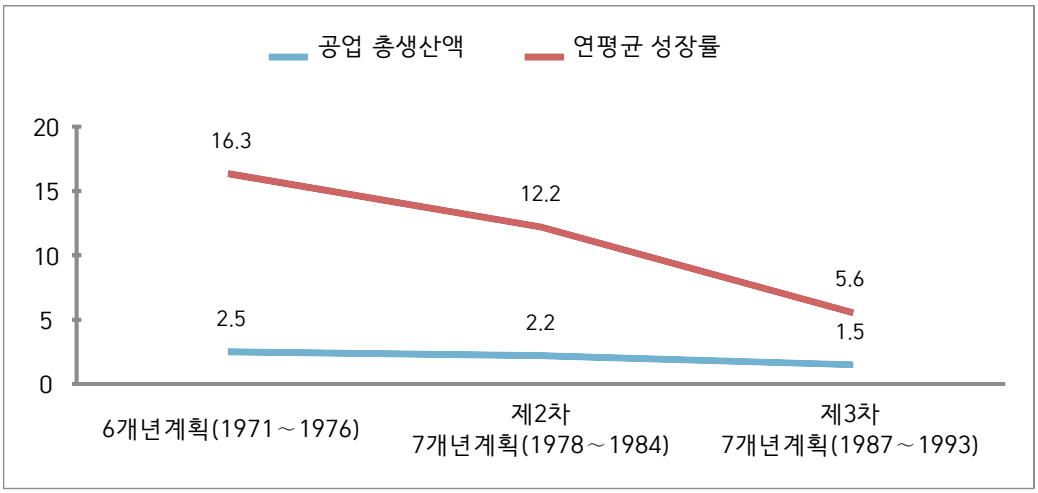
(단위: 배, %)

구 분 / 생 산	6개년계획 (1971~1976)	제2차 7개년계획 (1978~1984)	제3차 7개년계획 (1987~1993)
공업 총생산액	2.5(2.2)	2.2(2.2)	1.5(1.9)
생산수단 생산액	2.6(2.3)	2.2(2.2)	-
소비재 생산액	2.4(2.0)	2.1(2.1)	-
연평균 성장률	16.3(14.6)	12.2(12.1)	5.6(10)

* 괄호 안은 계획 목표로 제시된 생산액과 성장률

【그림 4-3】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기간의 생산액과 성장률 추이

(단위: 배, %)



이러한 결과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의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에 체제전환으로 사회주의권 국제경제가 사라진데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한 측면도 컸다. 그러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사상혁명을 선행시키면서 기술혁명을 자극하는 방법이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생산경쟁운동으로서의 효용성이 낮아진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업총생산액에 있어서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전 기간에 걸쳐 계획목표가 큰 차이가 없이 제시되었고, 실적도 초기인 6개년계획(1971～1976) 기간에는 조금 상회하였다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변동이 작았던 것이 특징이다.

제3절 김정일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속에 1992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천리마운동을 대체하게 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김정일 정권에 들어와서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기틀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한 직후에 제2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개최하여 이전 기간의 실적을 결산하고, 체제위기와 경제위기 속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강도 높게 전개해 나가게 된다.

1. 전개과정

김정일 정권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1995년 제2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와 2006년 제3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기점으로 시기를 구분해 볼 수 있다.

(1) 제2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제2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는 1995년 11월에 열렸는데,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이후 10년 동안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총결산하고, 김일성 사망이후 3년간의 유훈통치 기간에 체제위기에 더하여 경제위기를 맞아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면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대회였다.

제2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는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에서 군중노선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언급

하였다.

> 우리 혁명의 력사적전환기에 열린 이번 대회는 일편단심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고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려는 전체 3대혁명기수들과 근로자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심화시키는데서 새로운 력사적계기를 마련하는 충성의 대회, 진군의 대회이다.[25]

역사적 전환기에 제2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가 열리게 된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체제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는 김정일 정권의 위기의식의 발로였다. 이러한 초유의 정치적·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된 방식으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강화된 방식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 대한 축하문의 언급을 직접 옮겨 보면 아래와 같다.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는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우리 당을 굳게 믿고 따르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 주된 힘을 넣어야 한다.[26]

그동안에도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

2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제2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로동신문』, 1995년 11월 30일.
2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제2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로동신문』, 1995년 11월 30일.

은 사상혁명이 선도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강화된 사상혁명을 추진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것을 참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라고 명명하고 있다. 김일성 정권에서 공산주의형의 새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사상혁명의 주요 과업이었다면, 김정일 정권에서는 단순한 공산주의형의 인간개조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에도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상혁명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에 주안점을 두고 전개하여 주체사상 교양, 집단주의 교양과 충실성 교양, 당정책 교양과 혁명전통 교양, 계급 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과 사회주의도덕 교양을 강화하게 되었다.[27]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제2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는 계급의식의 강화와 함께 외부사상의 침투를 경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보고하고 있다.

> 3대혁명기수들과 근로자들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나 로동계급적 관점과 립장을 지키며 착취제도와 제국주의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며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요소도 우리 내부에 절대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28]

---

2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제2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로동신문』, 1995년 11월 30일.

28)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나가자: 제2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1995년 11월 30일.

김정일 정권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주체사상을 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제수호를 위해 외부사상 침투를 차단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추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1992년 개정 헌법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규정되었고,[29] 1972년 사회주의 헌법과는 달리 계급노선과 같은 조항에 담았던 군중노선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였다.[30] 이는 사회주의권이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계급노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혁명적 군중노선과는 약간 결이 다르게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군중노선의 의한 대중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지도사상으로 1998년 개정 헌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제외되었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이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되었다. 1998년은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목표로 제시한 해이기도 하였다. 강성대국건설은 사상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필두로 군사강국을 건설하고 경제강국을 건설해 나간다는 것이었다.[31]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헌법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32] 강성대국건설을 위해서는 비상

29) 1992년 북한 개정헌법은 제14조를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 다그친다."로 수정하고, 제13조도 "국가는 군중노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라고 수정하고 있다.

30) 1972년 사회주의헌법은 제10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제12조에 "국가는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히 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3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다. 국가는 천리마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1) 로동신문 정론,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주체적인 강성대국건설방식이다."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 진행," 『로동신문』, 1998년 9월 6일. 1998년 9월 5일 열린 동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국방위원회 위

한 조치가 필요하고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2003년부터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중심사상이 주체사상에 더하여 선군사상이 부상하게 된다.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온 사회를 선군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힘있는 무기"이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선군시대의 참다운 투사로 키우기 위한 대중적 사상개조운동"이라고 하여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임을 분명히 하였다.[33]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군사상의 지도 아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반드시 건설할 것을 역설하였던 것이다.[34]

한편,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 기간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생산경쟁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제2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는 축하문에서 그동안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원장 추대, 국가지도기관 선거가 있었다. 1998년 사회주의헌법 제6장 국가기구 제2절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휘통솔한다.(102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105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재홍, "북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2호(2008), p. 44, p. 47. 국방위원회는 후방의 주민대피호 건설 및 요새화 건설 명령 등 국가방위을 위한 방어능력 강화와 무기생산 등 국방공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내각과의 관계에서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서 내각의 국방관련 부서에 대한 조직지도기능을 넘어 사실상 내각 전체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지도하는 국가최고지도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박진우, "2009년 개정 북한헌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16권 3호(2010), p. 867, p. 871. 1992년 북한 헌법은 종전의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의 부문별 위원회이던 국방위원회를 최고인민회의가 직접 구성하는 독립기관으로 지위를 격상시키고 있다. 2009년 북한 헌법은 제6장 국가기구 제2절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의 지도원리로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추가(제4조)하고 주권보유자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에 군인을 추가(제4)하고 있다.

33) 김일룡,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추동력," 『로동신문』, 2003년 11월 23일.

34) 장성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현명한 령도," 『사회과학원학보』, 제3호(2008), p. 58.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의 3대혁명기수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3대혁명기수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집체적 지혜와 힘을 합쳐 현대적인 기계와 기술장비들을 수많이 만들어내고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 로봇화, 전자계산기화를 다그쳤으며 농촌경리부문에서 종합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여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35]

또한 이러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축하문은 향후 생산경쟁운동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대혁명기수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자기앞에 나서는 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책임적으로 풀고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생활에 절실히 요구되는 원료와 연료, 동력을 극력 아끼고 절약하며 내부예비와 우리 나라 자원에 의거하여 경제와 기술을 발전시키고 농업의 공업화를 적극 다그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더욱 큰 혁신과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궐기한 모든 단위와 3대혁명기수들은 당면하여 당의 혁명적경제건설을 관철하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한가지이상의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우리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36]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기간에도 김정일 정권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3대혁명 기수와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군

3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제2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로동신문』, 1995년 11월 30일.
3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제2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로동신문』, 1995년 11월 30일.

중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자원의 절약, 국산화 노력, 기술 혁신, 농업의 공업화 등의 노력으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위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생산경쟁운동을 활발하게 펼칠 것을 요구하였다.

제2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보고도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현대적 기술을 갖춘 자립적 민족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 세계적 경제파동이나 경제봉쇄에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며, 당면하여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관철하여 대중적 기술혁신운동 등의 생산경쟁운동을 통해 석탄, 전력, 강철, 식량, 소비품 등의 생산을 높이도록 하였다.[37]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과 함께 생산경쟁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가운데, 2005년 6월 29일에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위력으로 선군혁명총진군을 다그치자" 제하의 노동신문 사설[38]을 통해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2) 제3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제3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는 제2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가 열린 지 11년 만인 2006년 2월에 개최되었다. 이에 앞서 2003년에는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에 더하여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지도사상으로 부각되고,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이 경제발전전략으로 본격화되고 있었다.

제3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는 축하문에서 선구자대회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37)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나가자: 제2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1995년 11월 30일.

38) 로동신문 사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력으로 선군혁명총진군을 다그치자," 『로동신문』, 2005년 6월 29일.

제3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는 주체사상의 기치,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과 의지를 과시하며 선군시대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의의깊은 대회이다.[39]

제3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는 선군사상이라는 지도사상에 따라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고 완성해 나가면서 선군시대 강성대국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제3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는데, 호소문에서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이 승리하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사상론의 기치따라 시종일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현시기 사상혁명에서 기본은 전체 인민을 백절불굴의 수령결사옹위투사로, 당의 선군사상과 로선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결사관철하는 혁명가로 억세게 준비시키는 것이다.[40]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사상혁명을 앞세워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로 체제와 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김정일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도 사상혁명을 선행시키고 있는데, 김일성 정권과 다른 특징은 실천이데올로기로 선군사상의 지도하에 정치

3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제3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로동신문』, 2006년 2월 24일.
40) 제3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로동신문』, 2006년 2월 24일.

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강화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제3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이후인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단행하였고,[41] 대내외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강화해 나갔다.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노작발표 20주년 기념보고에서 3대혁명은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 이며, 3대혁명노선은 '항구적으로 수행해야할 전략적 과업' 이라고 주장하였다.[42] 동 보고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을 준수하고 선군정치, 선군혁명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환되었으며 선군혁명 총진군을 위한 대중운동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43]

2009년 개정 헌법은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명시하였는데,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지도사상은 순수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과 함께 실천이데올로기로서의 선군사상을 포함하게 되었음을 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2010년 9월에 열린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은 주체사상을 유일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고, 당면목적으로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고,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표방하였다.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견지하며 3대혁명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노선으로 하여 광범위한 군중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조직 동원하도록 하였다.[44] 비록 선군사상이 노동당 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천이데올로기로서 정치

---

41) 김주삼, "핵실험 이후 북한의 내부체제결속과 북미관계의 변화," 『통일문제연구』, 제21권 제2호(2006), pp. 137-157.

42) 최영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력으로 선군혁명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로동신문』, 2006년 11월 23일.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벌리자》 발표 20주년 기념보고.

43) 최영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력으로 선군혁명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로동신문』, 2006년 11월 23일. "(전략) 모든 공정에서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을 구현해나가도록 하심으로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우리 당의 선군정치,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대중운동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하시였습니다."

44)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 참조.

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에서 지도사상으로 작동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한편, 제3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 기간에도 그동안 생산경쟁운동을 펼친 결과로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총평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중시노선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21세기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건설하자고 하였다.[45]

> 21세기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혁명은 경제강국건설의 관건적 고리이다. 과학기술혁명의 당면과업은 첨단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그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침으로써 가까운 년간에 경제전반을 흥하게 하고 인민들이 우리 경제토대의 덕을 실질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46]

김정일 정권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혁명으로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으며, 이러한 과학기술발전은 경제의 현대화와 정보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만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1998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47] 이후 일련의 과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강국 건설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제3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보고는 군중노선에 따라 혁명과 건설을 군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본질이라고 하였다.[48] 또한 현대과학기술의 정수인 광명성 1호의 사례를 들면서

---

4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제3차 3대혁명붉은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로동신문』, 2006년 2월 24일.

46) 제3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로동신문』, 2006년 2월 25일.

47)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우리 나라에서 첫 인공지구위성 성과적으로 발사,” 『로동신문』, 1998년 9월 5일.

48) 최태복,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3대혁명붉은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해나가자,” 『로동신문』, 2006년 2월 24일. “혁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3대혁명기수들이라고 하여 3대혁명 기수들이 생산경쟁운동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현대과학기술의 정수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우리의 힘과 기술, 자재로 훌륭히 제작완성한 것을 비롯하여 최첨단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고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은 누구나 (중략) 선군시대의 미더운 3대혁명기수들입니다.[49]

제3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보고는 선군시대에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하고 군력강화를 선군정치의 기본으로 하면서 국방공업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하에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추진하였다고 한다.[50]

> 군사를 제일국사로, 군력강화를 선군정치의 기본으로 규정하시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철두철미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조직진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려나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군사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 보장하는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며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적극 발휘하였습니다.
>
> 당조직들에서는 선군혁명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확

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원리와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개조사업과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는 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근본적특징이며 본질적우월성입니다."

49) 최태복,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3대혁명붉은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해나가자," 『로동신문』, 2006년 2월 24일.

50) 최태복,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3대혁명붉은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해나가자," 『로동신문』, 2006년 2월 24일.

고히 세우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철두철미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조직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제3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는 결국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에서 국방건설 최우선이라는 제약 속에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 기간에도 생산경쟁운동으로 활발하게 전개하여 경제 발전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목표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을 관철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51] 김정일 정권에서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에 따라 국방공업 위주로 하는 경제의 생산 증대를 위한 대중적 기술개조운동이라는 생산경쟁운동이 중요시 되었고 활발하게 추진되었다.[52]

김정일 정권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정치사상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토대로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에 따라 군사강국을 먼저 건설하고 경제강국 건설을 해나가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2. 결과

김정일 정권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체제위기와 경제위기가 겹치는 어려움 속에서 정치사상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냈던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실적은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수여받은 단위의 숫자의 증감을 통해 상대적이지만 비교하고 평가해 볼 수는 있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추진하는 기간에도 생산경쟁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생산경쟁운동의 실적은 이 기간에 북

51) 김인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위대한 추동력," 『교원선전수첩』, 1호(2009), p. 39.
52) 김인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위대한 추동력," p. 39.

한이 경제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지 않고 있고, 경제실적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이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미흡하나마 간접적으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1) 정치사상적 측면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추진한 결과, 김정일 정권 기간인 1995년 11월 제2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개최한 때로부터 2006년 2월 제3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개최한 기간 동안에 10,116개 단위가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았다. 이 기간에 매년 평균 987개 단위가 3대혁명 붉은기를 받은 셈이다. 2003년의 경우에는 914개 단위가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았다고 발표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매년 960여개 단위가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았다.

아래【표 4-6】과【그림 4-4】에서 알 수 있듯이 김정일 정권에 들어와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체제 수호와 정권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였다.

특히 김일성 정권 기간에 연평균 595개 단위가 3대혁명 붉은기를 받고 있었는데 비해, 김정일 정권 기간에 연평균 1천여 개에 가까운 단위가 3대혁명 붉은기를 받았다는 것은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무엇보다도 정권의 많은 관심과 집중적인 노력 속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4-6】 김정일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연평균 수여단위 숫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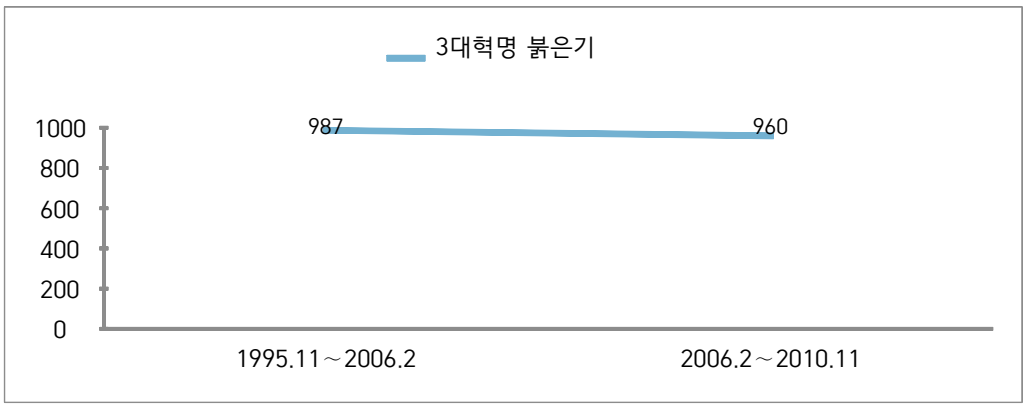
(단위: 개, 연평균)

구분 / 연도	3대혁명 붉은기
1995.11~2006.2	987
2006.2~2010.11	960

2006년 2월 제3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전후해서도 연평균 3대혁명 붉은기 수여단위의 숫자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도 김정일 정권의 전 기간에 걸쳐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4-4】 김정일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연평균 수여단위 추이

(단위: 개, 연평균)



김정일 정권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정치사상적 측면에서의 실적이 컸다는 것은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나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우선 정치사상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권의 교체는 노선과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북한의 경우와 같이 세습에 의한 권력 승계는

노선과 정책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었다. 정권의 교체에 따른 변화요인보다는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가 노선과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체제전환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1994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 정권에 들어와서 계속되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 속에 북한은 1994년 11월 25일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유훈통치를 강조하면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계승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였다.[53] 여기에서 북한은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사상개조사업과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 혁신운동의 결합"으로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전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이전의 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체제붕괴의 위기였다. 김정일 정권이 시작되면서 고난의 행군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었는데, 1996년 1월 공동사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등장한 고난의 행군은 1998년 강성대국건설을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극복하였으나 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북한은 1995년 11월 제2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개최하고 당 중앙위원회 명의의 축하문에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유일사상교양 등을 통해 사회정치적 생명체, 일심단결의 결정체가 되었다고 선언하였다.[54]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강화하여 체제위기와 정권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김정일 정권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활성화되었던 것은 과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53) 로동신문 사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자," 『로동신문』, 1994년 11월 25일.
5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제2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로동신문』, 1995년 11월 30일.

이전과 같은 수준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는 난관을 돌파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난관을 돌파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1998년에는 헌법을 개정[55]하여 국방위원장의 권한이 확대되어 국방위원장이 명실상부한 최고권력기관으로 격상되고 선군정치가 시작되었다.[56] 군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워 군의 모범을 사회 전 부문에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김정일 정권에서 선군정치가 시작된 것은 1995년 다박솔 초소 현지지도였으며, 선군사상은 2003년 공동사설에서 등장하였다.[57] 주체사상이 핵심 통치이데올로기로서 북한 정치체제의 규범적 지침이자 지도적 강령으로 기능해 왔지만, 정치적·경제적 위기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체제는 생존위기에 봉착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은 주체사상의 실천적 기능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을 기점으로 실천이데올로기로서의 선군사상이 중심적인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58]

2000년 1월 신년공동사설은 1999년을 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 역사적인 연도였으며, 2000년은 강성대국건설을 향한 총진격의 해로 선언하였다. 사상, 총대, 과학기술은 강성대국건설의 3대기둥으로 삼고 사상중시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근본이라고 강조하면서[59]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김정일 정권은 2005년 들어와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심화시키는 것

---

55) 1998년 개정헌법은 1992년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명시한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제12조)"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은 "국가는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제12조)"와는 차이가 있다.

56) 김창희, "김정일 체제와 '선군정치'의 함의와 평가,"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1호(2008), p. 102. 선군정치라는 용어는 1997년 12월 12일 로동신문에 처음 등장한 후 1998년 5월 27일 평양방송 정론에 언급되고 있다.

57) 양무진,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가능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제3호(2008), pp. 62-81.

58) 부승찬,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상관관계," 『사회과학연구』, 제19집 제2호(2011), pp. 113-116.

59)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사설,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00년 1월 1일.

은 선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사상혁명에서 주체사상을 내세우던 것을 선군사상으로 바꾸었던 것이다.[60]

이러한 사상혁명에서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을 사실상 대신하게 된 것은 체제위기와 정권위기 속에서 추진된 김정일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이전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과 구별되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에서의 중요한 차이점이었다.

김정일 정권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실적이 높았던 것은 체제위기와 정권 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수여받은 공장, 직장, 작업반 등의 단위에는 공로자들에게 훈장과 메달을 수여하고 명승지와 평양 등의 견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를 높이고, 입당 기회나 승진과 영전의 기회를 줌으로써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61]

(2) 경제적 측면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전개된 김정일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기간에 생산경쟁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북한이 경제계획 목표를 제시하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북한의 자료로는 실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부득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김정일 정권 기간의 경제성장률과 공

60) 로동신문 사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력으로 선군혁명총진군을 다그치자,” 『로동신문』, 2005년 6월 29일.

61) 북한이탈주민 주○○(48세, 평양거주, 2019년 입국)은 김정일 정권 기간에 본인이 북한에서 근무하던 생산단위에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벌려 3중 3대혁명붉은기 칭호를 받았고, 그 중에 일부가 3중 3대혁명붉은기 메달을 받았는데 이는 국기훈장 3급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발기는 당비서의 주도로 진행되었는데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으면 능력있는 당비서로 인정받아 중앙당과 내각에 진출할 수 있어 정치적 신임이 가장 큰 혜택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일반 근로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는 상황이었으며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하는데 있어 조건도 안 대주고 자체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판정 준비와 과업 수행에 있어 자체로 비용을 조달하는 형편이었다고 한다.

업(제조업) GDP 성장률로 생산경쟁운동의 결과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고자 한다.

아래【표 4-7】과【그림 4-5】는 김정일 정권에서 북한의 공업(제조업), 중화학공업, 경공업의 GDP 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이 추계한 자료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김정일 정권 18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0.13% 정도이며, 정권 초기와 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북한 공업(제조업)부문의 GDP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졌다. 1998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북한 공업(제조업)부문의 GDP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다.

1997년의 경우에는 공업(제조업)의 GDP 성장률은 -18.3%, 경공업은 -14.2%, 중화학공업은 -20.3%까지 떨어졌는데, 고난의 행군이 막바지를 치닫고 있던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1999년도에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1998년 강성대국 건설을 천명하고 속도전에 의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제2의 천리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던 효과로 보인다. 그동안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경제성장률은 6.2%, 공업(제조업)의 GDP 성장률은 7.9%, 경공업은 2.9%, 중화학공업은 10.4%까지 올라갔다.

1995년 11월 제2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개최하여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정치적 자극을 통한 생산경쟁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권 국제시장의 상실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난으로 경제성장률과 공업(제조업)부문의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했던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강화를 통한 강성대국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정일 정권은 2002년에 군중노선에 의한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인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내놓았다. 이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보완하는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한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나선 것이었다.

한편, 2003년 4월 11일에 나온 조선신보 보도에 따르면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은 2002년 9월에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 건설의 우선순위가 국방공업으로 이동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은 2003년 8월 28일 당·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인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62]에서 공식화되었다.

2003년 1월 22일 '국방공업중시는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중요 요구' 제하의 노동신문 논설에서 국방공업을 중시하는 것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정당한 노선이며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63]

이러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해서는 사상강국과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건설해야 하는데 사상강국과 정치강국 및 군사강국을 먼저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의 주장처럼 장기적으로는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강국 건설에 부담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2월 제3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개최하고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강화하고 있었지만, 2005년에 비해 공업(제조업) 부문의 GDP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 기간에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기간에 생산경쟁운동의 실적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좌라고 할 수 있다.

【표 4-7】 김정일 정권(1994~2011)의 경제성장률과 북한 공업(제조업) GDP 성장률

(단위: %)

62) 김정일, 『김정일 선집 2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p. 1-18.
63) "국방공업중시는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중요요구," 『로동신문』, 2003년 1월 22일. "오늘 우리 당은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돌리는것을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고 있다. 국방공업을 중시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을 더욱 힘 있게 다그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로선이다."

구분 / 연도	공업(제조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경제성장률
1994	−3.9	0.1	−5.5	−2.1
1995	−5.3	−5.0	−5.4	−4.4
1996	−8.0	−5.8	−9.0	−3.4
1997	−18.3	−14.2	−20.3	−6.5
1998	−2.6	0.2	−4.2	−0.9
1999	7.9	2.9	10.4	6.2
2000	1.4	6.3	−1.0	0.4
2001	3.2	2.3	3.7	3.8
2002	−1.5	2.7	−3.9	1.2
2003	2.7	2.7	2.8	1.8
2004	0.3	−0.2	0.6	2.1
2005	4.8	3.8	5.4	3.8
2006	0.4	−0.6	1.0	−1.0
2007	0.7	−2.2	2.2	−1.2
2008	2.6	1.3	3.2	3.1
2009	−3.0	−2.1	−3.5	−0.9
2010	−0.3	−1.4	0.1	−0.5
2011	−3.0	−0.1	−4.2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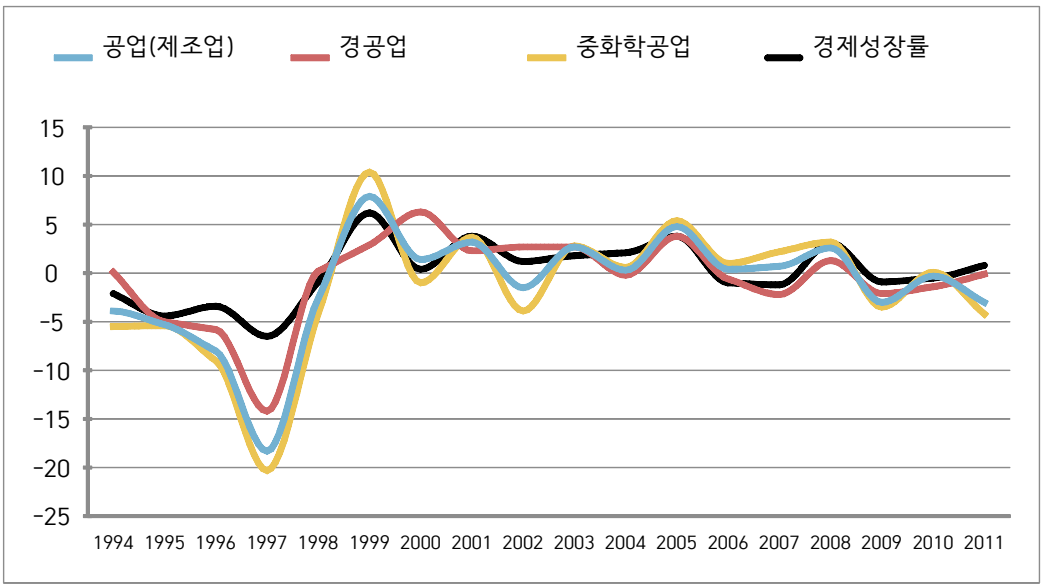
* 출처 : 한국은행(http://www.bok.or.kr), 한은DB/북한경제자료/북한GDP통계(검색일: 2019. 10. 12).

아래【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정일 정권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 기간에 달성한 경제 실적은 고난의 행군 기간을 제외하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00년 이후부터는 경제성장률과 공업(제조업)부문의 GDP 성

장률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지만 등락의 폭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사상혁명을 앞세워 정치적 자극으로 생산경쟁운동을 활성화시켜 경제 실적을 높이려는 노력은 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5】 김정일 정권의(1994~2011) 경제성장률과 공업(제조업)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 출처 : 한국은행(http://www.bok.or.kr), 한은DB/북한경제자료/북한GDP통계(검색일: 2019. 10. 12).

김정일 정권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경제 실적이 그다지 높지 못한 데에는 경제적 보상이나 혜택이 거의 없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성격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실적을 내더라도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경제적 혜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입당과 승진 등 정치적 야망이 있는 간부와 열성분자를 제외

한 근로자들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은 발휘하는 것은 차치하고, 또 난리를 치는구나 하는 생각 밖에 없다는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64]

64) 북한이탈주민 주○○(48세, 평양거주, 2019년 입국)의 증언.

제4절 김정은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압축적인 권력 승계 과정에서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보다는 전례를 답습하는 수준에서 지속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36년 만에 개최되는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제4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개최하여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정치적 자극을 통해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여 가시적인 실적을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 전개과정

김정은 정권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2015년 제4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기점으로 시기를 구분해 볼 수 있다.

(1) 제4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제4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는 2015년 11월에 열렸는데,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전개하고 사상혁명을 최우선으로 강화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모든 군중이 체화하도록 하였다.

선대의 유훈을 관철하고 혁명과 건설을 대를 이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군중들 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서 지도사상을 강화하는 것은 권력승계에 의해 장악한 정권을 단기간에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제4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김정은은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와 최후 승리를 앞당기자고 촉구하였다.[65] 그러면서 지금까지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사상개조나 생산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고 조건타령이나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사람들의 사상개조나 생산보다 꾸리기같은데 편중하는 현상들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단위들에서는 조건에 빙자하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지 않고 있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적 지도도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도식과 틀에 매달려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같은 편향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생활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66]

이는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산경쟁운동으로서도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언급이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40년 이상 지속되면서 형식주의와 패배주의 등의 폐해를 드러냈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을 적극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치적 자극을 우선하면서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여 생산경쟁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

65) 김정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로동신문』, 2015년 11월 21일.

66) 김정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로동신문』, 2015년 11월 21일.

제는 이러한 지적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정권도 우선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강화하는데서 출로를 찾았다.

제4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은 3대혁명수행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근본원칙입니다.
>
> 현시기 사상혁명수행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체질화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
>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은 사람들의 심장속에 혁명적수령관과 열렬한 조국애, 불굴의 신념과 투철한 계급의식, 고상한 도덕관을 억척같이 쪼아박는 사상의 정대, 마치와 같습니다.[67]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사상사업 선행의 원칙은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관철되어야 한 근본원칙이었다. 그러면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당원과 근로자와 군중이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에 투철하여야 하며, 그것도 백두의 혁명정신과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사상무장을 위해서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수행하는 모든 군중들을 교양해야 했는데, 사상혁명을 언제나 기술혁명과 문화혁명보다 선행시키고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로 교육시키기 위해 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67) 김정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로동신문』, 2015년 11월 21일.

제4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는 보고에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당의 독창적인 대중운동사상을 구현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라고 주장하였다.[68]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40여 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북한에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핵심적인 위상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제4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는 당 제7차 대회를 향한 총진군 속에서 열리고 있었다는 점은 또 하나의 분기점으로 작용하게 된다.[69]

2016년 5월에 열린 제7차 당 대회에서는 '사회주의강국 건설'이 제시되었는데,[70] 이는 2012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강성국가'로 표현하면서 유훈 관철을 강조하였고, 2014년 신년사부터는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던 것을 제7차 당 대회를 앞두고 노동신문 사설이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자강력 제일주의로 경제강국 건설과 과학기술강국 건설에 매진할 것을 군중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71]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통해 정치사상강국을 건설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통해 군사강국을 완성하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을 추진하여 경제강국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경재강국 건설과 사회주의강국 건설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피력하였다.[72]

---

68)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개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2015년 11월 21일.

69) "제4차 3대력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개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2015년 11월 21일.

70) 문장순, "김정은 시대의 군중노선," 『대한정치학회보』, 제26집 제4호(2018), p. 12.

71) 로동신문 사설, "당원들이 앞장에서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진군의 돌격로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16년 1월 29일.

72) 지원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점령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의 불길높이 힘차게 전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자력갱생대진군의 위력을 떨치며," 『로동신문』, 2017년 12월 10일.

김정은 정권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목표는 사회주의강국 건설이며, 지도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이고, 발전전략은 '경제·핵 병진노선'과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이었다.

한편, 김정은 정권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에서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이 달성되었다고 하면서 경제강국 건설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동안 경제강국 건설이 미진하였다는 현실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으나, 경제강국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자강력 제일주의와 자력갱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전 정권과 유사한 것으로 기본적인 한계로 작용하였다.

2019년 4월 9일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는 "당 및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대책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심각히 분석하시고 오늘의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여 간부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였다고 한다.[73]

이어서 다음날인 4월 10일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회의는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고,[74] 4월 12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는 시정연설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최고강령이며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라고 하여 지도사상으로서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75] 이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다.

한편, 동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 공화국앞에 나서고 있는 중심과업은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

7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로동신문』, 2019년 4월 10일.
7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19년 4월 11일.
75) "김정은,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로동신문』, 2019년 4월 13일.

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76]이라고 한 것은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기간에도 한편으로는 생산경쟁운동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는 '조성된 내대외 정세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논의하고,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혁명적 노선"으로 채택하였다.[77] 이러한 새로운 혁명적 전략적 노선인 정면 돌파전은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전이며, 정면 돌파전의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으로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당면과업이라고 하였다.

또한, 내각의 역할을 강조하여 내각사업이 당 중앙위원회 사업이고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 집행이 곧 내각사업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를 안정적으로 계획성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10대 전망목표'의 지표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78]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의 기본정신을 당원과 근로자들에게 체득시키고 "정치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그들 모두에게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뼈속 깊이 체질화한 자력자강의 투사, 참된 애국자로 준비시키며 자체실정에 맞는 자력갱생전략으로 증산투쟁과 현대화"를 밀고나가도록 하였다.[79]

이러한 정면돌파전은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군중노선에 대한 대중운동을 강력하게 펼치면서 생산경쟁운동도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으나, 북한은 명시적으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나 생산경

76) "김정은,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로동신문』, 2019년 4월 13일.
7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0년 1월 1일.
7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0년 1월 1일.
7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0년 1월 1일.

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만리마운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다만, '10대 전망목표'의 지표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속도전 방식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지속하면서 시기나 국면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속도전 방식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 결과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에서의 실적은 김정은 정권에서도 3대혁명 붉은기 수여단위의 숫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생산경쟁운동의 실적은 경제발전의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데, 김정은 정권 기간에도 중장기적인 경제계획은 수립되어 집행되지 않았다. 다만, 제7차 당 대회는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을 제시하였지만 목표로 경제전반의 활성화, 경제부문 간 균형 보장, 지속적인 경제발전 토대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80] 따라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 한계가 있지만 생산경쟁운동의 실적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1) 정치사상적 측면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추진한데 따른 실적으로는 2013년에 발표한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수여받은 단위의 숫자가 있다. 2013년도에 3대혁명 붉은기를 520여 단위가 받았고, 2중 3대혁명 붉은기는 150여 단위, 3중 3대혁명 붉은기는 17개 단

80)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정은,"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위가 받았다.[81)]

【표 4-8】 김정은 정권의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수여단위 숫자

(단위: 개, 명)

구분 / 연도	3대혁명 붉은기	2중 3대혁명 붉은기	3중 3대혁명 붉은기	3대혁명 기수
2013	520	150	17	-

* 출처 : 『로동신문』, 2013년 11월 23일.

위의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정은 정권에서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실적은 이전 정권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13년에 3대혁명 붉은기 칭호는 520여 단위가 받았는데, 김일성 정권의 천리마운동은 1963년 4월까지는 천리마 칭호는 매년 2,200여 단위가 받았고, 3대혁명 붉은기 칭호는 1986년 11월부터 1995년 11월까지 매년 973개의 단위가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다만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초기인 1986년 11월까지 매년 200여개의 단위가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에서 2003년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은 단위가 910여개였고, 2006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4년여 간에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은 단위가 960여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의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초기인 2013년의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수여단위 숫자를 발표한 이후 2015년 11월의 제4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에서도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수여단위 숫자를 밝히지 않았던 것은 정치사상운

81) 리종석,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추동력, 대중운동의 성과와 당조직의 역할, 올해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진행정형을 놓고,” 『로동신문』, 2013년 11월 23일. “(전략) 올해에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중략)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17개 단위가 3중3대혁명붉은기를, 150개 단위가 2중3대혁명붉은기를, 520여개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실적이 좋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개하여 3대혁명 붉은기 칭호의 수여단위 숫자를 확대함으로써 군중들을 핵심계층으로의 편입하려는 노력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표 4-9】와【그림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전 기간에 받았던 연평균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수여단위를 정권별로 비교한 것이다.

김일성 정권의 전반기에는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수여받은 단위가 연평균 200여개로 낮지만 김일성 정권 후반기와 김정일 정권의 전후반기에는 900여 단위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수여단위를 2013년에만 발표하였는데, 김일성 정권의 전반기를 상회하지만 김일성 정권의 후반기와 김정일 정권의 전후반기보다는 절반 수준이 조금 넘는 숫자의 단위가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았다.

【표 4-9】 북한 정권별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연평균 수여단위 숫자

(단위: 개, 연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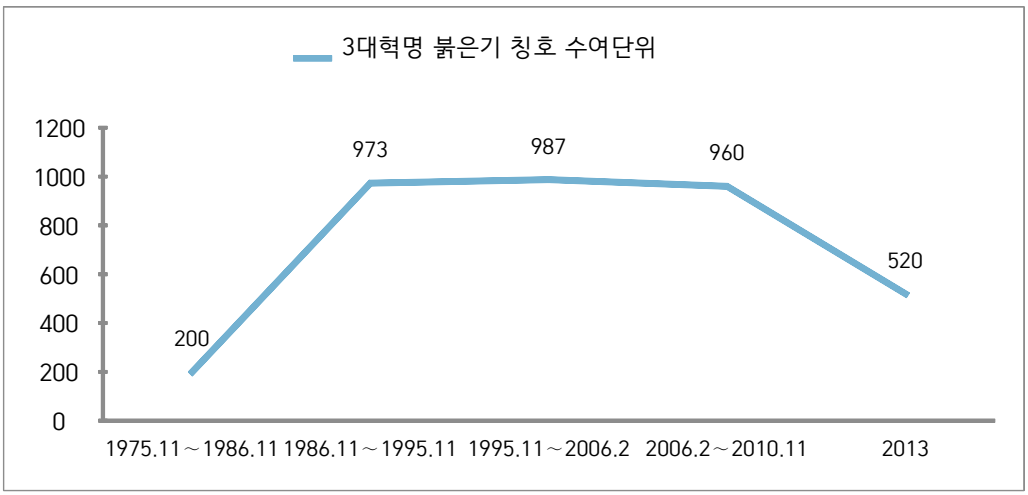
연도 \ 구분		3대혁명 붉은기 칭호
김일성 정권	1975.11~1986.11	200
	1986.11~1995.11	973
김정일 정권	1995.11~2006.2	987
	2006.2~2010.11	960
김정은 정권	2013	520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지만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수여단위가 줄어들었고, 2006년 2월 제3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이후 10년만인 2015년 11월에 제4차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개최하였지만 3대혁명 붉은기 칭호의 수여단위 숫자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보면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도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을 강조하였지만,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성과는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4-6】 북한 정권별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연평균 수여단위 추이

(단위: 개, 연평균)



비록 2015년 11월 제4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에서 그 간의 성과로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수여단위를 구체적인 수치로 발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서의 효용성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김일성 정권의 후반기와 김정일 정권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서의 효용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추정은 가능해 보인다.

김정은 정권에서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는 경우에 당원은 훈장을 받고 비당원은 입당 기회를 얻게 되는 정치적 혜택이 있는 정도이며,[82] 작업반장이

82) 북한이탈주민 김○○(30세, 청진시, 2020년 입국)은 사회급양관리소에 근무하면서 인

나 세포비서는 국기 훈장이나 표창장을 받고 작업반원들은 3대혁명 훈장과 3대혁명 메달을 받았다고 한다,[83] 이러한 정치적 수혜나 보상이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사회적으로 선호도가 높아야 하는데,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는 과거에 비해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본다면 정치적 효과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

(2) 경제적 측면

김정은 정권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추진된 기간에 생산경쟁운동의 결과는 북한의 자료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계획의 목표와 실적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그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아래【표 4-10】과【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2018년까지 7년간 경제성장률과 공업(제조업) GDP 성장률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15년에 비해 2016년의 경제성장률과 공업(제조업)의 GDP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1월 제4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개최하여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강화하면서 속도전에 의한 70일 전투와 만리마운동을 생산경쟁운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였다.

민위원회 간부출신 소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실적을 내기 위해 2012년에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은 단위가 되었는데, 소장은 칭호를 받은 뒤에 원래의 직위로 복귀하였다고 한다. 가장 큰 혜택은 당원은 훈장을 받는 것이고 비당원은 입당 건수를 받아 입당하는 것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경제적 혜택으로는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은 다음 달에 상금 100%가 내려왔으며, 양복지 등이 제공되거나 칠보산·묘향산이나 평양 등 명승지를 견학할 기회를 주고 악기, 손풍금, 북, 나팔 등 문화기재들과 배구공, 탁구대, 농구공 등 체육기자재 등을 선물로 내려 보내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83) 북한이탈주민 강○○(50세, 평양시 거주, 2018년 입국)은 북한에서 만○○ 공작기계공장에 근무하였는데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은 단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표장이나 국기훈장 1~3급, 3대혁명 훈장과 메달 등이 수여되었으며, 경제적 혜택도 약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집단적 영웅주의에 따라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 따라 무한한 충성과 노력을 하는 것이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표 4-10】 김정은 정권(2012~2018)의 경제성장률과 공업(제조업)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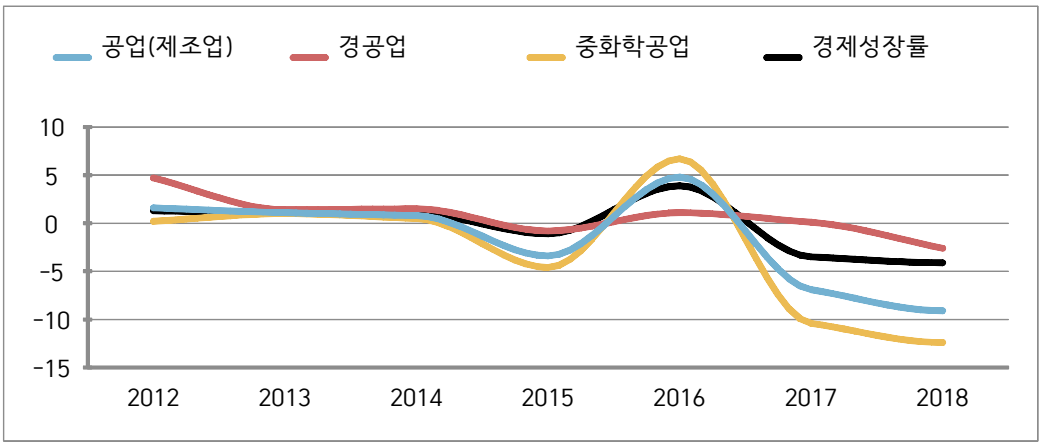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 연도	공업(제조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경제성장률
2012	1.6	4.7	0.2	1.3
2013	1.1	1.4	1.0	1.1
2014	0.8	1.5	0.5	1.0
2015	-3.4	-0.8	-4.6	-1.1
2016	4.8	1.1	6.7	3.9
2017	-6.9	0.1	-10.4	-3.5
2018	-9.1	-2.6	-12.4	-4.1

출처 : 한국은행(http://www.bok.or.kr), 한은DB/북한경제자료/북한GDP통계(검색일: 2019.10.12).

【그림 4-7】 김정은 정권(2012~2018)의 경제성장률과 공업(제조업)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2019.10.12.)를 이용하여 연구자 작성

이에 따라 2016년도에 경제성장률은 3.9%, 공업(제조업)의 GDP 성장률은 4.8%, 경공업은 1.1%, 중화학공업은 6.7%로 김정은 정권 기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6년을 제외하면 경공업의 성장률이 중화학공업 성장률이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북한 정권별로 나누어 정리해보면 아래【표 4-11】과 같다. 김일성 정권에서의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사회주의 완정승리를 목표로 전개되었는데 비하여, 김정일 정권에서는 체제 위기와 정권 위기에 직면하여 체제 수호와 정권 안보를 목표로 하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환되었다면, 김정은 정권에서는 정권 안정에 중점을 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었던 것이 특징이다.

【표 4-11】 북한 정권별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전개

구분 기간	명칭	기간	선구자 대회	비고
김일성 정권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1975~1994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1986.11.18~19)	주체사상
김정일 정권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1994~2011	제2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1995.11.29.~30) 제3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2006.2.23.~24)	주체사상 선군사상
김정은 정권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2012~현재	제4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2015.11.20.~21)	김일성 · 김정일주의

제5절 소결

북한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사상혁명이 선도하는 가운데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추진하였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기간에도 경제적 실적을 내기 위해 단기적인 속도전 형태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이나, 제2의 천리마운동과 만리마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 기간에도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서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이라는 특질을 유지하면서 생산경쟁운동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사회주의 공업화 단계와 사회주의 완전승리단계에 들어서면서 사상혁명의 선도 하에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북한의 판단에서 나왔던 것이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 시기에 계급노선의 지도사상은 유일사상으로 주체사상이 공고화되는 시기이며, 김정일 정권에 들어와서는 주체사상은 순수이데올로기로 기능하는 가운데 선군사상이 실천이데올로기로서 지도사상의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통합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지도사상이 되었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 시기에 경제노선의 발전전략은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사실상 종결되는 시기였으며,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전략'을 기반으로 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과 '경제·핵 병진노선' 및 '국가경제발전 총력집중노선'으로 변화하였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1975년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는 점이다. 김일성 정권에서 1986년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개최한 이래, 김정일 정권에서 1995년과 2006년에 두 차례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개최하였고, 김정은 정권에서도 2015년에 한 차례의 3

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열고 사상혁명이 선도하는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두 번째 특징은 사상혁명에서 지도사상이 유일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약간씩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초기에는 독자적인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내세웠는데,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전개하면서부터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신하는 유일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으로 변모하였다. 유일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은 김정일 정권에 들어와서는 순수이데올로기로 부상하고 선군사상이 북한의 현실에 적용되는 실천이데올로기로 부각되었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로 개념화된 것이 특징이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세 번째 특징은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실적이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기점으로 전후반기로 나눌 경우,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컸다는 것이다. 김일성 정권의 후반기인 1980년대 후반부터는 북한도 대외적인 개방을 시도하는 한편,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목도하는 상황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통해 사상혁명을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김정일 정권에 들어와서는 체제위기와 정권 안보를 위해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실례로 김일성 정권의 후반기와 김정일 정권 기간에는 연평균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은 단위의 수가 김일성 정권의 전반기에 받은 단위의 수보다 약 5배 정도나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는 이전 정권에 비해 절반 정도로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받은 단위 수가 줄어들었고, 제4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에서는 전혀 숫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실적이 미흡하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네 번째 특징으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

중운동이 전개되는 기간에 생산경쟁운동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일성 정권 기간에 추진된 6개년 계획과 3차례의 7개년계획의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과 공업 생산액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에서는 북한이 발표한 자료가 없어 한국은행 자료로 추정할 경우,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기간에 단기적인 속도전에 의한 경제 실적을 내기 위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제2의 천리마운동과 만리마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한 시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기는 하나 일시적으로 경제 실적이 높게 나타나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라는 동일한 명칭 하에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이라는 특질을 유지해오고 있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권력 강화와 권력 승계, 체제 위기와 경제 위기 등의 시기에 사상혁명이 주도하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으로 당면한 난관을 돌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들 수 있다.

북한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앞으로도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이라는 특질을 유지하면서 시기와 국면에 따라 약간씩 변화하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에서 정치적 유인이나 경제적 유인으로 제공되는 훈장과 메달, 입당과 승진 등의 정치적 혜택과 명승지 견학이나 상금과 양복지 등의 물질적 보상이라는 경제적 혜택이 군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매력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면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효용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현재의 상황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북한이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를 앞으로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V장 결론

군중노선은 북한이 현실사회주의 건설에서 대중운동의 방식으로 군중을 동원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였다. 군중노선은 계급노선과 결합하여 군중을 사상적으로 교화하여 자발적으로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려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 기간에 적용되는 장기적인 전략이었다.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계급노선에 따라 전위당과 노동계급이 주도적으로 군중의 자발성을 유도하거나 강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도된 자발성, 혹은 강제된 자발성은 정치적·경제적인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거나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

강제력을 동원하여 군중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유효하지만 지속성을 가지기는 어렵다. 사회주의 후진국가로 출발한 북한은 선진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추격발전전략을 추진하였는데, 경제적 보상을 통한 유인책은 자본축적이 시급한 시기에는 현실적으로 무한정 활용되기는 어려운 선택지였다. 계급노선에 따라 군중을 노동계급화하기 위해 강제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당과 노동계급의 주도하에 복잡계층인 군중을 새로운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인간으로 개조하여 혁명과 건설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군중을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형의 새로운 인간으로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고, 이는 장기적인 교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가능한 많은 정치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에 자발적으로 군중들이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질은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과 중국의 대약진운동이 역사의 한 단면에서 풍미하다가 사라진데 반해,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으로서의 특질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변화하면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소련과 중국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일시적으로 고조되다가 종료되었는데 반하여, 북한의 군

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에서 강도나 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환되어 왔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 제2의 천리마운동, 만리마운동으로 변화하여 왔고,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정권의 변화에도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북한이 전후 복구기간을 거친 후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위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으로 나타났다. 천리마운동이 공장단위에서 전개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었다면, 이를 보다 세분화한 작업반 단위에서 전 사회적인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개된 것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이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정치사상운동을 보다 강화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1960년과 1968년에 천리마작업반 선구자대회를 개최하여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활성화하였는데, 1960년대는 명실상부하게 천리마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었다. 이 시기는 계급노선의 지도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체사상이 부상하였고, 중공업 우선에 더하여 국방공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시기와도 중첩되고 있었다. 그만큼 사회주의 건설을 급속하게 추진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서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전개되었는데, 1982년에 열린 '80년대 속도' 창조를 위한 천리마운동 선구자대회는 속도전 방식에 의한 생산경쟁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다고 하겠다.

김정일 정권에 들어와서 1998년부터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제2의 천리마운동이 추진되었는데, 그 결과로 1999년도에 국한해서는 실제로 높은 수준의 경

제성장을 달성하였다. 1999년 11월에는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선구자대회를 개최하고 제2의 천리마운동의 성과를 과시하기도 하였으나, 단기적인 속도전에 의한 생산경쟁운동으로 경제 실적을 지속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려웠다. 단기 속도전에 의한 생산경쟁운동은 중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는 2016년부터 한층 강화된 형태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만리마운동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2017년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만리마운동 선구자대회는 개최되지 못하였다. 이전과 비교하여 경제 실적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계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속도전 형태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1973년에 3대혁명 소조운동을 시작하면서 당 주도로 사회 전 부문에 걸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추진한 것이 단초가 되었다. 3대혁명 소조운동은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과는 결이 다른 군중노선에 의한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1974년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 제시되었고, 3대혁명 소조운동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사상운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1975년부터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운동을 대신하게 되었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시작한지 11년만인 1986년에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개최하고, 북한은 3대혁명을 통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정치사상운동을 강화해 나갔다.

김정일 정권에 들어와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더욱 강화되었는데, 1995년과 2006년에 두 차례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2006년에 열린 제3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사상 선행에 덧붙여 군사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었으며, 지도사상으로 선군사상이 추가되었는데 주체사상은 순수이데올로기로

추상화되었고 선군사상이 실천이데올로기로 부상하게 되었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2015년에 제4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개최하고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강화하였다. 여기에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이라는 본질에 충실하게 전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동안 형식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 실제로는 실적을 내지 못하였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은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보다 강력하게 전개하면서 생산경쟁운동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제4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는 이전의 3차례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와는 달리 구체적인 실적을 발표하지도 못하였다. 이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시작된 지 40여년이 지나면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고 실적을 거두기도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라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의 효용성이 낮아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북한체제의 공고화에 유용한 대중동원 수단으로 사상혁명을 선행시키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기 때문이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변화한 것은 북한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의 하나였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사회주의 기초건설과 완전승리,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 사회주의강국 건설 등 정권의 목표 설정을 배경으로 하여 추진되었으며, 시기와 국면에 따라 변화는 있었으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북한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표는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 왔는데, 정권마다 표면상으로 내거는 목표는 조금씩 달라져왔다. 이러한 표면상의 목표나 명칭의 변화를 사소한 것으로 간과할 수도 있으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배경적인 요인이었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시기별로 계급노선의 지도사상과 경제노선의

발전전략과 상호작용하면서 전개되어 왔다. 지도사상과 발전전략이 변화함에 따라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서 생산경쟁운동과 정치사상운동의 강도와 조합이 달라졌던 것이다.

김일성 정권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 기간에는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목표로 하여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추진되었는데, 전반기에는 지도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였으며 발전전략은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전략'이었다.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의 후반기에는 지도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점차 주체사상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으며, 발전전략은 '경제·국방 병진노선'으로 바뀌었다.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기간에는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이 강화되었고, 발전전략은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전략'으로 사실상 회귀하였다. 김일성 정권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에서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이는 권력 강화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정치사상운동을 강화한 결과라고 하겠다.

김정일 정권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 기간에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과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제2의 천리마운동이 진행되었는데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지도사상은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이 추가되었고, 발전전략도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으로 바뀌었다. 군을 앞세워 군의 모범을 사회의 모든 부문으로 확산시키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전개한 것이 특징이었다.

김정은 정권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 기간에는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과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만리마운동이 전개되었다.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였는데, 지도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변화하였고, 발전전략은 '경제·핵 병진노선'과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으로 변화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전 정권을 답습하는 수준에서 전개되었고, 실적도 낮은 편이었다고 하겠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기 이전까지는 경제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되고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생산경쟁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김일성 정권은 5개년계획(1957~1961),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 3년 연장, 경제·국방 병진노선), 6개년계획(1971~1976), 제2차 7개년계획(1977~1983),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다. 김정일 정권에 들어와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중장기 경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김정은 정권에서는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 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통제 숫자를 공표하지 않았다. 경제계획의 수립은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통해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경쟁운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시기별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변화를 정리해보면 정권의 목표가 사회주의 건설,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사회주의 강국건설로 명목상 변화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본 목표가 사회주의 선진국가 건설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계급노선의 지도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 선군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바뀌었으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북한의 특성을 가미한 주체사상의 틀은 유지되고 있었다. 경제노선의 발전전략이 '중공업 우선, 농업·경공업 동시발전전략'·'경제·국방 병진노선'·'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경제·핵 병진노선'·'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 등으로 변화하였으나, 중공업 우선과 국방공업·핵공업 최우선의 차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지속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북한사회는 정권이 바뀌고 지도사상과 발전전략이 변화하고 있었으나, 큰 틀에서 보면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군중노선에 대중운동도 명칭과 내용에서 변화하고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이라는 특질과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정치사상운동을 선행시키면서 이를 생산경쟁운동으로 연결시켜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 경제 실적

을 내도록 하는 기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북한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주요한 현상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시기와 국면에 따라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의 상대적인 강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달성한 정치사상운동의 결과와 생산경쟁운동의 결과를 근거로 활용하여 상대적인 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사상운동의 결과로서 제시된 천리마 칭호와 3대혁명 붉은기 칭호의 수여단위의 숫자로 나타낸 실적과 생산경쟁운동의 결과로서 제시된 경제계획의 실적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기는 하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통해 시기별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을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확인된 첫 번째 발견점은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생산경쟁운동과 정치사상운동의 결합이라는 특질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단순히 생산경쟁운동이 되어서도 안 되었고, 그렇다고 정치사상운동만으로 그쳐서도 안 되었던 것이다.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사상운동을 강화하고, 정치사상운동을 통해 발휘된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이 생산경쟁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요체였다.

두 번째 발견점은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은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 ‘80년대 속도’ 창조 천리마운동, 제2의 천리마운동, 만리마운동으로 변화하면서도 경제적 위기의 시기와 경제 실적을 내야 할 필요가 있는 시기와 국면마다 전개되어 왔고,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발견점은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에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기는 하나 경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나아

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정치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에는 천리마 칭호나 3대혁명 붉은기 칭호 수여단위 숫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네 번째 발견점은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서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었고, 시기와 국면에 따라 강조점과 조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정권의 목표가 달라지고 지도사상이 변화하고 발전전략이 수정되고 경제계획이 수립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왔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발견점은 북한 사회의 목표가 사회주의 건설,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사회주의 강국건설로 표현이 달라져오고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선진국가 건설이라는 초기의 목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지속성은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동원하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라는 수단을 필요로 하고,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중요성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명칭과 내용, 강도와 조합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도사상과 발전전략의 변화를 동반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다. 북한에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기능하면서 계기시마다 속도전 방식으로 추진되어 사회적 통합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었던 것이다.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와는 달리 경제적 유인과 정치적 유인의 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체제 유지와 정권 안정을 위한 군중 동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따라서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현실에서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으로서의 대중운동은 시기와 국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유용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으로도 북한은 경제 건설이 여의치 않거나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속도전 방식의 생산경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통해 경제 실적을 과시하려고 할 것이고, 체제 위기나 정권 위기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정치

사상운동 중심의 대중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독려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정치사상운동과 생산경쟁운동의 결합으로서의 특질을 가지고 있는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효용성을 어떻게 높이고 활용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군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의 기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자료

<단행본>

국토통일원. 『북한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1~4집』. 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

_____.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1~3집』. 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

김갑식. 『북한 경제 · 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과 평가』.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13.

김경태 · 양문수 · 이재호 · 김진. 『북한 통계분야 지원 및 협력 방안』. 서울: 한국통계진흥원, 2013.

김수진 · 김웅진 · 박찬욱 · 신명순 · 신윤환 편역. 『비교정치론강의 3 : 서구의 정치제도, 정치과정 및 공공정책』. 파주: 한울, 1994.

김신 · 최진식. 『지속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정비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9.

김연철. 『협상의 전략: 세계를 바꾼 협상의 힘』. 서울: 휴머니스트, 2016.

_____.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비한국학연구총서 19권. 서울: 역사비평사, 2001.

김웅진 · 박찬욱 · 신윤환 편역. 『비교정치론강의 2 : 제3세계의 정치변동과 정치경제』. 파주: 한울, 1997.

_____. 『비교정치론강의 1 : 비교정치연구의 분석논리와 패러다임』. 파주: 한울, 1995.

김정노.『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 서울: 늘품플러스, 2015.

김진균 · 홍성태 공저.『군신과 현대사회: 현대 군사화의 논리와 군수산업에 관한 연구』. 서울: 문화과학사, 1996.

김천식.『통일국가론』. 서울: 늘품플러스, 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북한경제 백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로버트 스칼라피노 · 이정식 지음, 한홍구 옮김.『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파주: 돌베개, 2015.

바실리 미헤예브 · 비탈리 쉬비드코.『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시사점과 교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박광호.『전통: 북한사회 이해의 열쇠』.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4.

박대광 · 김진무.『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 평가와 향후 전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1.

박세일.『선진 통일 전략』. 파주: 21세기북스, 2013.

박창희.『군사전략론: 국가대전략과 작전술의 원천』.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박형중.『북한의 개혁 · 개방과 체제변화: 비교사회주의를 통해 본 북한의 현재와 미래』. 서울: 해남, 2004.

_____.『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학』. 서울: 연구사, 1994.

박형중 · 이교덕 · 정창현 · 이기동.『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연구총서 04-11, 서울: 통일연구원, 2004.

백두연구소 엮음.『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 서울: 백두, 1989.

_____.『주체사상의 형성과정 1권』. 서울: 백두, 1988.

백종천 편.『한국의 국가전략: 전략환경과 선택』. 성남: 세종연구소, 2004.

서보혁.『북한 정체성의 두 얼굴』. 서울: 책세상, 2003.

서재진.『주체사상의 이반: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 서울: 박영사, 2006.

_____.『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3.

_____.『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비교연구: 체제형성에 미친 영향과 개혁·개방의 논리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선즈화, 김동길·김민철·김규범 옮김.『최후의 천조: 모택동·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서울: 선인, 2017.

성채기·박주현·백재옥·권오봉.『북한 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3.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북한의 국가전략』. 서울: 한울, 2003.

손호철·김영수·전재호 엮음.『세계화, 정보화, 남북한: 남북한의 국가-시민사회와 정체성』. 서울: 이매진, 2007.

신지호.『북한의 '개혁·개방': 과거·현황·전망』. 서울: 한울, 2000.

안찬일.『주체사상의 종언: 전통사상의 수용을 중심으로』. 서울: 을유문화사, 1997.

양문수.『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유호열.『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좌절: 21세기 새로운 세대의 역사 인식을 위해 쓴 한국현대사 길잡이』. 서울: 생각의 나무, 2004.

이교덕·임순희·조정아·이기동·이영훈.『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이기원.『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경제발전의 병진정책분석: 북한조사연구-군사』. 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77.

이도기.『현대 중국공산당의 이해: 역사·지도사상·영도』. 서울: 통일신문사, 2008.

이대근.『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파주: 한울, 2003.
이석기 · 김석진 · 김계환 · 양문수.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 회복 실태와 작동 방식』. 서울: 산업연구원, 2010.
이완종. 『러시아 10월 혁명사』. 서울: 선인, 2012.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_____. 『현대 북한의 이해: 사상 · 체제 · 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1995.
이춘근. 『미 · 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서울: 김앤김북스, 2016.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임강택 · 이석기 · 이영훈 · 임을출.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1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_____. 『2011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2년 전망』. 서울: 통일부, 2011.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서울: 중앙북스, 2008.
임수호 · 최유정 · 홍석기.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선군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한울, 2000.
정영철. 『북한의 개혁 · 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 서울: 선인, 2004.
조한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조한범 · 양문수 · 조대엽.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서울: 통일연구원, 2010.
조한범 · 황선영.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3.
존 루이스 개디스, 박건영 옮김.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서울: 사회평론, 2002.
주성하. 『서울과 평양 사이』. 서울: 기파랑, 2017.

최장호 · 임수호 · 이석기 · 최유정 · 임소정.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통일부. 『북한 제7차 당대회 자료집』. 서울: 통일부 정세분석국, 2016.

_____. 『북한 제7차 당대회 자료집: 북한 발표 원문』. 서울: 통일부 정세분석국, 2016.

_____. 『북한지식사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_____. 『김정일 연구』. 서울: 통일부 정보분석국, 1999.

폴 그레고리 · 로버트 스튜어트 공저, 한종만 · 우강업 · 김성형 옮김. 『러시아 · 소련 · 독립국가연합경제의 구조와 전망』. 서울: 열린책들, 1992.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의 산업』. 서울: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 2010.

한반도선진화재단 편. 『통일의 길, 북한의 정상국가화』. 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2014.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 국가역량 · 군사력』. 서울: 법문사, 1998.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홍양호. 『통일의 길: 한 통일관료의 통일여정』. 서울: 통일신문사, 2018.

홍완석 엮음. 『현대 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 파주: 한울, 2005.

<논문>

강삼원. “중공과 북한의 군중노선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과학논총』. 제3집, 1985.

강석승. “북방정책 추진과 새로운 통일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강성윤. “3대혁명소조운동의 정치적 기능에 관한 연구: 정권승계를 중심으로.” 『안보연구』. 제9권, 1979.

강진웅. “국가형성기 북한의 주체 노선과 노동통제 전략의 변화.” 『사이間 SAI』. 제17호, 2014.

강태우. “북한의 ‘경제건설 ·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통일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강하영. “계급적 관점에서 북한 보기.” 『진보평론』. 제24권, 2005.

강호제.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분석: 인공위성(광명성3호)발사 시도와 CNC 기술 개발.”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제1호, 2015.

고유환. “김정은 후계구축과 북한 리더십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5호, 2011.

고재홍. “북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2호, 2008.

_____.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사국가화.” 『통일로』. 통권 167호, 2002.

구갑우. “남북한 관계에 대한 메타이론적 접근,” 『사회과학연구』. 제12집 2호, 2004.

_____. “유럽연합의 ‘신자유주의적’ 공공정책: 초국가적 통신정책의 기원 · 형성 · 실행.”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구본태. “남북접촉을 위한 이론의 정립: 비정치적 분야의 접촉을 위한 시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1.

권숙도.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 · 핵무력 병진노선의 의미와 평가.” 『국제문제연구』. 제15권 제3호, 2015.

권오국 · 문일철. “북한경제 재생산구조의 전개와 정치변화: 선군정치경제의 시원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7권 제2호, 2011.

권오윤. “노동 동원수단의 변화를 통한 북한 김정일체제의 변화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제15권 제1호, 2000.

권영경. “최근 북한 경제 정책 변화 추이와 전망.” 『통일경제』. 통권 제96호, 2009.

김경욱. “천리마시대(1956~1972)의 북한 교육교양에 대한 연구: 북조선인의

탄생.” 『현대북한연구』. 제21권 제1호, 2018.
_____. “북한 교육교양의 원형에 관한 연구: 천리마시대(1956~1972)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2017.
김광진. “북한경제의 달러화와 김정일 ‘궁정경제’” 『통일연구』. 제11권 제2호, 2008.
김귀옥. “1980년대 북한 사회의 발전과 좌절의 기로.” 『현대북한연구』. 제6권 1호, 2004.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 · 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 2014.
_____. “북한 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195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_____.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김근식 · 이무철. “북한의 선군 정치와 강성대국론: 자료 해제와 연구 동향.” 『통일문제연구』. 제19권 제2호, 2007.
김남식. “북한의 공산화과정과 계급노선(1).” 『아세아연구』. 제14권 제3호, 1971.
_____. “북한의 공산화과정과 계급노선(2).” 『아세아연구』. 제14권 제4호, 1971.
_____. “북한의 강성대국론.” 『민족문제연구』. 제8권, 2000.
김동엽. “경제 · 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국방군사전략 변화.”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5.
김보근. “북한의 2009 천리마운동과 강성대국 전략.” 『통일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2009.
김보미. “중소분쟁과 북한의 병진노선 채택.”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3.
김석진.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체제 변화 전망과 시사점.” 『통일경제』.

제44권, 2012.
김성배. “ ‘2013년 북한의 전략적 선택과 동아시아 국제정치: 병진노선과 신형대국관계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21권 제2호, 2013.
김성보.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김성주. “북한 병진노선의 내용 및 논리구조 변화 분석: 군사비 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국방정책연구』. 제32권 제2호, 2016.
_____. “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의 형성과 변화 과정 연구.” 『통일연구』. 16권 2호, 2012.
김연각. “북한 국가의 성격: 기존 논의의 검토와 제언.”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2호, 2006.
김영재. “김정은 정권의 외교정책: 권위추구형 핵·경제 병진노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집 제2호, 2017.
김용상. “북한 군사주의의 기원과 변천: 정책과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춘계발표논문집 2014년』. 2014.
김용현. “김정일,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권력체계 비교: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3기 제1차 회의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74권, 2015.
_____. “북한 내부정치와 남북관계: 7·4, 남북기본합의서, 6·15 비교.” 『통일문제연구』. 제16권 제2호, 2004.
_____. “로동신문 분석을 통한 북한정치 변화 연구: 1945~1950.”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제1호, 2003.
_____. “1960년대 북한의 위기와 군사화.”『현대북한연구』. 제5권 제1호, 2002.
_____.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김연철. “「북한경제, 이것이 알고 싶다 19」직업총동맹: 노동자들의 사상교

양단체.” 『통일한국』. 제142권, 1995.
_____. “북한의 1960년대 ‘경제 · 국방 병진노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김영탁. “북한의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남북대화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2집』. 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
김정일. “1996년 12월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월간조선』. 4월호, 1997.
김종수. “북한 근로단체 ‘침체기’ 연구: 1960년대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17집 3호, 2007.
김주삼. “핵실험 이후 북한의 내부체제결속과 북미관계의 변화.” 『통일문제연구』. 제21권 제2호, 2006.
김중태.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과 적응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남한출신 관리자와 북한출신 근로자의 상호인식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김지희. “비교정치연구에 있어서 혼합체계 분석안의 방법론적 적실성: 인과추론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4호, 2001.
김진하. “6자회담 재개 전망 및 구조적 한계 분석.”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11년 5월 25일.
김진환. “천리마운동: 건설의 신화와 재현의 정치.”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제2호, 2016.
_____. “조선노동당의 집단주의 생활문화 정착 시도.”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2010.
김창희. “북한의 자강력 제일주의와 인민노력동원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85권, 2017.

_____. “북한 강성대국건설의 전개와 현황.” 『한국동북아논총』. 제60권, 2011.

김천식. “노태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과정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치통일전공 박사학위논문. 2014.

_____. “남북한 민족개념 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김충환. “통일한국의 행정조직 통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김태희. “주체사상의 형성과 기능.” 『동의법정』. 제11집, 1995.

김형석. “역대정부별 북한인식과 대북정책 상관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동용승. “북한 화폐개혁 전격 단행 · · · 그 끝은: 북한, 왜 화폐개혁인가.” 『통일한국』. 제28권 제1호, 2010.

류길재.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경제건설:「스타하노프운동」과「대약진운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3.

린이푸 · 리조우 · 차이팡, 한동훈 · 이준엽 공역. “추월전략과 전통적 경제체제의 형성.”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서울: 백산서당, 2001.

모춘흥 · 은용수. “1960년대 북한의 병진노선 채택과 군사적 모험주의에 관한 역사적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28권 제1호, 2016.

문장순. “김정은 시대의 군중노선.” 『대한정치학회보』. 제26집 제4호, 2018.

박동운. “중 · 소와 비교해본 북한의 군중노선.” 『북한학보』. 제2집, 1978.

박원용. “ ‘스타하노프운동가’ 만들기: 국가권력과 민중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15권 제1호, 2005.

박상익. “선군시대의 관료문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2009.

박재규. “7 · 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개혁 · 개방의 모색: 2000년대.”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 파주: 법문사, 2005.

박정동 · 오승렬 · 박제훈. “북한의 경제개발전략의 구조적 문제점: 논평.” 『KDI정책연구』. 제18권 2호, 1996.

박진우. “2109년 개정 북한 헌법에 대한 고찰: 2016년 개정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0권 3호, 2019.

_____. “2009년 개정 북한헌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16권 3호, 2010.

박헌옥. “김정은 세습체제의 군사정책 전망.” 『군사논단』. 통권 제64호, 2010.

박형준.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요인 연구: 북한 생존전략(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과의 상관관계.” 『북한학연구』. 제13권 제2호, 2017.

박형중.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학: 장성택 숙청의 구조적 배경.”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 2014.

_____. “〈6.28 방침〉 1년의 내용과 경과.” 『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13년 6월 14일.

_____. “북한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6.28 방침)의 내용과 실행 실태.”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0월호.

_____.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도입>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12년 8월 13일.

_____. “북한의 ‘6.28 방침’은 새로운 ‘개혁개방’의 서막인가.” 『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12년 7월 23일.

_____. “2010.9.28. 당대표자회의 재평가: 새로운 권력 연합 출범의 자축 기념식.”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11년 9월 21일.

_____. “북 · 중 경제관계 증대와 북한정권의 미래: ‘외래지대 의존 국가(rentier state)’ 론적 분석.”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11년 6월 22일.

_____. “권력승계의 딜레마와 권력 세습.”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09년 6월 4일.
_____. “북한의 좌절과 도전(2007.10~2009.5).”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09년 5월 20일.
_____. “다층집권체제로서의 북한의 정치체제: 중국 및 소련과의 비교.”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제1호, 2007.
_____. “1950년대 북한의 정치와 권력: 인전대적 동원 체제 형성과 3중의 권력 투쟁.” 『현대북한연구』. 제2권 제2호, 1999.
_____. “북한 스탈린주의 체제에서 정치와 권력의 성격: 북한정치연구에서 지배패러다임의 비판.” 『96년 연례학술 논문집 3』. 1996.
박휘락. “협상이론에 의한 미북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 분석.” 『한반도미래연구』. 제3호, 2019.
배성인. “1990년대 북한의 지배담론 변화: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강성대국론’까지.” 『북한연구』. 제3권, 2000.
배종렬.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변화 의미와 과제.” 『북한』. 제528호, 2015.
백승주. “선군정치하 북한군의 역할과 위상 변화.” 『북한의 군사』. 서울: 경인문화사, 2006.
서유석. “선군담론의 체계화 과정과 군의 역할: 북한의 공간문헌분석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78호, 2008.
성채기.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 평가: 의도와 지속가능성.”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3. “
_____.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 어디로 갈 것인가.” 『북한』. 통권 498호, 2013.
_____. “북한 공표군사비 실체에 대한 정밀 재분석.” 『국방정책연구』. 제70권, 2005.
_____.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sources)에 대한 실증적 분석: 3대 원인의

검증과 북한의 선택대안.” 『국방논집』. 제40권, 1997.
신경환 · 노영곤.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사유화 문제: 북한과 동독의 비교.” 『경상논총』. 제13권, 1995.
신대진. “권력의 자기합리화 전략으로서 지배담론 분석: 김정일 시기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6권 제1호, 2014.
_____.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제약요인 분석: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의 관성적 요인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논문집』. 2015.
신종대. “김대중 ·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내정치: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이다.”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제2호, 2013.
_____. “5.16 쿠데타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남한의 정치변동과 북한의 국내정치.”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1호, 2010.
_____. “한국정치의 북한요인 연구: 1961-1972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신지호. “북한의 ‘개혁 · 개방’론의 모색: 주체사상과 시장경제의 공존은 가능한가.”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2호, 1999.
심영수. “중국의 대약진운동이 실패한 원인: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순천향 사회과학연구』. 제1권 제1호, 1995.
심지연 · 최완규. “김정일정권의 내구력(durability)과 북한정치체제의 변화전망.” 『동북아연구』. 제1권, 1995.
양무진.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가능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제3호, 2008.
양문수. “북한과 중국의 계획화시스템의 비교.” 『경제학연구』. 제49권 제1호, 2001.
_____. “북한 경제개발의 역사적 구조: 외연적성장의 내부구조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제2호, 2000.
양영식. “한국통일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국내외환경의 수용과정을 중심으

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87.
양창석. “독일의 통일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양호민. “해방직후 북한정권의 정치노선.” 『한국사 시민강좌』. 제12권, 1993.
_____. “북한에 대한 중공의 사상적 · 정치적 영향: 인민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건설까지.” 『중앙대학교인문과학논문집』. 제19집, 1974.
엄종식. “북한에서의 정치적 리더십의 관료제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예대열. “해방이후(1945~1950) 북한 경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총』. 제86권, 2015.
오경섭. “북한 전체주의 사회통제와 체제 내구성.” 『세종정책연구』. 제5권 제2호, 2009.
오양열 · 임채욱. “북한의 군중문화정책.” 『통일과 문화』. 제2권, 2002.
오일환. “김정일시대의 북한체제 현황.” 『현대북한체제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0.
오충석.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응과 성사 요인: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유세희. “제1장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 『북한사회의 이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7.
윤철기. “남북한 체제성격 비교: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체제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제33권 제3호, 2017.
이관세. “북한의 현지지도와 정치리더십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이만우. “북한사회 대중운동에서의 권력작용 연구: 소위 ‘영도방법’의 원리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해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서울: 경남대

학교 북한대학원, 1998.
이무철. “북한의 국가경제기관.”『북한의 당 · 국가기구 · 군대』. 파주: 한울, 2007.
이문청 · 서정민.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대중동원운동 비교연구: 천리마운동과 대약진운동.”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제4호, 2013.
이복수. “북한 천리마운동의 사회학적 고찰.” 『아세아연구』. 제20권 제2호, 1977.
이석기.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와 향후 전망.” 『아시아연구』. 제11권 2호, 2008.
_____.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행태의 변화: 생존추구형 내부자 통제와 퇴행적 시장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2003.
이상우. “페레스트로이카 서곡.” 『한국논단』. 제2권, 1989.
이석호.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군의 역할.”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이성봉.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연구: 당, 국가, 기업소의 역할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이송호. “비교정책연구에 있어서 전통적 방법론의 재검토.” 『한국행정학회보』. 제29권 제2호, 1995.
이승신. “1990년대 이후 북한 인권 법제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이영훈. “김정은 시대의 경제 · 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과 지속 가능성.”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제1호, 2015.
_____.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JPI 정책포럼』. 서귀포: 제주평화연구원, 2010.
_____. “경제발전전략.” 『북한의 경제』.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_____.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지속과 변화.” 『북한의 경제』. 서울: 경인문화

사, 2006.
_____.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제17권 제2호, 2005.
_____. “북한의 ‘자력갱생’을 위한 축적체계의 전환: 1957년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8권 2호, 2000.
_____.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6~64년): Kaleckian CGE 모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이용희. “주체사상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제25권 제2호, 2013.
이재호. “북한의 통일정책의 변천과 전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이정 박헌영 전집 편집위원회. “로동당 중앙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진술한 당원들의 사상 정치 교양 사업 강화와 당 단체들의 과업에 관한 박헌영 동지의 보고.” 『이정 박헌영 전집 제3권: 북한시기 저작편』. 서울: 역사비평사, 2004.
이정수. “북한정치체제에 관한 연구: 전체주의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이정철. “북한의 공세적 대외정책과 경제확장전략: 핵·경제 병진 노선의 역조합.” 『사회과학논총』. 제18집, 2016.
_____. “북한의 경제 발전론 재론: 1960년대 경제조정기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5권 제1호, 2002.
이종석. “제4장 북한의 근로단체: 청년동맹에 대한 연구.”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이종주. “북한 핵정책의 변동성 연구(1991-2016): ‘제한적 편승’에서 ‘전면적 내부균형’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군사안보전공 박사학위논문, 2018.
이주태. “김정일 시기 북한의 위기조성전략 연구: 비대칭전략 및 군사 도발

사례 분석.”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치통일전공 박사학위논문, 2013.
이중구. “김정은 정권의 핵병진노선의 대내외적 영향.”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2, No.2, 2015.
이창희. “제7차 조선로동당 대회로 살펴본 북한 경제정책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9권 제3호, 2016.
_____.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의 형성과 특성.”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_____. “「경제연구(1986～1999)」로 바라본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고찰.” 『북한학연구』. 제6권 제2호, 2010.
임수호.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대내경제전략.” 『KDI북한경제리뷰』. 제12권 제3호, 2010.
_____. “김정일 정권 10년의 대내 경제정책 평가: ‘선군경제노선’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제6권 제2호, 2009.
장영달. “북한이탈주민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지역 변수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사회문화언론전공 박사학위논문, 2016.
장인숙. “1970년대 북한의 발전위기와 대중운동노선의 재정립.” 『현대북한연구』. 제15권 1호, 2011.
_____. “1970년대 북한의 추격발전체제와 대중운동노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전성훈.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4·1 핵보유 법령’.”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13년 4월 8일.
전우석. “북한헌법 선군 및 경제조항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 ‘핵·경제 병진노선’의 허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 2016.
전준. “북한의 경제·국방 병진노선’ 비교분석: 김일성과 김정은 사례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정교진. “북한 주체사상의 기독교적 신앙체계에 관한 연구.” 『복음과 선교』. 제38집, 2017.

정성장.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와 성격.”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2호, 1999.

정성장 · 임재형. “대외 전략.”『북한의 국가전략』. 파주: 한울, 2003.

정세진. “전환기 북한의 「계획경제」 침식에 따른 사회주의적 지배구조 약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4권 제2호, 2000.

_____. “북한체제 변화의 정치경제: ‘계획경제’ 약화에 따른 지배구조의 변화.” 『통일문제연구』. 제11권 제2호, 1999.

정세현. “북한과 중공의 군중노선 비교연구: 천리마운동과 대약진운동을 중심으로,” 『자유아카데미연구논총』. 제1집, 1977.

정영철. “1970년대 대중운동과 북한 사회: 돌파형 대중운동에서 일상형 대중운동으로.” 『현대북한연구』. 제6권 1호, 2003.

정영태. “북한「강성대국」론의 군사적 의미: 김정일의 군사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7권 제2호, 1998.

정현숙, “사회주의 완전승리 테제와 북한의 경제노선 변화 연구: 공격적 발번전략에서 수세적 방어전략으로의 전환.” 『현대북한연구』. 제18권 제3호, 2015.

조건식. “한반도 통일방안 비교 연구: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연방주의.”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조동호. “경제 · 핵 병진노선의 의미와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전망.”『국가전략』. 제19권 제4호, 2013.

_____. “북한의 경제 · 핵 병진노선과 남북경협.” 『통일경제』. 통권 106호, 2013.

조명균.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조봉현. “핵 · 경제 병진노선: 발전 전략 발목 잡을 것.”『통일한국』. 통권 390호, 201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2집』. 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

조영국. “ ‘강성대국론’ 과 ‘선군정치’ 에 대한 정치 · 경제적 접근.” 『현대북한연구』. 제9권 제1호, 2006.

조우찬. “북한 갑산파 연구: 기원, 형성, 소멸.”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치통일전공 박사학위논문. 2016.

_____. “북한 갑산파 연구: 박금철과 구성원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9권 제1호, 2016.

조준배. “생산과 복지의 갈림길에서: 스타하노프 운동과 소련 노동조합, 1935-36.” 『서양사론』. 제100호, 2009.

조한범. “정치 엘리트층을 향한 공포통치는 계속된다.” 『통일한국』. 제398권, 2017.

_____.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성격연구: 비교사회주의론적 접근.” 『통일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2002.

차문석. “선군시대 경제노선의 형성과 좌표: 핵과의 연관성 및 ‘이중화 전략’ .” 『국방정책연구』. 제76호, 2007.

_____. “북한의 공장관리체계와 절정기 스탈린주의.”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2호, 1999.

천해성. “대북투자 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남북투자보장합의서 구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초패 · 이창신. “중국의 대약진운동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집단사고(groupthink)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제3호, 2013.

최대석 · 현인애. “주체사상의 재인식: 형성과 확립, 그리고 쇠퇴.”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제2호, 2007.

최만원. “ ‘대약진’ 운동의 기원: 교육부문을 중심으로.” 『 통일문제연구』. 제20권 제1호, 2005.

최문. “ 6.15남북공동선언 전후 북한의 대남협상행태 비교 분석: 남북관계지표와 협상행태의 상관성.”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최보선. “북한 · 중국 · 소련의 전략적 삼각관계와 북한의 외교: ‘피봇외교’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치통일전공 박사학위논문, 2019.

최병섭. “한국정부의 통일정책 지속성에 관한 연구: 정책변동에 대한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최수영. “7 · 1경제개혁 6년, 경공업 생산성 소폭 향상.” 『통일한국』. 296권, 2008.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의 군사』. 서울: 경인문화사, 2006.

최주활. “북한군의 외화벌이 실태와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 『북한조사연구』. 제2권 제2호, 2006.

최지영. “북한의 계획이론 변화에 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2권 제2호, 2010.

탁성한. “북한의 경제 · 핵 병진노선 2년 평가: 경제 정책 측면.”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논문집 2015년』. 2015.

탁용달. “대중운동을 통한 김정일 리더십 강화.” 『북한학연구』. 제6권 제2호, 2010.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한모니까. “1960년대 북한의 경제 · 국방병진노선의 채택과 대남정책.” 『역사와 현실』. 통권50호, 2003.

_____. “4월 민중항쟁 시기 북한의 남한정세 분석과 통일정책의 변화.” 『4.19와 남북관계』. 서울: 민연, 2000.

한명섭. “북한에서 발생한 남한 주민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연구.” 북한대

학원대학교 정치통일전공 박사학위논문, 2007.
한종호. “북한의 ‘경제 · 국방 병진노선’의 실제와 전망.”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함택영. “군사주의의 공과: 군비경쟁의 악순환.” 『북한의 딜레마와 미래』. 파주: 법문사, 2011.
_____. “북한군사연구시설: 국가안보와 조선인민군.”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파주: 한울, 2006.
_____. “김정일시대 북한의 체제특성과 국가역량.” 『김정일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2000.
_____. “북한 경제의 침체와 대외관계: 정치 · 군사적 측면.”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침체와 대응』.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5.
_____. “경제 · 국방 병진노선의 문제점.”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3.
_____.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와 국방건설: 북한 국방정책 및 군비부담의 재조명.”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2.
현지연. “북한의 비날론산업 연구: 기원 · 발전 · 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치통일전공 석사학위논문. 2018.
홍권희. “북한의 ‘경제 · 국방 병진노선’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홍순직.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평가와 전망.” 『통일경제』. 제15권, 2010.
홍양호. “탈냉전시대 북한의 협상행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홍용표. “북한의 대남정책.” 『북한체제의 이해: 제도와 정책의 지속과 변화』. 서울: 명인문화사, 2009.
_____.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 제36권 제4호, 2002.
_____. “국가안보와 정권안보: 이승만 대통령의 안보정책을 중심으로,

1953-1960.” 『국제정치논총』. 제36권 제3호, 1997.
홍용표 · 모춘흥. “김정은 체제 대남 통일전선전술.” 『안보학술논집』. 제23집 하, 2012.
홍재형. “북한체제의 관료제화 연구: 엘리트 구조분석을 통해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황재준. “북한의 ‘식량배급’과 ‘농민시장’ : 역사적 변천과 기능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_____. “북한의 현지지도 - 끝나지 않은 군중노선의 이상.” 『경제와 사회』. 제49권, 2001.
황지환.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 2014.

<기타>

http://monthly.chosun.com.
http://shindonga.donga.com.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북한자료

<정기간행물>

『경제연구』
『근로자』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로동신문』
『문학신문』
『민주조선』
『조선신보』
『조선중앙연감』
『조선중앙통신』

<단행본>

길확실.『천리마작업반장의 수기』. 평양: 직업동맹출판사, 1961.
김일성.『김일성 저작선집 3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_____.『3대혁명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_____.『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당 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55년 12월 28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_____.『김일성 저작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_____.『김일성 전집 3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_____.『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당 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55년 12월 28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김정일.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_____. 『김정일 선집 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김정은.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김창성.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85.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6.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오성길. 『선군정치: 주체사회주의 생명선』. 평양: 평양출판사, 2003.
재일본조선인과학자협회. 『21세기의 태양 김정은 원수님』. 평양: 재일본조선인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 2018.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 문헌집』. 동경, 조선청년사, 1968.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9권: 주체형의 혁명무력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6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직업동맹. 『천리마기수 독본』. 평양: 직업동맹출판사, 1963.

<논문 · 논설 · 사설>

강원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직맹조직들의 투쟁.”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 법률)』. 제4호, 2016.
강응철. “과학기술중시는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 로선.” 『경제

연구』. 제1호, 2001.
강철민. “인민생활향상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 『경제연구』. 제3호, 2010.
권진상.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당의 총로선이다.” 『근로자』. 제10호, 1968.
근로자 편집국.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 『근로자』. 제1호, 2011. “
_____.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은 혁명과 건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혁명적로선이다.” 『근로자』. 제10호, 1970.
_____.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어버이수령의 크나큰 배려.” 『근로자』. 제10호, 1970.
_____.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 군중로선의 전면적 관철: 김일성동지의 대안 전기 공장과 숙천군에 대한 현지 지도 1주년에 제하여.” 『근로자』. 제20호, 1962.
김강운. “3대혁명소조운동은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구현한 위대한 혁명운동.” 『근로자』. 제5호, 1975.
김광웅. “모두다 15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승리를.” 『근로자』. 제8호, 2009.
김광일. “청년들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로선관철에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교원선전수첩』. 제3호, 2009.
김경현. “공화국행정법률제도는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의 확고한 법적담보.”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 법률)』. 제3호, 2016.
_____. “내각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은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의 중요한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 법률)』. 제3호, 2016.
김균주.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는 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

담보.” 『근로자』. 제6호, 2010.
김기두. “더 높이 비약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기풍: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높여 - 평안북도안의 당 조직들에서.” 『로동신문』. 2006년 11월 5일.
김덕호.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를 앞세워 나가는 것은 선군시대경제건설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제2호, 2004.
김동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경제연구』. 제1호, 2001.
김룡수.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제1호, 2016.
_____. “생활필수품생산을 늘이는 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제3호, 2016.
김명남.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은 경제와 국방병진로선의 계승이며 심화발전.” 『교원선전수첩』. 제2호, 2017.
김명철. “국방공업을 앞세우는 것은 인민생활향상의 믿음직한 담보.” 『천리마』. 제10호, 2011.
김성권.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지켜야 할 원칙.” 『철학·사회정치연구』. 제1호, 2018.
김승혁.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시고 구현하여오신 경제와 국방병진로선의 빛나는 계승발전.” 『철학연구』. 제3호, 2017.
김영걸·김덕진.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 『근로자』. 제7호, 1963.
김영란. “식료일용공업에서 변혁을 일으키는 것은 새로운 대고조진군의 절실한 요구.” 『근로자』. 2010.
김영순. “당의 군중로선관철에서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 『정치법률연구』. 제1호, 2013.

김영진.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고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 경제)』. 제4호, 2013.

김영철. “올해의 승리적진군을 힘있게 추동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로동신문』. 2003년 11월 23일.

김영호. “로동에 의한 분배와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의 옳은 결합은 인민생활향상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제3호, 2015.

_____. “인민생활향상에서 사회주의적분배형태들의 옳은 결합에서 나서는 원칙적방도.” 『경제연구』. 제3호, 2016.

김원국.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합법칙적 요구.”『경제연구』. 제2호, 2004.

김인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위대한 추동력.” 『교원선전수첩』. 1호, 2009.

김일성.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공업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1975년 3월 3일).”『3대혁명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공업부문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별릴데 대하여: 공업부문 3대혁명소조원들을 위한 강습에서 한 연설(1972년 2월 10일).”『3대혁명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김일성 저작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_____. “여섯개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62년 12월 14일).” 『김일성 전집 3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김일룡.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추동력.” 『로동신문』. 2003년 11월 23일.

김재서. “경제건설은 강성대국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 『경제연구』. 제2호,

1999.
김정숙. “군중로선에 기초한 경제관리체계확립과 공고발전.” 『로동신문』. 2001년 12월 15일.
김정일. “주체사상의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제7호, 1987.
김정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로동신문』. 2015년 11월 21일.
김준희.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마련하신 업적 길이 빛날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신 40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 원칙에 맞는 경제관리체계로.” 『로동신문』. 2001년 12월 15일.
김진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공격전을 힘있게 벌리자: 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 사리원대성타올공장에서.” 『로동신문』. 2007년 2월 23일.
김철학. “혁명적 군중로선의 기본요구.” 『로동신문』. 2009년 8월 20일.
김태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력사과학』. 제4호, 2006.
김 패.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수 있게 하는 강령적 지침.” 『조선녀성』. 제11호, 2006.
김평해. “전당, 전민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불멸의 현지지도강행군.” 『근로자』. 제3호, 2010.
_____. “당의 령도체계와 혁명적 군중로선을 결합시켜 나가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 『근로자』. 제6호, 1987.
김홍룡. “3대력명붉은기쟁취운동은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위력한 추동력.” 『로동신문』. 1999년 9월 12일.
김희옥. “인민의 복리를 우선시, 절대시하는데 사회주의본태가 있다.” 『근로

자』. 제6호, 2010.
렴병호.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은 인민생활향상의 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가장 혁명적인 로선.”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 경제)』. 제3호, 2007.
렴창해. “인민생활향상의 3대축: 농산, 축산, 수산.” 『조선녀성』. 제7호, 2015.
로동신문 사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로동신문』. 2018년 11월 22일.
_____.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로동신문』. 2016년 11월 23일.
_____.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힘을 집중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16년 6월 28일.
_____. “당원들이 앞장에서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진군의 돌격로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16년 1월 29일.
_____.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쟁취운동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자.” 『로동신문』. 2015년 11월 18일.
_____.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 『로동신문』. 2013년 4월 1일.
_____. “빛나는 로력적성과를 안고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하자.” 『로동신문』. 2010년 10월 28일.
_____. “빛나는 로력적성과를 안고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하자.” 『로동신문』. 2010년 8월 19일.
_____.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로동신문』. 2009년 7월 20일. “
_____.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높이 150일전투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자.” 『로동신문』. 2009년 6월 23일.
_____.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끝없이 번영할 것이다.” 『로동신문』. 2009년 4월 11일.
_____.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다.” 『로동신문』. 2007년 11월 20일.
_____.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력으로 선군혁명총진군을 다그치자.” 『로동신문』. 2005년 6월 29일.
_____.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추동력.” 『로동신문』. 2003년 11월 23일.
_____.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력으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로동신문』. 2000년 11월 20일.
_____.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심화발전시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로동신문』. 1999년 8월 5일.
_____.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로동신문』. 1999년 8월 5일.
_____.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자.” 『로동신문』. 1998년 9월 9일.
_____. “공화국의 력사에 불멸의 리정표로 아로새겨지게 될 뜻깊은 회의.” 『로동신문』. 1998년 9월 5일.
_____.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자.” 『노동신문』. 1994년 11월 25일.
_____.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력사적인 대회.” 『로동신문』. 1986년 11월 18일.
_____.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게 하자.” 『로동신문』. 1975년 12월 10일.
_____.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힘있게 관철하여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양을 일으켜나가자.” 『로동신문』. 1975년 12월 6일.

_____. “전체 인민이 무장하며 온 나라를 요새로 만들자.” 『로동신문』. 1962년 12월 17일.

로동신문 정론.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

류경삼. “행정경제사업의 정치화는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산돌격의 위력한 추동력.” 『사회과학원학보』. 제4호, 2011.

_____. “인민생활향상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것은 현시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공격전의 중요과업.” 『사회과학원학보』. 제3호, 2007.

류창수. “국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제1차적 전략적 과업.” 『경제연구』. 제3호, 2006.

리광훈.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반제계급토쟁을 동반하는 대고조진군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담보.” 『조선녀성』. 제7호, 2011.

리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식 경제를 변함없이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보루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제2호, 1998.

리능훈. “군중로선구현에서의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 『근로자』. 제2호, 1967.

리돈원.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주체의 령도예술.” 『근로자』. 제9호, 1986.

리명원. “천리마의 대진군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평양속도》를 창조하겠다.”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 문헌집』. 동경: 조선청년사, 1968.

리성갑. “군중로선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 『근로자』. 제5호, 1982.

리성재.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은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회의.” 『천리마』. 11 · 12호, 1969.

리성준. “주체사상과 군중로선.” 『근로자』. 7호, 1980.

리성혁. “21세기에 상응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 것은 우리앞에 나서는

중대한 과업.” 『경제연구』. 제1호,2001.
리영남.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의 정당성.” 『경제연구』. 제3호, 2013.
리영철. “우리 당의 병진로선은 우리 혁명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 『사회과학원학보』. 제4호, 2017.
리정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각지의 당조직들에서.” 『로동신문』. 2014년 2월 21일.
_____.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전투장들에 사상, 기술, 문화의 세폭의 붉은기가 세차게 나붓기도록 하여야 한다(공동사설에서):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불러일으켜, 문수식료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로동신문』. 2010년 1월 29일.
_____.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 각지 당조직들에서.” 『로동신문』. 2009년 7월 5일.
_____.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명천장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로동신문』. 2008년 4월 26일.
_____.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떠미는 힘있는 조직정치사업: 결의목표수행과 일군들의 역할, 회령기초식품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로동신문』. 2007년 8월 9일.
리정수 · 리명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속에 석탄산이 더욱더 높아간다.” 『로동신문』. 2014년 11월 12일.
리종석.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추동력: 대중운동의 성과와 당조직의 역할, 올해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진행정형을 놓고.” 『로동신문』. 2013년 11월 23일.
_____.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 강성국가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고조시켜, 각지 당조직들에서.” 『로동신문』. 2012년 9월 13일.

_____.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 세차게 타오른다.” 『로동신문』. 2012년 6월 18일.

리종식.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드높이 선군혁명총진군 앞으로: 지난 35년간 190여개 단위가 3중3대혁명붉은기, 3,950여개 단위가 2중3대혁명붉은기, 2만 5,640여개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 『로동신문』. 2010년 11월 22일.

리주오. “경공업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 『근로자』. 제3호, 2010.

리 철. “우리 당의 병진로선은 혁명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 『철학연구』. 제4호, 2016.

리춘일. “중공업은 자립적민족경제의 기본토대.”『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 제2호, 2010.

리화순. “우리 천리마직포공들은 낡은 기준량을 깨뜨리고 보다높은 새기록을 창조하였다.”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 문헌집』. 동경: 조선청년사, 1968.

림현숙.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으로 보다 큰 위훈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전개.” 『로동신문』. 2011년 4월 4일.

문춘광. “중공업의 발전은 국방공업발전의 기초.” 『경제연구』. 제2호, 2010.

박명선.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 『근로자』. 제5호, 2010.

박민수. “계획화에서 군중로선 구현을 위한 제원칙.” 『근로자』. 제2호, 1963.

박수길. “온 나라에 인민생활대고조의 열풍을 일으켜나가는 위대한 령도.” 『근로자』. 제7호, 2010.

박승금. “경공업과 농업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 『조선녀성』. 제7호, 2010.

박양업. “천리마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였는가.” 『천리마』. 8 · 9호, 1969.

박옥경. “일심단결의 정신력으로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을 이룩하자: 생산공정의 현대화 · 정보화를 적극 추진, 평양곡산공장에서.” 『로동신문』. 2010년 2월 28일.

박영근.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며 자립적경제토대를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제2호, 1996.

박용선. “일군들이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예비를 과학기술에서 찾는것은 자기 군을 살기좋은 군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중요요구.” 『정치법률연구』. 제3호, 2014.

박인주.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겠다.” 『로동신문』. 2006년 2월 25일.

백능기. “당의 유일적 령도와 군중로선을 결합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 『근로자』. 제3호, 1989.

백범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혁명승리를 위한 근본담보.” 『근로자』. 제2호, 1986.

_____.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의 옳은 결합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 『근로자』. 제9호, 1980.

본사기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이끄시여.” 『조선녀성』. 제1호, 2004.

손영희.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평가사업에서 중시한 문제, 수양산은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로동신문』. 2011년 6월 28일.

_____. “대고조전투장들에 천리마의 기상 나래친다: 힘있게 벌어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각지 당조직들에서.” 『로동신문』. 2010년 4월 29일.

송창윤. “공동사설의 과업을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일터에 넘쳐나는 신심과 락관, 사리원수출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

에서.” 『로동신문』. 2007년 1월 30일.
서승환. “인민대중의 높은 사상의식에 기초한 단결과 협조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기본추동력.”『경제연구』. 제3호, 1993.
서영수.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과업.” 『사회과학원학보』. 제2호, 2012.
선우훈.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열어놓은 력사적문헌.” 『천리마』. 제11호, 2013.
손종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여.” 『천리마』. 제11호, 2006.
신상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확대발전시켜 혁명적 대고조를 가일층 앙양시키자.” 『천리마』. 제6호, 1968.
심은심. “선군시대 재생산의 몇가지 리론문제.” 『경제연구』. 제2호, 2004.
심재성. “근로자들 속에서 심화 발전되고 있는 대중적 애국 운동.” 『근로자』. 제12호, 1965.
_____. “천리마작업반운동과 사상, 기술, 문화 혁명.” 『천리마』. 제8호. 1968.
장경복.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은 우리 당 활동의 기초.” 『천리마』. 제1호, 1984.
장두영. “모두다 1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새로운 대고조시대 일군들의 혁명적 본분.” 『근로자』. 제11호, 2009.
장상준. “국방공업은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원천이며 인민생활향상의 믿음직한 담보.” 『경제연구』. 제4호, 2011.
장성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현명한 령도.” 『사회과학원학보』. 제3호, 2008.
장인석.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우리 당 군중로선의 기본요구.” 『근로자』. 제3호(평

양: 근로자사, 1987.
장정순.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마련해주려는것은 당의 의지이고 결심.” 『근로자』. 제3호, 2011.
장철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인심단결강화의 확고한 담보.” 『조선녀성』. 제8호, 2009.
전정희. “군중로선 관철과 과학적인 경제관리.” 『근로자』. 제5호, 1983.
전창철.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정형총화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천리마의 대고조를 이룩할데 대하여.”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 문헌집』. 동경: 조선청년사, 1968.
_____.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자.” 『천리마』. 제6호, 1968.
정명남. “경공업의 발전은 인민생활향상의 확고한 담보.”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 경제)』. 제1호, 2013.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 참가자일동.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1968년 5월 11일).”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 문헌집』. 동경: 조선청년사, 1968.
제3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로동신문』. 2006년 2월 24일.
조명호. “인민생활향상에서 정보기술의 발전이 노는 역할.” 『경제연구』. 제3호, 2010.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청년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호소문: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향하여 총공격 앞으로.” 『로동신문』. 2016년 5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제3차 3대혁명붉은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로동신문』. 2006년 2월 24일.
_____. “축하문: 제2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

자들에게.” 『로동신문』. 1995년 11월 30일.
_____. “제2차전군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 보내는 축하문.” 『천리마』. 제6호, 196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축하문: ‘80년대속도’ 창조에 떨쳐나선 천리마운동선구자대회 앞.” 『로동신문』. 1982년 11월 12일.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 규약: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채택, 1980년 10월 13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171.
조선중앙통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 지난 30여년간 2만 5,400여개 단위 3대혁명붉은기 쟁취, 3대혁명기수 240여만명으로 장성.” 『로동신문』. 2006년 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사.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제2의 천리마대진군.” 『조선중앙연감 2000』. 53호, 2000.
_____.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대회.” 『조선중앙연감 2000』. 53호, 2000.
_____.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조선중앙연감 1996』. 49호, 1996.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로동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자력자강의 만리마기상을 만방에 떨친 위대한 승리: 전국적인 충정의 70일전투계획 144%로 넘쳐수행, 공업생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배 장성, 수백개의 대상준공, 조업 및 개건.” 『로동신문』. 2016년 5월 6일.
_____. “우리 나라에서 첫 인공지구위성 성과적으로 발사.” 『로동신문』. 1998년 9월 5일.
조원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관철에서 동원하여야할 인민경제내부예비의 내용.” 『경제연구』. 제2호, 1995.
조웅주. “경공업과 농업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 『경제연

구』. 제1호, 2010.
진문정. “오늘의 총공격전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진군의 계속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 『철학연구』. 제4호, 2011.
천리마사. “《천리마》 학습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당의 총로선이다.” 『천리마』. 5호, 1969.
_____.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의 전면적 관철: 김일성 동지의 대안 전기 공장과 숙천군에 대한 현지 지도 1주년에 제하여.” 『근로자』. 제20호, 1962.
천리마사 사설. “병진노선을 더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자.” 『천리마』. 제11호, 20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내각.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민주조선』. 2011년 7월 15일.
최수광. “현시기 지방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제2호, 2013.
최시홍. “뜻깊은 9월의 명절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세차게 타오르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 각지 당조직들에서.” 『로동신문』. 2008년 6월 23일.
최영길. “령도업적단위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앞장에 섰다.” 『로동신문』. 2012년 2월 18일.
_____.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밀어줄수록 성과가 크다, 강서신발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로동신문』. 2011년 6월 28일.
최영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력으로 선군혁명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로동신문』. 2006년 11월 23일.
최승필. “선군시대에 세차게 타번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봉화.” 『로동신문』. 2006년 2월 23일.
최일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한 뜻깊은 해.” 『로동신문』. 2007년 12월 10일.

_____.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높이 힘차게 전진: 빈틈없는 작전과 완강한 실천으로, 삼석피복공장 일군들과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2007년 6월 11일.

_____. “대담한 공격전의 해에 힘있게 벌어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높이 타오른 대중운동의 불길.” 『로동신문』. 2003년 12월 5일.

최재남. “뜻깊은 9월의 명절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지방공업공방들이 번듯하게 꾸려진다, 강동군에서.” 『로동신문』. 2008년 6월 23일.

_____.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높이: 평양제사공장에서.” 『로동신문』. 2006년 11월 28일.

최칠남 · 동태관 · 전성호. “정론: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

최태복.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해나가자.” 『로동신문』. 2006년 2월 24일.

탁영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력사적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일군들의 투쟁.” 『력사과학』. 제2호, 2013.

편집국.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 구호를 높이 받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해 나가자.” 『근로자』. 제5호, 1975.

한광호. “기름작물을 더 많이 심어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자.” 『조선녀성』. 제1호, 2011.

한성기. “화학공업발전은 인민생활향상의 필수적요구.” 『천리마』. 제12호, 2010.

한통용. “설비개선현대화를 실현한 기세높이 식료품생산을 더욱 늘이겠다.” 『로동신문』. 2006년 2월 24일.

허철진. “우리당의 령도방법, 령도예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주체의 령도방법, 령도예술.” 『정치법률연구』. 제2호,

2011.
현순일. “4대선행부문은 인민생활향상의 관건적 고리.” 『천리마』. 제7호, 2010.
현정숙. “인민생활향상을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조선녀성』. 제6호, 2015.
_____. “우리 당의 군중로선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 『조선녀성』. 제6호, 2011.
홍성남. “올해 인민생활향상에서 경공업부문 앞에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 경제)』. 제2호, 2015.
황철웅.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앞채는 일군들이 메야 한다: 강계시당위원회 사업에서.” 『로동신문』. 2008년 6월 9일.
_____.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떠미는 힘있는 조직정치사업,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 큰 힘을: 강계영예군인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로동신문』. 2007년 8월 9일.
_____.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생산문화, 생활문화 꽃 피는 일터: 청진기초식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로동신문』. 2006년 12월 12일.

<기타 자료>

북한노동당규약 : 1948년, 1956년, 1970년, 1980년, 2010년, 2012년, 2016년.
북한헌법 : 1948년, 1972년, 1992년, 199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6년.
북한신년사 : 1962-1970, 1998-2011, 2012-2018.

외국자료

<단행본>

Babbie, Earl.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8*.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8.

Brzezinski, Zbigniew. *Straegic Vision: America and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12.

_____. *The Grand Chessboard*. New York: Basic Books, 1997.

Gregory, Paul R. and Stuart, Robert C. *Russian and Soviet Economic Performance and Structure*. New York: Addison Wesley, 2001.

Hong, Yong-Pyo. *State Security and Regime Security: President Syngman Rhee and Insecurity Dilemma in South Korea*, 1953-60. New York: St. Martin' s Press, 2000.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Jonsson, Gabriel. *Peace-keeping i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9.

Katzenstein, Peter J. editor.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oversity Press, 1996.

Kissinger, Henry. *On China*. New York: The Penguin Press, 2011.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Mead, Walter Russell. *Special Providence: American Foreign Policy and How It Changed the World*. New York: A Century Foundation Books, 2001.

Przeworski, Adam and Teune, Henry.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Malabar: Rorbert E. Kreigger Publishing Company, 1982.

_____.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New York: Wiley-Interscience, 1970.

Wendt, Al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논문>

Barlow, John A. "The Mass Line Leadership and Thought Reform in China." *American Psychologist*. Vol. 36, No. 3, 1981.

Hammond, Edward. "Marxism and the Mass Line." *Modern China*. Vol.4, No.1, 1978.

Jeon, Kyong Mann. "Defense Industrial Capabilities in Korea." Ph.D. Dissertation, Rand Graduate School, 1986.

Jun, Bong-Geu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emiperiphery: A Case Study of th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1992.

Kim, Seok-Hyang. "The Juche Ideology of North Korea: Socio-political Roots of Ideological Chang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1993.

Macintosh, Malcolm. "Stalin's Policies towards Eastern Europe, 1939-1948: The General Picture." Hammond, Thomas T., ed. The Anatomy of Communist Takeov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

Nam, Jongwoo. "The Geographical Construc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State Interests by the Weak Nation-State: The Dynamic Geographical Codes and Stable Geographical Visions of North Korea, 1948-2010."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at Urbanna-Champaign, 2012.

Park, Chan Bong. "Cooperation or Domination: An Analysis of Korean Unification Policies, 1972-1992."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1994.

Shih, Chih-yu. "The Mass Line Approach to Democracy in China."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3, No. 4, 1997.

Suh, Dae-Sook. "A Preconceived Formula for Sovietization: The Communist Takeover of North Korea." Hammond, Thomas T., ed. The Anatomy of Communist Takeov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

_____. "North Korea: emergence of an elite group." Staar, Richard F. ed. Aspects of Modern Communism. Columbia, S. 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68.

Young, Graham. "On the Mass Line." *Modern China*. Vol. 6, No. 2, 1980.

<기타>

http://www.bok.or.kr

http://www.ikistongil.org

https://www.kinu.or.kr

http://www.nk.ac.kr

http://www.unikorea.go.kr

ABSTRACT

A Study on the Mass Line in North Korea
- Centered on the Mass Mobilization Campaigns -

Kim, Chung-Hwan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irected by Prof. Shin, Jong-Dae

This dissertation is a study on the mass line and the mass mobilization campaigns in North Korea, on what its contents are, and on how it has been changed and continued.

The mass line in North Korea has diverse forms of mass mobilization campaign as the Cheollima Campaign, the Cheollima Working Group Campaign, the Cheollima Campaign for 80s' speed and the Red Flag Campaign for Three Revolutions, the second Cheollima Campaign, and the Mallima Campaign.

The mass line in North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combination of politico-ideological campaign and socialist production competition campaign in the mass mobilization campaigns. The mass line in North Korea, which is the combination of the politico-ideological campaigns and the socialist production competition campaigns, is distinguished from the mass line in other socialist countries such as the Soviet Un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stronger the politico-ideological campaigns are, the higher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tico-ideological campaigns for its social integration is in the relative perspective. The stronger the socialist production competition campaigns are, the higher the outcome of the socialist production competition campaigns for its economic development is in the relative perspectiv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ss mobilization campaigns have been continued by the unique combinations of politico-ideological campaigns for its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ist production competition campaigns for its economic development under the premise of its socialist state-building. Second, the focus of the mass mobilization campaign has been shifted from the socialist production competition campaigns to the politico-ideological campaigns at different periods. The Cheollima Campaign, the Cheollima Working Group Campaign, Cheollima Campaign for 80s' speed, the second Cheollima Campaign, and the Mallima Campaign are characterized by the strong socialist production competition campaign, and the Red Flag Campaign for Three Revolutions are characterized by the strong politico-ideological campaign. Third, socialist production competition campaigns have been facilitated in the period of Economic crisis and necessity during the Red Flag Campaign for Three Revolutions. Finally, the outcomes of politico-ideological campaigns can be relatively assessed by the number of units which received titles of the Cheollima Campaign and the Red Flag Campaign for Three Revolutions. The performance of socialist production competition campaigns can be relatively evaluated by the achievement of goals of economic plans with complex contexts.

* Key Words : Mass Line, Mass Mobilization Campaign, Cheollima Campaign, Red Flag Campaign for Three Revolutions, Politico-ideological Campaign, Production Competition Campaign.